내신 ⊕ 수능 독서 기본 완성



100발 100중 기본서

고등 독서

정답 및 해설

유형 학습

출제 유형 1 핵심 정보 찾기 • 본문 010~011쪽

유제 1 ① 유제 2 ③ 유제 3 요건 유제 4-1) ③ 2) 목적

유제
1 첫 문장에서 튜링 기계의 개념을 설명한 후, 튜링 기계가 테이프, 헤드, 상태 기록기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이어지는 문장에서 각각의 구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⑤ 튜링 기계의 역할이나 용도, 작동 방법, 활용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유제
2 석빙고에서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석빙고에 얼음을 왜 보관했는지, 보관한 얼음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석빙고의 기술이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제
3 식물의 품종보호 요건으로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을 들고 있다.

유제
4 1) (가)에서는 예술에 대해 플라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고 보았지만, 이를 예술의 본질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예술과 형상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플라톤이 생각하는 예술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2) 첫 문장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목적을 개개의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자, 즉 형상을 표현해 내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나)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예술의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출제 유형 2 세부 정보 이해하기 • 본문 012~013쪽

유제 1 ○ 유제 2 ② 유제 3-1) 공격성 2) 무의식 3) 열등감

유제
1 '수신 측은 데이터를 수신 완도우에 하나씩 저장하는데,'에서 알 수 있다.

유제
2 (가)에서 립시와 랭카스터가 차선의 이론을 제시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이 입증한 차선의 이론의 한계는 밝히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차선의 이론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에서 알 수 있다. ③ (가)의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에서 알 수 있다. ④ (나)의 '높은 효용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낮은 효용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 사회후생을 계산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가치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에서 알 수 있다.

유제
3 1) (가)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는 오직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등과 같은 쾌락 의지가 원인이 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나)에 따르면,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2) (나)에 따르면, 프랭클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동의하여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3) (다)에 따르면, 아들러는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기질적 불완전성을 갖기 때문에 원초적 욕구인 권력 의지를 추구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선택하게 될 때 신경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열등감 그 자체는 신경증으로 보지 않았다.

출제 유형 3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 본문 014~015쪽

유제 1 ① 유제 2 ③ 유제 3 백성 유제 4-1) × 2) ○

유제
1 (가)는 언어에 대한 소쉬르의 이론을, (나)는 언어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언어에 대한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상반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언어에 대한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유제
2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기존 사상가들의 견해를 비판한 들뢰즈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개념주의적 태도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을 소개할 뿐, 이론의 변천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② 개념주의적 태도와 들뢰즈의 태도의 차이점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들뢰즈의 이론은 개념주의적 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다.

유제
3 1문단에서는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 이이의 관점을 제시했다. 또한 2문단에서는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약용의 관점을 제시했다. 따라서 조선 시대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제
4 1)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2) 외부 물질이 지나치게 배척되는 상황이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이 됨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통념에 변화를 주고 있다.

출제 유형 4 세부 정보 추론하기 • 본문 016~017쪽

유제 1 개념 중심부, 베르니케 영역 유제 2 ③ 유제 3 ④

유제

1 1문단의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는 일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하지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간에는 쌍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한다'를 통해, 개념 중심부에서 형성된 의미는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만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말하기 과정이 '개념 중심부 → 브로카 영역 → 베르니케 영역 → 브로카 영역'과 같이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치는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은,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제

2 들뢰즈는 플라톤과 달리, 예술은 모방이 아닌 반복을 통해 주체의 판단과 상관없는 독립된 존재로서 존재 가치를 보존한다고 하였다. 또한 위계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플라톤 사유를 비판하고 이를 벗어난 예술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오답 해설 ① 예술 작품이 예술로서 미적 가치를 선택하는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 ② 시뮬라크르가 모방을 거듭하며 본질에서 멀어진 가짜라고 주장한 사람은 들뢰즈가 아니라 플라톤이다. ④ 들뢰즈는 시뮬라크르를 주체의 판단과 상관없이 독립된 존재로 보았다.

유제

3 (나)에 따르면, 유입된 독과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독을 해독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에 따르면, 아트로핀은 부교감 신경의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해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아트로핀이 일부 독의 해독제로 쓰이는 이유는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해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③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을 소모하거나 분비시키는 것은 아니다.

출제 유형 5 구체적 상황이나 사례에 적용하기 • 본문 018~019쪽

유제 1 ③ 유제 2 ② 유제 3-1) ○ 2) ×

유제

1 〈보기〉의 VZV에 의한 감염은 잠복감염이다. VZV를 가진 사람의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신체의 면역력 저하라는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나타난 증상이다.

오답 해설 ① 잠복감염은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프로바이러스의 상태로 잠복한다. ② 바이러스에 의해 질병이 발현된 상황이라면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고 주변 세포를 감염시킨다고 볼 수 있다.

유제

2 글에서 은행이 지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경상 운영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경상 운영비가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행의 영업 이익은 예대 금리 차에 의한 수익 22억 원에서 경상 운영비 12억 원을 차감한 10억 원이다.

유제

3 1) 플라톤은 이데아계와 현상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플라톤이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여신과 예술 작품으로서의 비너스 석상을 동일시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2)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너스 석상이라는 예술 작품이 이데아계를 직접 모방했을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출제 유형 6 어휘의 의미 이해하기 • 본문 020~021쪽

유제 1 ② 유제 2 ① 유제 3 ① 유제 4-1) ○ 2) ○ 3) × 4) × 5) ×

유제

1 ⓑ의 의미는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다.'의 뜻으로,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를 의미하는 '생기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사람, 사물, 사건 따위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이다.'의 뜻으로, '이름 붙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의 뜻으로, '다른 문화, 문물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되게 하다.'를 의미하는 '받아들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는 '어떤 일을 맡다.'의 뜻으로,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를 의미하는 '맡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는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의 뜻으로,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를 의미하는 '따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유제

2 ⓐ의 사전적 의미는 '추측하여 판정함.'이다.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의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는 '생각'이다.

유제

3 ⓐ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는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의 뜻이다. ①에서 '용돈을 주었다'의 '주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부담을 준다'의 '주다'는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책을 주셨다'의 '주다'와 '먹이를 주고'의 '주다'는 모두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시간을 주겠다'의 '주다'는 '시간 따위를 남에게 허락하여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임무를 주겠다'의 '주다'는 '남에게 어떤 역할 따위를 가지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기쁨을 주는'의 '주다'는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 '힘을 더 주고'의 '주다'는 '속력이나 힘 따위를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정을 주는'의 '주다'는 '다른 사람에게 정이나 마음을 베풀거나 터놓다.', '사랑을 주는'의 '주다'는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유제

4 ⓐ는 '본래의 방향에서 벗어나 다른 쪽으로 나가다.'의 뜻이다.

1), 2) 본래의 방향에서 벗어나 다른 쪽으로 나가다.

3) 꾀하는 일이 어그러지다.

4) 어떤 물체가 반듯하고 곧바르지 아니하고 옆으로 굽거나 꼬이다.

5) 사귀는 사이가 서로 벌어지다.

실전 학습

Ⅰ 인문 / 예술

01 ① 현실요법

• 본문 024~027쪽

1 ① 2 ① 3 ② 4 ③ 5 ② 6 ③ 7 ③

독해 PoinT 1 ○ 2 ① 생존의 욕구 ② 사랑의 욕구 ③ 힘의 욕구 ④ 자유의 욕구 ⑤ 즐거움의 욕구 3 욕구, 약한, 강한 4 ×

지문 한눈에 보기

1: 현실요법의 관점	현실요법 – 개인의 모든 행동은 인간의 다섯 가지 (①)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자신이 선택하는 것임.
2: 다섯 가지 기본 욕구의 특징	(②)의 욕구: 사회적 규칙이나 상식을 지키려는 욕구. 생존에 필요한 것을 아끼고 모으려는 욕구 → 건강과 안전을 중시함. (③)의 욕구: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 → 타인을 잘 돕고, 사랑을 주는 만큼 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기도 함. (④)의 욕구: 경쟁하여 성취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 직장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함.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 자기주장이 강하며 타인에게 지시하는 일에 능함. (⑤)의 욕구: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 →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을 싫어함. 상대방에게 대체로 관대하고, 혼자 하는 것을 즐아하며, 사람들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편하게 여김. (⑥)의 욕구: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즐기고 싶어 하는 욕구 → 취미 생활을 즐기며, 잘 웃고 긍정적 태도를 취함. 호기심이 많아 배우는 것을 즐아함.
3: 현실요법의 갈등 해결 방법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함. → 약한 욕구를 북돋아 주거나 강한 욕구들 사이에서 (⑦)과 조절을 하여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끎.
4: 현실요법의 의의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⑧) 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함.

정답 ① 욕구 ② 생존 ③ 사랑 ④ 힘 ⑤ 자유 ⑥ 즐거움 ⑦ 타협 ⑧ 선택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2에서 현실요법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본 욕구의 개념을 밝히고 있으며, 3에서 그 적용 사례를 들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현실요법의 한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현실요법의 등장 배경이나 발전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현실요법과 다른 관점을 지닌 이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현실요법의 주요 개념인 기본 욕구를 다섯 가지로 나누었으나, 추가할 새로운 유형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2 세부 정보 이해

3에서, 약한 욕구를 강한 욕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욕구를 북돋아 주거나 강한 욕구들 사이에서 타협과 조절을 하여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② 3에 따르면, 다섯 가지 욕구들의 강도는 개인마다 달라 다양한 행동 양상이 나타난다. ③ 4에 따르면, 현실요법에서는 내담자를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본다. ④ 1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을 그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다. ⑤ 1에 따르면, 현실요법은 기본 욕구들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3 구체적 사례 이해

㉠은 사랑의 욕구가 강하고 힘의 욕구가 약한 사람의 갈등 해결을 도와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람은 타인의 부탁을 불편해하면서도 이를 거절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부탁을 거절하거나 불편하다는 자기주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힘의 욕구가 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 혼자 어디론가 떠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자유의 욕구가 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④ 타인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원칙을 만드는 것은 생존의 욕구가 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사랑의 욕구가 약할 때,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즐거움의 욕구가 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가)는 자유의 욕구, (나)는 힘의 욕구, (다)는 사랑의 욕구, (라)는 즐거움의 욕구, (마)는 생존의 욕구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다. 힘의 욕구인 (나)의 강도가 A는 4, B는 1이므로, A는 B보다 힘의 욕구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의 경우, 즐거움의 욕구인 (라)의 강도는 1, 힘의 욕구인 (나)의 강도는 4이므로, A는 즐거움의 욕구보다 힘의 욕구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② B의 경우, 힘의 욕구인 (나)의 강도는 1, 생존의 욕구인 (마)의 강도는 5이므로, B는 힘의 욕구가 생존의 욕구보다 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④ A와 B 모두 자유의 욕구인 (가)의 강도가 5이므로, 자유의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⑤ A는 사랑의 욕구인 (다)의 강도가 5로 즐거움의 욕구인 (라)의 강도 1보다 강하지만, B는 즐거움의 욕구인 (라)의 강도가 3으로 사랑의 욕구인 (다)의 강도 1보다 강하다.

5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름.'의 뜻이다.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은 '성장'의 의미이다.

6 세부 정보 이해

1에 따르면, 현실요법에서는 개인의 모든 행동을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자신이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

오답 해설 ① 3에 따르면, 다섯 가지 욕구들의 강도는 개인마다 달라 행동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② 2에 따

르면,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건강과 안전을 중시한다. 자기주장이 강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힘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④ 4에 따르면, 내담자는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주체이다. ⑤ 3에 따르면,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약한 욕구를 북돋아 주거나 강한 욕구들 사이에서 타협과 조절을 하여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7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와 ㉰의 '벗어나다'는 모두 「2」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④ 「1」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 ⑤ 「3」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01 ② 홍대용의 사상과 그 의의 • 본문 028~032쪽

1 ③ 2 ② 3 ④ 4 ④ 5 ① 6 ②
7 ③ 8 ③

독해 PoinT 1 중화사상 2 × 3 ① 지구설 ② 무한 우주설 4 ○ 5 평등주의

지문 한눈에 보기

1: 중화사상의 주요 내용	중화사상: 한족이 자신들을 중화(세계의 중심)로 생각하고,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발달된 문화와 예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상 → 조선은 중화사상을 수용하였는데, 이는 북벌론과 (①)으로 이어짐.
2: 북학파의 등장과 홍대용의 사상 변화	• (②)의 주장: 청나라가 가진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자고 함. • 홍대용의 사상 변화 「을병연행록」: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함. → 「의산문답」: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사상적 전환을 이룸.
3: 홍대용의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	지구설: • 땅이 둥굶. → 일식, 월식이 둥글게 나타남. • 상하, 동서남북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개개인이 서 있는 곳이 기준이 될 수 있음. 무한 우주설: (③)은 무한하여 형체를 알 수 없고 지구와 같은 땅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음.
4: 중화사상과는 다른 홍대용의 사상	중국의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고, 중화와 오랑캐의 구별도 (④)임. →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국가는 모두 동등하며, 사람들이 각자 제 나라와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함.
5: 홍대용의 사상의 의의	평등주의와 (⑤)를 우리 역사에서 선구적으로 보여 줌.

정답 ① 척화론 ② 북학파 ③ 하늘 ④ 상대적 ⑤ 다원주의

1 세부 정보 이해

3에 따르면, 하늘이 둥글다는 것은 전통적인 천지관으로, 홍대용이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깨달은 점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1을 통해,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한 후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론과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척화론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② 2를 통해,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자 조선의 유학자들은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④ 3에서 「의산문답」에 실려 있는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을 설명하고 있다. ⑤ 홍대용이 아닌 다른 북학파 학자들의 사상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보기〉의 갑은 사람이 귀한 존재이고 동물이 천한 존재이므로 이들이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분이 낮은 자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천한 신분이라도 능력에 따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갑의 입장과는 다르다.

오답 해설 ① 갑은 사람을 귀한 대상으로, 동물과 초목을 천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1에서 송시열 또한 중국과 인류를 귀한 대상으로, 오랑캐와 금수를 천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③ 을은 동물과 초목도 각자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모든 국가와 문화, 사람이 각자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홍대용 사상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공통점이 있다. ④ 을은 정해진 관점과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홍대용의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 ⑤ 을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땅을 보면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는 홍대용의 생각과 공통점이 있다.

3 핵심 개념 이해

2와 3에서, 홍대용은 ㉠에서 벗어나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다고 하였으며, 이를 보여 주는 것이 ㉡과 무한 우주설이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이 조선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맞지만, ㉡은 ㉠에 어긋나는 학설이다. ② ㉠은 청을 오랑캐로 여기는 생각의 근거가 되었지만, ㉡은 아니다. ③ ㉠은 북벌론의 바탕이 되었지만, ㉡은 척화론과 관련이 없다. ⑤ ㉠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맞지만, ㉡이 ㉠을 발전시킨 것은 아니다.

4 구체적 사례 이해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공자가 주나라 사람이므로 주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홍대용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하는 중화사상과는 다르다.

오답 해설 ① 청나라를 오랑캐로 보는 것은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홍대용이 중화사상을 가진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조선만이 명나라의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조선이 중화였던 명나라를 이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홍대용이 조선을 중화의 계승자로 생각했었음을 보여 준다. ③ 변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겼다고 한 것은, 오랑캐로 여겨졌던 청나라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물을 구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공자가 주나라 밖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것은, 주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도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중화와 오랑캐의 구별이 상대적이라는 홍대용의 생각을 알 수 있다.

5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나라나 기관 따위를 처음으로 생기게 하다.'의 뜻으로, ①의 '세우다'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를 올바르게 하거나 짜다. ③ 계획, 방안 따위를 정하거나 짜다. ④ 쳐져 있던 것을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하다. ⑤ 무딘 것을 날카롭게 하다.

6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홍대용이 북경에 다녀오면서 그의 철학 사상이 크게 변하였다는 것은, 그가 기존에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고 인식하였으나 북경에 다녀온 이후에는 그러한 중화사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1에서, '오랑캐는 중국을 차지할 수 없고 금수(禽獸)는 인류와 한 부류가 될 수 없다.'라는 송시열의 주장이 북벌론과 척화론으로 이어졌다고 했는데, 〈보기〉에서 홍대용은 송시열을 계승하여 반청 의식을 가졌다고 했으므로 그가 북벌론과 척화론을 따랐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3에 따르면, 홍대용은 북경에 다녀온 이후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는데, 이는 「의산문답」의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에 잘 나타난다. ④, ⑤ 홍대용이 중화와 이적의 구분 자체를 무의미화했다는 것과 화와 이가 하나라는 입장을 보인 것은, 4에서 중화와 오랑캐라는 구별이 상대적임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국가가 모두 동등하다고 여긴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7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글, 그림, 사진 따위가 책이나 신문 따위의 출판물에 나오게 되다.'의 뜻으로, ③의 '실리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는 '다른 문화, 문물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되게 하다.'의 뜻인 반면, ①의 '받아들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비판 따위를 찬성하여 따르다. 또는 옳다고 인정하다.'의 뜻이다. ② ㉡는 '어떤 힘이나 영향 밖으로 빠져나오다.'의 뜻인 반면, ②의 '벗어나다'는 '맡은 일에서 놓여나다.'의 뜻이다. ④ ㉣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의 뜻인 반면, ④의 '다르다'는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의 뜻이다. ⑤ ㉤는 '주장이나 의견 따위를 내놓고 주장하거나 지지하다.'의 뜻인 반면, ⑤의 '내세우다'는 '나와 서게 하다.'의 뜻이다.

8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보기〉의 '나'는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으므로, '나'가 금수와 인류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개를 몽둥이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본 후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고 한 손의 말과 그에 이어지는 '나'의 말로 볼 때, 손이 생명의 가치를 크기에 따라 달리 여김을 알 수 있다. ② 1의 '송시열은 '오랑캐는 중국을 차지할 수 없고 금수(禽獸)는 인류와 한 부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로 볼 때 적절하다. ④ 4의 '홍대용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다면 이 땅이 무한한 우주에 비해 티끌만큼도 안 되며, 안과 밖을 구별하거나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고 보았다.'로 볼 때 적절하다. ⑤ '나'는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므로 적절하다.

01 ③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관점 • 본문 033~036쪽

1 ② 2 ④ 3 ③ 4 ⑤ 5 ① 6 ⑤
7 ⑤ 8 ④

독해 PoinT 1 ○ 2 ① 본연지성 ② 기질지성 3 기호 4 ×

지문 한눈에 보기

1: 인간의 본성에 대해 주희와 다른 관점을 보인 정약용	정약용은,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있던 주희의 (①) 을 비판하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함.
2: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의 관점과, 이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의 관점 본연지성: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 기질지성: 본연지성에 사람마다 다른 기질이 더해진 것 –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정약용은, 인간의 행위의 원인을 선천적 요인인 (②)로 본다면, 행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주희의 관점을 비판함.
3: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약용의 관점	인간의 본성–기호(즐기고 좋아함.)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니는 육체의 경향성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 인간만이 지니는 영혼의 경향성 → 정약용은, 인간의 행위는 (③)에 달려 있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4: 선한 행위의 실천 원리인 '서'	서: 자유 의지에 따른 선한 행위의 실천 원리 용서: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보아줌. – 타인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됨. 추서: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함. –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됨. → 정약용은 (④)에 따라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봄.

정답 ① 주자학 ② 기질 ③ 자유 의지 ④ 추서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의 관점(기존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한 정약용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관점만 제시하고 있으며, 그 관점들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설명하지 않았다. ③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을 뿐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의 관점과 대비되는 정약용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을 뿐, 둘을 절충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의 관점과 대비되는 정약용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을 뿐, 정약용의 관점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 세부 정보 이해

3에 따르면,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하면서도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감각적 욕구를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본 것

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제어해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2에 따르면, 주희는 인간에게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인 본연지성이 있다고 보았다. ② 2에 따르면, '주희는 인간의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를 하고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4에 따르면, '정약용은 추서에 따라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2에 따르면, '정약용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기질이라는 선천적 요인으로 본다면 행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희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3 핵심 개념 이해

㉠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니는 육체의 경향성'이고, ㉡은 '인간만이 지니는 영혼의 경향성'이다. 즉, ㉠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은 인간만이 지닌다.

오답 해설 ① 3에 따르면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온전히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기호이다. ② 생존에 필요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니는 육체의 경향성'인 ㉠이다. ④ ㉠과 ㉡은 모두 '기호'이고, 기호는 욕구를 즐기고 좋아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⑤ 3에 따르면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를 경우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 따라서 '자유 의지로 선한 행위를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는 원리 중 하나로서 타인의 잘못을 덮어 주는 행위인 용서는 ㉡과만 연결된다.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4에 따르면, 정약용은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예컨대 '친구가 거짓말을 했을 때 잘못을 덮어 주는 행위'를 용서라고 보았다. 또한 '용서는 타인의 악한 행위를 용인해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추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그런데 A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내색하지 않고 평소대로 열심히 청소한 B의 행동은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보아'준 것이므로 용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B가 추서로 A의 거짓말을 용인하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2에 따르면, 주희는 인간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인 본연지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거짓말을 한 것과 무관하게 A에게는 본연지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② 2에 따르면, 주희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인간의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를 하고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평소 청소를 잘 하지 않는 A와 항상 성실히 청소하는 B는 기질이 서로 다르다고 볼 것이다. ③ 3에 따르면, 정약용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온전히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A가 책임감 있게 청소하게 된 것은 A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④ 3에 따르면, 정약용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를 경우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소를 잘 하지 않던 A가 책임감을 갖고 청소하게 된 것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5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①의 '들다'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 ③ 사람이나 물건이 좋게 받아들여지다. ④ 빛, 볕,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다. ⑤ 안에 담기거나 그 일부를 이루다.

6 세부 정보 이해

3에 따르면,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니는 육체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정약용은 '인간만이 지니는 영혼의 경향성', 즉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를 경우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고 했을 뿐, 이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 악한 행위가 나타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4의 '정약용은 추서에 따라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3의 '정약용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온전히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의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각각의 기호를 본성으로 갖는다고 보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의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온전히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4에 따르면, 정약용은 용서가 '타인의 악한 행위를 용인해 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① 3에 따르면, '육체의 경향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주희가 아니라 정약용이다. ② 2에 따르면, 주희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 즉 본연지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희는 부정 행위를 했더라도 A에게 본연지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③ 3에 따르면,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를 경우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약용은 A가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다. ④ 2에 따르면, '탁한 기질'을 악한 행위의 원인으로 본 것은 정약용이 아니라 주희이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감정, 충동, 생각 따위를 막거나 누르다.'의 뜻으로, '마음대로 다루다'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는 '정하여 세우다.'의 뜻으로, '계획, 방안 따위를 정하거나 짜다.'를 의미하는 '세우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는 '성질이 흐리터분하고 바르지 못하다.'의 뜻으로, '바르지 못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는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다.'의 뜻으로, '옳다고 여기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의 뜻으로,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를 의미하는 '나누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1강 어휘 테스트

• 본문 038~039쪽

01 ①	02 ②	03 ①
04 고르는	05 너그럽다	06 받아들이는
07 바탕	08 기다렸다	09 표준
10 위신	11 태도	12 용납해
13 제시하고	14 저술했다	15 생각했다
16 강도	17 충족	18 호응
19 동등	20 부류	21 명분
22 선구적	23 탐구	24 의지
25 ㉢	26 ㉠	27 ㉡
28 ⑤	29 ①	30 ①

04 '선택하다'는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다.'의 뜻으로,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를 의미하는 '고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다루다: 일거리를 처리하다.

05 '관대하다'는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의 뜻으로,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를 의미하는 '너그럽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부드럽다: 성질이나 태도가 억세지 아니하고 매우 따뜻하다.

06 '수용하다'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의 뜻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비판 따위를 찬성하여 따르다. 또는 옳다고 인정하다.'를 의미하는 '받아들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굴어들이다: 남을 권하거나 꾀어서 자기편이 되게 하다.

07 '기반'은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의 뜻으로,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바탕'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바닥: 평평하게 넓이를 이룬 부분 / 물체의 밑부분

08 '고대하다'는 '몹시 기다리다.'의 뜻으로,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를 의미하는 '기다리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믿다: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09 '기준'은 '기본이 되는 표준'의 뜻으로,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의미하는 '표준'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표본: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

10 '권위'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의 뜻으로, '위엄과 신망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위신'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위치: 사회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위나 역할

11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의 뜻으로,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의미하는 '태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행동: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함.

12 '용인하다'는 '용납하여 인정하다.'의 뜻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다.'를 의미하는 '용납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인계하다: 하던 일이나 물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다.

13 제시하다: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

14 저술하다: 글이나 책 따위를 쓰다.

15 생각하다: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다.

16 강도: 센 정도

오답 해설 수위: 어떤 일이 진행되는 정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충족: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오답 해설 중전: 휴식을 하면서 활력을 찾거나 실력을 기르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8 호응: 부름에 응답한다는 뜻으로, 부름이나 호소 따위에 대답하거나 응함.

오답 해설 감응: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

19 동등: 등급이나 정도가 같음. 또는 그런 등급이나 정도

오답 해설 열등: 보통의 수준이나 등급보다 낮음. 또는 그런 등급

20 부류: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갈래

오답 해설 부족: 혈연관계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서도 일가처럼 지내는 사람들

21 명분: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오답 해설 명성: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

22 선구적: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그 시대의 맨 앞에 서는 것

오답 해설 선결적: 다른 문제보다 먼저 해결하여야 하는 것

23 탐구: 진리, 학문 따위를 파고들어 깊이 연구함.

오답 해설 탐색: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하여 살피어 찾음.

24 의지: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욕구

오답 해설 의무: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

28 ⑤의 '적정하다'는 '정도가 알맞고 바르다.'의 뜻으로, 문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④ '꼭 알맞다.'라는 의미의 '적절하다'가 사용되어야 한다.

29 ①에는 '따로 떼어 내어져 한데 헤아려지지 아니하다.'의 뜻을 지닌 '제외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⑤ 배척하다: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치다.

30 〈보기〉의 '대우하다'는 '예의를 갖추어 대하다.'의 뜻으로, ①의 '대우하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⑤ 어떤 사회적 관계나 태도로 대하다.

02 ① 타인의 얼굴

• 본문 040~043쪽

1 ④ 2 ④ 3 ① 4 ③ 5 ② 6 ④ 7 ⑤

독해 PoinT 1 주체 2 ○ 3 ① 향유의 주체성 ② 환대의 주체성 4 비상호적, 비대칭적 5 × 6 높은

지문 한눈에 보기

1: 레비나스가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한 배경	서양의 근대 철학: 주체 중심의 철학 –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함. → 레비나스는 (①)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함.	
2: 주체와 타자에 대한 레비나스의 관점	기존 철학에서의 주체	주위의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환원하는 (②) 존재 –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함.
	타자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 타자성: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
3: 향유의 주체성의 특징	※ (③)의 과정: 향유의 주체성 → 환대의 주체성 〈향유의 주체성〉 •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 •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는 초월할 수 없음.	
4: 환대의 주체성의 특징	•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 • 타자의 출현: 주체는 그동안 누려 왔던 자유와 이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의 요구에 (④)적인 응답을 해야 함. → 주체와 타자의 관계: 비상호적, 비대칭적	
5: 주체에게 있어 타자의 역할	타자 –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⑤)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함. →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	
6: 레비나스 철학의 가치 및 의의	가치	•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함. •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⑥)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음.
	의의	•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함. •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답 ① 주체성 ② 자기중심적 ③ 조월 ④ 무조건 ⑤ 책임 ⑥ 타자

1 세부 정보 이해

2에서 레비나스는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타자성이라 하였다. 타자성이 타자를 위해 주체를 희생하는 성질이라고 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2를 통해 기존 철학에서의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임을 알 수 있고,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② 4에서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에서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라고 하였다. ⑤ 3에서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인 자기성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2 세부 정보 추론

레비나스는 5에서 타자를,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로 보았고, 2에서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초월이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해 주체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초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존재라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3을 통해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므로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2를 통해 레비나스가 타자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5를 통해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 타자가 주체의 분열을 유도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글의 흐름상 적절하지도 않다. ⑤ 4와 5를 통해 타자는 주체를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게 함을 알 수 있다.

3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물체가 일정한 곳에 두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①의 '놓이다'가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최다 선택 오답〉 걱정이나 근심, 긴장 따위가 사라지거나 풀리다. ③, ④ 일정한 곳에 기계나 장치, 구조물 따위가 설치되다. ⑤ 무늬나 수가 새겨지다.

! ②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②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의 대상인 '레비나스'를 막연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②를 제외한 ①, ③, ④, ⑤에서 '놓이다'의 대상이 모두 구체적인 사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답을 ②로 선택하는 함정에 빠져 버린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제시된 단어가 쓰인 문장의 주체, 대상, 관련된 부사어, 목적어 등을 빠짐없이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4 다른 관점과의 비교

〈보기〉는 나와 타자가 투쟁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타자를 나의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는 타자가 갇힌 세계에 있는 나(주체)를 열린 세계로 초월하게 만드는 존재라 여기고 있다. 따라서 ㉮와 달리 〈보기〉는 타자를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대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이다.'와, 3의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인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는 초월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와 〈보기〉 모두 인간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여김을 알 수 있다. ② 〈보기〉는 타자와의 공존을 위해 국가의 존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지만, ㉮는 타자와의 공존나 이를 위한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인간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요구되며 이러한 국가는 상호 간의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성립한다고 하였으므로, 합의와 계약에 의해 타자에 대한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에서 ㉮는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해야 하는 존재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합의와 계약에 의해 타자에 대한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4의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 왔던 자유와 이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를 통해, ㉮ 또한 타자를 환대할 때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5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보기〉에서 A는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을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로 여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를 통해 환대의 주체성이,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가 그동안 누려 왔던 자유와 이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A의 모습은 자신의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를 환대하는 새로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A는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위해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를 통해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는 타자인 외국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주체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B는 외국인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 주려 하였다. 그리고 4를 통해 환대의 주체성이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는 외국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B는 살 길을 찾아온 외국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4를 통해 환대의 주체성이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는 타자인 외국인들을 주체인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 A는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이익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여기므로, 3에 언급된 자기성이 바탕이 된 향유의 주체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B는 외국인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 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4에 언급된 환대의 주체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6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보기〉는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비율이 오이시디(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기〉에서 오이시디(OECD) 국가들의 난민 수용 비율이 제시된 까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비율이 낮음을 보여 주기 위함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레비나스의 이론에 따르면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타자를 환대하는 것인데, 이는 자기성을 상실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즉, 난민 수용 비율과 자기성 상실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이라는 타자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②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로 볼 때, 우리나라는 난민을 주체의 존재를 위협하는 타자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③ 우리나라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소극적인 것은 향유의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열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려는 행동은 초월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 앞에 쓰인 '진정한 삶'은 주어인 '인간의 삶은'이 목적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⑤가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하다.

02 ②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 본문 044~047쪽

1 ① 2 ③ 3 ③ 4 ③ 5 ③ 6 ⑤

독해 PoinT 1 지시체 2 뜻 3 × 4 관념 5 ○

지문 한눈에 보기

1: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의미지칭 이론의 입장과 그에 대한 프레게의 비판

의미지칭이론 – (①)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 자체임.
→ 프레게는 의미지칭이론을 비판하며 지시체와 뜻을 구분하여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함.

2: 프레게의 이론 ① – 고유 이름은 지시체가 아닌 뜻을 의미함.

1) 샛별은 샛별이다.
2)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 동일한 (②)인 '금성'의 서로 다른 제시 방식인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다른 뜻을 가짐. ∴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지시체'이므로,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야 함.

3: 프레게의 이론 ② – 고유 이름에 한정 기술구도 포함되어야 함.

예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
- (③) –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유 이름임.
-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서로 다른 제시 방식 – 각각 다른 뜻을 가짐.

4: 프레게의 이론 ③ – 언어 표현의 뜻은 지시체에 대한 개인의 관념과 다름.

관념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
뜻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 – 공적인 것임.

→ 뜻이 관념과 같으면 (④)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5: 프레게의 이론의 의의

- 지시체와 뜻을 구분함으로써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함.
- (⑤)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대상의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게 됨.

정답 ① 고유 이름 ② 지시체 ③ 한정 기술구 ④ 의사소통 ⑤ 지시체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의미지칭이론의 입장을 비판하는 프레게의 이론을,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예, 아리스토텔레스를 나타내는 한정 기술구의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프레게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③ 프레게는 의미지칭이론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둘이 상반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두 이론을 절충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④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의미지칭이론과 프레게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관점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⑤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프레게의 이론에 제기된 문제점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세부 정보 이해

ⓐ는 가족들이 관찰하고 있는 대상으로, 지시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에서는 망원경 렌즈에 맺힌 달의 형상은 모두 같았고 이에 대해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A]의 '뜻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

산',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뜻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으로 볼 때, ⓑ는 뜻에 해당한다. 또한 ⓒ에서 망막에 맺힌 달은 가족들에게 서로 다른 추억으로 기억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A]의 '관념은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이다.'로 볼 때, ⓒ는 관념에 해당한다.

3 중심 개념 이해

4의 '관념은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이다.'와 '만약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고 한다면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의사소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를 통해, 개인의 내적 이미지인 관념은 주관적이어서 사람마다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 대한 관념, 즉 개인의 내적 이미지는 일치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3에서 '프레게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와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는 고유 이름들이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은 다른 뜻을 가진다.'라고 하였으며, 〈보기〉에서 ㉮와 ㉯의 지시체는 ㉰라고 하였다. 따라서 ㉮와 ㉯는 지시체인 ㉰에 대한 서로 다른 제시 방식이며 각각 다른 뜻을 가짐을 알 수 있다. ② 1에서 고유 이름은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3에서 '프레게는 고유 이름에 한정 기술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정 기술구란 오직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조건을 몇 개의 단어나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몇 개의 단어와 기호로 구성된 한정 기술구인 ㉮와 ㉯도 고유 이름으로 볼 수 있다. ④ 3의 '한정 기술구란 오직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조건을 몇 개의 단어나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이다.'와 '프레게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와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는 고유 이름들이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은 다른 뜻을 가진다.'로 볼 때, 'a와 c의 교점'도 ㉰에 대한 제시 방식에 포함할 수 있다. ⑤ 2에서 '1) 샛별은 샛별이다.'는 동어의 반복이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2)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 문장에 대한 인식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다. ㉲는 2의 2)와, 'o는 o이다.'는 2의 1)과 대응하므로, 두 문장은 인식적 차이가 발생한다.

4 정보 추론

㉠에서 '유니콘'은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대상의 고유 이름이라고 했다. 1의 '의미지칭이론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 즉 지시체 자체이다.'로 볼 때, 의미지칭이론에서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시체 자체인데 유니콘은 지시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대상의 고유 이름이므로, 의미지칭이론에서는 ㉠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의미지칭이론에서 고유 이름이 다수의 지시체를 의미한다거나, 고유 이름과 지시체가 서로 관련이 없다거나, 고유 이름과 지시체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고유 이름으로는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본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5 중심 개념 이해

㉠과 ㉡은 한정 기술구로, ㉢과 같은 고유 이름이며, o에 대한 서로 다른 제시 방식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과 ㉡의 지시체는 ㉢으로 동일하다. ② ㉠~㉢ 모두 고유 이름이며, 그중 ㉠과 ㉡은 한정 기술구에 해당한다. ④ 의미지칭이론에서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시체 자체라고 본다. 따라서 의미지칭이론에 따르면 ㉠과 ㉡은 ㉢ 그 자체일 것이다. ⑤ 프레게는 ㉠과 ㉡은 ㉢에 대한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 다른 뜻을 지닌다고 볼 것이다.

6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진리, 가치, 옳고 그름 따위를 판단하여 드러내 알리다.'의 뜻으로, ⑤의 '밝히다'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불빛 따위로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다. ② 자지 않고 지내다. ③ 드러나게 좋아하다. ④ 빛을 내는 물건에 불을 켜다.

02 ③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 본문 048~052쪽

1 ② 2 ③ 3 ② 4 ③ 5 ③ 6 ③
7 ④ 8 ③

독해 PoinT 1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2 선험적 3 ○ 4 형식적 5 자유주의 6 ○ 7 중재 8 ×

지문 한눈에 보기

1: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도덕적 (①)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	
2: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한 도덕적 원칙 주의자의 입장	합리적인 (②)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함. – 갈등 상황에서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함.	
3: 도덕적 원칙주의의 의의와 한계	의의	인간의 (③)인 이성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함.
	한계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도덕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도 않음.
4: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한 도덕적 자유주의 자의 입장	선험적인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④)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함.	
5: 도덕적 자유주의의 의의와 한계	의의	인간의 (⑤)을 보장하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 냄.
	한계	•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님. • 합의를 통해 상위 원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규범과 지침 마련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6: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한 도덕적 다원주의 자의 입장	해결 (⑥)한 도덕적 갈등이 있음. –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	
7: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한 도덕적 다원주의 자의 해결 방안	•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을 제안함. •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 갈등 당사자 간의 (⑦)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함.	

8: 도덕적 다원주의의 한계와 의의		
	한계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의의	갈등 상황에서 따라야 할 단일 기준을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기지와 (⑧)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정답 ① 갈등 ② 이성 ③ 합리적 ④ 상위 원리 ⑤ 자율성 ⑥ 불가능 ⑦ 인간관계 ⑧ 창조력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1에서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언급한 뒤, 2~3에서는 도덕적 원칙주의의 입장과 의의 및 한계를, 4~5에서는 도덕적 자유주의의 입장과 의의 및 한계를, 그리고 6~8에서는 도덕적 다원주의의 입장과 한계 및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4에 도덕적 원칙주의자와 도덕적 자유주의자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두 관점을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도 않다. ③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을 도덕적 원칙주의, 도덕적 자유주의, 도덕적 다원주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분류한 기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을 나열하고 있을 뿐, 그러한 관점이 시대별로 변화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새로운 관점의 등장을 전망하고 있지도 않다. ⑤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으나, 이처럼 다양한 관점으로 분화된 배경이나 이러한 관점들이 혼재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세부 정보 이해

㉠은 선험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은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에 따라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과 ㉡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2의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4의 '상위 원리를 통해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면'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4의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원칙주의자와 달리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2를 통해 ㉠은 선험적인 도덕 법칙으로 도덕적 갈등 상황이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를 통해 ㉡은 상위 원리를 통해 만든 규범이나 지침들로 도덕적 갈등 상황이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 구체적 사례를 통한 핵심 정보 이해

[가]에서, 어떤 조건에서는 우선시되는 가치가 다른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으므로, 〈보기〉의 ㉮와 ㉯에서 C가 서로 다르게 판단한 것은 조건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C는 ㉮에서는 자신이 판사라는 조건하에서 법을 지키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고, ㉯에서는 D와 친구 사이라는 조건하에서 친구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를 통해,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 통일된 지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 ③ C는, ㉮에서는 법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고, ㉯에서는 친구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C가 우선시한 가치는 ㉮와 ㉯에서 각각 다르다. ④ ㉮와 ㉯에서 C는 조건에 따라 가치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는 [가]에서 말한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의 어려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C가 ㉮에서는 통일된 지표에 따라, ㉯에서는 조건에 따라 판단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는 A의 상황이 딱한 것과 법을 지키는 것 사이의 갈등 상황이, ㉯에서는 돈을 받으려 소송하는 것과 친구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라는 갈등 상황이 드러나 있다. 즉, ㉮와 ㉯ 모두 두 가치 간의 내재적 속성이 상충되고 있다.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4에 따르면,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현실적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도덕적 갈등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특정 경험이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CCTV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는 을의 입장을 고려하여 갑이 양보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2에 따르면,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갑이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② 4에 따르면,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에 의해 CCTV 설치 확대가 결정된다면 CCTV 설치 확대를 반대한 을도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④ 7에 따르면,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갑과 을이 CCTV 설치 확대 문제에 대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⑤ 7에 따르면,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 갈등 당사자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CCTV 설치 확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5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는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의 뜻으로 쓰였다. '잘 보호하여 기름.'을 뜻하는 단어는 '보양(保養)'이다.

6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4에 따르면,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개인들의 합의로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보기〉에서 갑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병의 생각일 뿐 을과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2에 따르면,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주장하므로, 형편이 어려운 갑의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갑을 용서하자는 병에게 도덕 법칙에 근거하여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④ 7에 따르면,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갈등 당사자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하므로, 갑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때문에 을과 병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⑤ 7에 따르면,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갈등 상황에서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

을 제안하므로, 을과 병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7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A는 선험적인 도덕 법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원칙주의자, B는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자유주의자, C는 갈등 상황에서 타협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로 볼 수 있다. 3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 법칙은 선험적 도덕 법칙으로, 도덕적 원칙주의자인 A만 그러한 도덕 법칙을 중시하며, B는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도덕적 원칙주의자인 A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선험적 도덕 법칙라고 생각하여 지키려 할 것이다. ② 도덕적 자유주의자인 B가 법적인 의무를 따지는 것을 통해 법과 같은 공정한 형식적 절차를 중시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도덕적 다원주의자인 C는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할아버지인지 임신부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타협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8에 따르면,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기지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대상을 평가하다.'의 뜻인 반면, ③의 '보다'는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 가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의 '보다'는 Ⓐ와 같이 '대상을 평가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02강 어휘 테스트

• 본문 054~055쪽

01 ②	02 ②	03 ②
04 바뀌게 하는	05 정했다	06 토의
07 판단한다고	08 여긴다	09 구별하지 못해서는
10 믿는다	11 좁은	12 어긋나게 되어
13 지혜	14 공적	15 허구적
16 선험적	17 참상	18 확장해
19 계기	20 호소	21 배제할
22 지칭하는	23 만족하는	24 외면하고
25 합의	26 ㉡	27 ㉢
28 ㉠	29 ⑤	30 ①

04 '환원하다'는 '잡다한 사물이나 현상이 어떤 근본적인 것으로 바뀌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의 뜻이다.

05 '정립하다'는 '정하여 세우다.'의 뜻으로, '여럿 가운데 선택하거나 판단하여 결정하다.'를 의미하는 '정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기억하다: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내다.

06 '논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또는 그런 토의'의 뜻으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함.'을 의미하는 '토의'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논설: 어떤 주제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조리 있게 설명함.

07 '인식하다'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의 뜻으로,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다.'를 의미하는 '판단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판명하다: 어떤 사실을 판단하여 명백하게 밝히다.

08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의 뜻으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를 의미하는 '여기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확신하다: 굳게 믿다.

09 '혼동하다'는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하다.'의 뜻이다. 여기서 '구별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다.'의 의미이다.

오답 해설 나누다: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

10 '신뢰하다'는 '굳게 믿고 의지하다.'의 뜻으로,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다.'를 의미하는 '믿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전담하다: 전문적으로 맡거나 혼자서 담당하다.

11 '편협하다'는 '한쪽으로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다.'의 뜻으로, '마음 쓰는 것이 너그럽지 못하다.'를 의미하는 '좁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낮다: 품위, 능력, 품질 따위가 바라는 기준보다 못하거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12 '상충되다'는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나게 되다.'의 뜻이다. 여기서 '어긋나다'는 '기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다.'의 의미이다.

오답 해설 다투다: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우다.

13 '기지'는 '특별하고 뛰어난 지혜'의 뜻으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는 '지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지략: 어떤 일이나 문제든지 명철하게 포착하고 분석·평가하며 해결 대책을 능숙하게 세우는 뛰어난 슬기와 계략

14 공적: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것

15 허구적: 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만드는 성질을 띤 것

16 선험적: 경험에 앞서서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

17 참상: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나 상황

오답 해설 실상: 실제 모양이나 상태

18 확장하다: 범위, 규모, 세력 따위를 늘려서 넓히다.

오답 해설 확정하다: 일을 확실하게 정하다.

19 계기: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오답 해설 시초: 맨 처음

20 호소: 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마음이나 감정 따위를 불러일으킴.

오답 해설 호의: 친절한 마음씨. 또는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

21 배제하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다.

오답 해설 배반하다: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다.

22 지칭하다: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다.

오답 해설 지참하다: 무엇을 가지고서 모임 따위에 참여하다.

23 만족하다: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오답 해설 만끽하다: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다.

24 외면하다: 마주치기를 꺼리어 피하거나 얼굴을 돌리다.

오답 해설 외경하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25 합의: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 의견

오답 해설 회의: 여럿이 모여 의논함. 또는 그런 모임

29 〈보기〉의 '지적하다'는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하다.'의 뜻이다. 반면, ⑤의 '지적하다'는 '꼭 집어서 가리키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0 〈보기〉의 '포기하다'는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리다.'의 뜻으로, ①의 '포기하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⑤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다.

03 ① 논리와 사고

• 본문 056~059쪽

1 ④ **2** ⑤ **3** ⑤ **4** ③ **5** ② **6** ② **7** ④

독해 PoinT 1 ① 전체 긍정 명제 ② 전체 부정 명제 ③ 부분 긍정 명제 ④ 부분 부정 명제 2 전체, 전체, 부분, 부분 3 전체 4 ○ 5 전체, 전체 6 ×

지문 한눈에 보기

1: 표준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기본 명제	(①)의 유형: 전체 긍정 명제, 전체 부정 명제, 부분 긍정 명제, 부분 부정 명제
2: 네 가지 기본 명제의 표준 형식	전체 긍정 명제 (②) ~는 ~이다. 전체 부정 명제 (③) ~도 ~가 아니다. 부분 긍정 명제 (④) ~는 ~이다. 부분 부정 명제 (⑤) ~는 ~가 아니다.
3: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기 예시 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⑥) 긍정)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 사실의 서술 → 칼을 쓰는 어떤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⑦) 긍정) • 교훈적인 말 →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⑧) 긍정)
4: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기 예시 ②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대부분'은 전체가 아님. → 어떤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⑨) 긍정)
5: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기 예시 ③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 •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것 →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⑩) 긍정) •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 →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⑪) 부정)
6: 일상 언어의 문장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는 방법	먼저 적절한 해석을 한 후 그것이 (⑫)되는 뜻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형식으로 고침.

정답 ① 기본 명제 ② 모든 ③ 어느 ④ 어떤 ⑤ 어떤 ⑥ 전체 ⑦ 부분 ⑧ 전체 ⑨ 부분 ⑩ 전체 ⑪ 전체 ⑫ 이해

1 세부 정보 이해

4에서, 명제의 양을 전체와 부분으로만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부분에 관한 명제들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5에서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로 고쳐 쓸 수 있다고 하였다. ② 3에서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를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전체 긍정으로 읽게 된다고 하였다. ③ 2에서 '모든 ~는 ~가 아니다.'는 표준 형식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⑤ 6에서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이 많다고 하였다.

2 세부 정보 추론

3에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은 이것을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에게는 부분 긍정으로,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전체 긍정으로 읽힌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람에 따라 다른 이 두 해석 중 어느 것이 옳은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상 언어의 문장이 읽는 사람에 따라 논리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논리학의 영역 밖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6에서, 일상 언어의 문장은 이용되는 경우나 내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때가 많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대로 타당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는 논리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 이유는, 일상 언어의 문장들은 읽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6에서, 일상 언어의 문장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칠 때는 해당 문장을 적절하게 해석한 후 그것에 맞는 표준 형식으로 고쳐 주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상 언어를 논리학의 표준 명제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과도 인과 관계가 없다. ② 1에 따르면, 논리학은 명제의 형식을 중시한다. 따라서 논리학이 명제의 형식을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과도 인과 관계가 없다. ③ 3~5에서, 다양한 일상 언어의 문장들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일상 언어의 문장과 논리학의 문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과도 인과 관계가 없다. ④ ㉠에서 말한 '해석'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3~6으로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일상 언어의 문장을 네 가지 기본 명제의 형식으로 바꾸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한편 선택지의 '해석'을 논리학의 작업으로 이해하면, 일상 언어의 문장을 네 가지 기본 명제의 형식으로 바꾼 후 논리학의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과는 인과 관계가 없다.

3 비판적 추론

〈보기〉는 일상 언어의 문장으로, 2에 제시된 네 가지 표준 형식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에 따르면, 표준 형식은 그 뜻이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지만, 〈보기〉는 표준 형식이 아니므로 분명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 긍정하므로, 〈보기〉가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라는 판단은 타당하다. ②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 긍정할 뿐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긍정은 없으므로, 〈보기〉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했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③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 긍정하므로,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만 참석했다.'라는 것을 긍정하지도 않는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④ **〈최다 선택 오답〉**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 긍정하므로,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인지에 대한 긍정이 없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 ④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④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범위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기〉에서는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고 했는데, ④에서는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어떤지에 대한 긍정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④를 고른 것은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긍정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보기〉가 기본 명제로서 표준 형식이 아니므로, 〈보기〉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독서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의 전체 문장뿐 아니라 단어 하나, 조사 하나도 세심히 신경 써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

4 다른 상황에의 적용

㉱를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라고 고치면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이 '경마'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 되므로, 그 뜻이 애매하고 모호해진다. 따라서 전체 긍정의 명제인 '경마에 미친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은 경마이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최다 선택 오답〉** ㉮: '원숭이'는 '모든 원숭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이다.'와 같은 부분 긍정의 명제로 고칠 수 있다. ② ㉯: '소수의 사람들만'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 전체가 아님을 뜻하므로,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와 같은 부분 긍정의 명제로 고칠 수 있다. ④ ㉲: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는 '비가 오는 모든 날'을 뜻하므로, '비가 오는 모든 날은 그가 택시를 타는 날이다.'와 같은 전체 긍정의 명제로 고칠 수 있다. ⑤ ㉳: '피서지마다'는 '모든 피서지'를 뜻하므로, '이번 여름의 모든 피서지는 초만원을 이루는 곳이다.'와 같은 전체 긍정의 명제로 고칠 수 있다.

! ①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①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의 '원숭이'를 '모든 원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는 '소수', ㉰는 '언제나', ㉳는 '피서지마다'라는 단서를 통해 그것이 부분 긍정인지 전체 긍정인지 판단이 쉬웠지만, ㉮는 그러한 단서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도'라는 조사에 꽂혀 '원숭이'를 '모든 원숭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를 3의 예인 "고래는 포유동물이다."의 경우처럼 전체 긍정 명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 ㉮를 하나의 교훈적인 말로 보아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전체 긍정으로 이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해석의 차이에 따른 형식의 다양성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일상 언어의 문장을 전체나 부분에 관한 명제로 고칠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결국 '전체'와 '부분'을 제대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5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는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이라는 의미이다. '구체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의 뜻을 지닌 말은 '구체화'이다.

6 다른 상황에의 적용

㉣는 '홍길동이 응징한 모든 사람은 탐관오리이다.'와 같이 전체 긍정 명제로 고칠 수 있다. ②는 홍길동이 응징한 사람들의 일부가 탐관오리라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 '대개의'는 전체가 아니므로 부분 긍정의 명제로 고칠 수 있다. ③ ㉰: '소수의'로 볼 때 과제를 마친 학생은 전체가 아니므로 부분 긍정의 명제로 고칠 수 있다. ④ ㉱: 먹을거리는 굶주린 사람이 생각하는 전체이므로 전체 긍정의 명제로 고칠 수 있다. ⑤ ㉳: '항상'은 전체임을 뜻하므로 전체 긍정의 명제로 고칠 수 있다.

7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하여,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함.'(ㄹ)의 뜻으로 쓰였다.

03 ② 국악개론

• 본문 060~063쪽

1 ③ 2 ① 3 ④ 4 ① 5 ② 6 ③

독해 PoinT 1 × 2 장구 3 ○ 4 변주 5 큰, 작은 6 시간적

지문 한눈에 보기

1: 국악 장단의 개념과 구성	• 국악 장단: 일정한 주기로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①) 으로 되풀이되는 것 • 국악 장단 구성의 단위: 박 보통박: 기준이 되는 박 소박: 보통박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갠 박
2: 장구 장단의 기보 방식	• 각각의 점에 해당하는 (②)를 사용함. • 악기에서 울려 나오는 특징적인 소리를 입으로 흉내 낸 구음을 부호 아래에 첨가하기도 함.

3: 장구 장단의 종류와 이를 정간보에 나타내는 방법	덩(𝅘𝅥)	장구의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침.
	덕(|)	채편을 한 번 침.
	기덕(¦)	채편을 칠 때 짧은 꾸밈음을 붙여 침.
	더러러러(⁞)	채의 탄력을 이용하여 채를 굴리며 채편을 침.
	쿵(◯)	장구의 (③)만 침.
4: 정간보에 점의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과 변주	• 정간보에 점의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 – 한 소박: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 하나가 있음. – 두 소박: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정간이 빈칸으로 남아 있음. • 기본 (④)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곡의 흐름이나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변주가 가능함.	
5: 소리의 크기에 따른 장구 연주 방법	큰 소리	북편을 손 대신 (⑤)로 침. 예 실외음악, 사물놀이
	작은 소리	가죽의 가장자리 부분인 (⑥)을 침. 예 독창, 독주의 반주, 실내악 연주
6: 장단의 역할	• 음악의 진행을 시간적으로 안배함. • 연주자나 창자의 (⑦)을 조절하며 음악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감.	

정답 ① 규칙적 ② 부오 ③ 북편 ④ 장단 ⑤ 궁채 ⑥ 변죽 ⑦ 오름

1 세부 정보 이해

3과 4에서 장단을 정간보에 기보할 때 점의 부호와 구음을 표시하는 방법, 점의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 등은 설명하고 있지만, 점의 강약을 나타내는 방법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의 '국악의 장단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1의 '기본 단위인 '박'으로 구성된다.'에서 알 수 있다. ④ 4의 '변주는 악곡의 흐름에 맞게 장단에 변화를 주어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⑤ 6의 '국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려면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음악에 담긴 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2 세부 정보 이해

4의 '정간보에는 점의 길이도 나타낼 수 있다.'로 볼 때, 정간보를 통해 연주할 점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5에 따르면, '변죽은 작고 높은 소리가 나는 반면, 복판은 크고 낮은 소리가 나'므로, 크고 낮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채편의 변죽이 아니라 복판을 쳐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1에서 '여러 개의 소박이 모여서 하나의 보통박을 이룬다고 했으므로, 여러 개의 소박을 쳐서 하나의 보통박을 연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5의 '큰 소리를 내야 할 때에는 북편을 손 대신 궁채로 치기도 한다.'를 통해, 북편을 치는 도구는 음악의 연주 상황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⑤ 2에서 〈그림 2〉가 '굿거리장단의 기본 장구 장단'이라고 했는데, 3에서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는 것'을 '덩'이라 했으므로, 기본이 되는 장단에서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칠 수 없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3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학생의 '창작 장단'에서 세 번째 보통박에는 '쿵'과 '더러러러', 그리고 다시 '쿵'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세 번째 보통박에서는 종류가 다른 세 점이 아니라 두 점을 연주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덕'이 표시된 정간은 모두 그 다음 정간이 비어 있으므로 두 소박으로 연주해야 한다. ② 마지막 보통박에는 '덕'과 '기덕'이 사용되었는데, '덕'은 채편을 한 번 치는 것이고, '기덕'은 짧은 꾸밈음을 붙여 채편을 치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보통박은 채편만 쳐서 연주하면 된다. ③ 합장단은 '덩'을, 겹채는 '기덕'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덩'으로 시작하고 '기덕'으로 마무리되는 학생의 '창작 장단'은 합장단으로 시작하고 겹채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⑤ 첫 번째 보통박의 세 번째 소박과 마지막 보통박의 세 번째 소박은 모두 '기덕'이므로 적절하다.

4 세부 정보 이해

5에 따르면, 실외음악이나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를 내야 할 때는 북편(ⓐ)을 손 대신 궁채(ⓑ)로 치기도 한다. 또한 독창이나 독주의 반주, 실내악 연주처럼 소리를 작게 내어야 할 때는 채편(ⓒ)의 가장자리 부분인 변죽(ⓓ)을 친다.

5 세부 정보 이해

합장단은 '덩'을, 겹채는 '기덕'을 가리키는 말이다. 첫 번째 보통박에 나타나는 '덩'은 다음 정간이 비어 있으므로 두 소박으로 연주해야 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 보통박에 나타나는 '기덕'은 모두 다음 정간이 비어 있지 않으므로 한 소박으로 연주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더러러러'는 두 번째, 네 번째 보통박에서 나타나는데, 모두 다음 정간이 비어 있다. 따라서 '더러러러'는 모두 두 소박으로 연주해야 한다. ③ 첫 번째 보통박은 '덩'과 '기덕', 두 번째와 네 번째 보통박은 '쿵'과 '더러러러', 세 번째 보통박은 '쿵'과 '기덕'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모든 보통박에서 종류가 다른 두 점을 연주해야 한다. ④ 첫 번째 보통박의 첫 번째 소박은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는 '덩'이고 나머지 보통박의 첫 번째 소박은 모두 북편만 치는 '쿵'이다. 따라서 모든 보통박의 첫 번째 소박에서는 북편을 쳐야 한다. ⑤ 첫 번째와 세 번째 보통박의 세 번째 소박은 모두 '기덕'이다.

6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뜯다'는 '현악기의 줄을 퉁겨서 소리를 내다.'라는 뜻으로, '가야금을 뜯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에는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다.'라는 뜻의 '치다'가 들어가야 한다. ② ㉯에는 '관악기를 입에 대고 숨을 내쉬어 소리를 내다.'라는 뜻의 '불다'가 들어가야 한다. ④ ㉱에는 '현악기의 줄을 퉁겨서 소리를 내다.'라는 뜻의 '뜯다'나, '악기의 줄을 퉁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라는 뜻의 '타다'가 들어가야 한다. ⑤ ㉰에는 '현악기의 줄을 활 따위로 문질러 소리를 내다.'라는 뜻의 '켜다'가 들어가야 한다.

03 ③ 미래주의 회화 운동 • 본문 064~067쪽

1 ④ 2 ② 3 ② 4 ⑤ 5 ① 6 ④

독해 PoinT 1 산업화 2 분할주의 3 × 4 ○

지문 한눈에 보기

1: 미래주의의 등장 배경과 특징	• 등장 배경: 산업화에 뒤처진 이탈리아는,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필요로 함. • 특징: 산업화의 특성인 (①)와 (②)에 주목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 함.

2: 미래주의의 의도와 표현 기법	• 의도: 대상의 움직임의 추이를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대상을 (③) 있게 형상화하려 함. • 표현 기법: 분할주의 기법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하나의 화면에 표현함.
3: 분할주의 기법의 종류	이미지의 겹침: 화면에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의 이미지로 (④)시켜서 표현함. 역선: 대상의 움직임의 궤적을 여러 개의 선으로 구현함. 상호 침투: 대상과 대상이 겹쳐서 보이게 함.
4: 미래주의의 의의와 영향	• 의의: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함. • 영향: (⑤) 등장에 영감을 제공함.

정답 ① 속도 ② 운동 ③ 생동감 ④ 중첩 ⑤ 키네틱 아트

1 세부 정보 이해

3과 4에 미래주의 회화가 19세기 사진작가 머레이의 연속 사진 촬영 기법의 영향을 받았고 키네틱 아트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을 뿐, 미래주의 회화 자체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을 통해 화가 발라, 조각가 보치오니, 건축가 상텔리아, 음악가 루솔로 등 여러 예술가들이 미래주의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② 1을 통해 당시 이탈리아의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감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미래주의의 등장 배경임을 알 수 있다. ③ 2와 3을 통해 미래주의 화가들이 사용한 분할주의 기법에 대해 알 수 있다. ⑤ 4를 통해 미래주의 회화가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2 세부 정보 추론

미래주의 회화는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회화인 만큼 그 표현은 2차원의 평면(화면)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키네틱 아트는 미래주의와 마찬가지로 대상의 운동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입체적 조형물)을 보여 주는 것으로, 미래주의 회화가 주목한 역동성을, 대상의 움직임을 그리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대상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최다 선택 오답〉** 키네틱 아트가 움직이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최초로 작품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사진의 촬영 기법을 회화에 접목시킨 것은 키네틱 아트와 관련이 없다. 3에 따르면, 분할주의 기법이 사진 촬영 기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 역시 사진 촬영 기법을 접목시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4에 따르면, 비례와 조화는 전통적인 서양 회화가 추구하던 아름다움이다. ④ 키네틱 아트가 인류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을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키네틱 아트는 대상을 '화폭'에 담아낸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⑤ 키네틱 아트가 예술적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 대상에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①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①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움직이는 대상'이라는 말에만 꽂혀 뒷부분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은 '사진의 촬영 기법', ④는 '산업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⑤는 '구체적 대상에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를 통해 틀린 내용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①은 '전통 회화 양식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주의가 키네틱 아트에 준 영감에 해당한다고 오판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선택지를 읽을 때는 항상 끝까지 읽어야 한다. '최초로 작품화'만 제대로 봤어도 이것이 답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다. 선택지를 읽을 때는 항상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3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3에서 '역선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면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배경과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호 침투가 발생해 대상이 사실적인 형태보다는 왜곡된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보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쇠사슬의 움직임을 쇠사슬의 잔상을 겹치는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형태를 왜곡하고 있으므로, 역선을 통해 사실적인 형태를 강조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보기〉의 강아지의 발과 꼬리, 사람의 다리 등을 여러 개로 중첩하여 그림(분할주의 기법)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강아지와 사람)의 역동성과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주의 회화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상호 침투는 대상 간, 또는 대상과 배경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으로, 〈보기〉의 강아지의 발과 바닥의 경계가 모호하게 보이는 것에서 대상과 배경의 상호 침투 효과를 엿볼 수 있다.

4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의 뜻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을 의미하는 말은 '주장'이다.

5 세부 정보 이해

4를 통해 Ⓑ(미래주의 회화)가 Ⓒ(키네틱 아트)의 등장에 영향을 준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서양 회화)가 Ⓑ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는 대상의 고정적인 모습에 주목하여 비례, 통일, 조화 등을 아름다움의 요소로 보았다. ③, ④ 대상의 고정적인 모습에 주목한 Ⓐ와 달리, Ⓑ는 대상의 역동적인 모습에 주목하여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⑤ Ⓒ는 모빌과 같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 주었다.

6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의 '감'은 '느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우월감'의 '감'도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⑤ '신랑감'과 '장군감'의 '감'은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② '놀림감'의 '감'은 '대상이 되는 도구, 사물, 사람,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③ '한복감'의 '감'은 '옷을 만드는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03강 어휘 테스트

• 본문 068~069쪽

01 ②	02 ①	03 ②
04 갈랐다	05 들어가	06 반복된다
07 덧붙이기도	08 늘린다는	09 넉넉하게
10 배치하는	11 달리는	12 겹쳐서
13 나타내는	14 형식	15 주기
16 비례	17 붙였다	18 애매하다거나
19 관심	20 교훈적	21 해석
22 독창	23 속도	24 광란
25 ㉡	26 ㉢	27 ①
28 ④	29 ③	30 ②

04 '분류하다'는 '종류에 따라서 가르다.'의 뜻으로,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를 의미하는 '가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갈음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05 '포함되다'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 가운데 함께 들어가거나 함께 넣어지다.'의 뜻으로, '일정한 범위나 기준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를 의미하는 '들어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뒤섞이다: 생각이나 말 따위가 마구 섞이다.

06 '되풀이되다'는 '같은 말이나 일이 자꾸 반복되다. 또는 같은 사태가 자꾸 일어나다.'의 뜻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다.'를 의미하는 '반복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번복되다: 이리저리 뒤쳐져 고쳐지다.

07 '첨가하다'는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태다.'의 뜻으로, '붙은 위에 겹쳐 붙이다.'를 의미하는 '덧붙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덧대다: 대어 놓은 것 위에 겹쳐 대다.

08 '연장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의 뜻으로, '시간이나 기간을 길게 하다.'를 의미하는 '늘리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줄이다: 시간이나 기간을 짧아지게 하다.

09 '풍성하다'는 '넉넉하고 많다.'의 뜻으로, '크기나 수량 따위가 기준에 차고도 남음이 있다.'를 의미하는 '넉넉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만족하다: 흡족하게 여기다.

10 '안배하다'는 '알맞게 잘 배치하거나 처리하다.'의 뜻으로,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두다.'를 의미하는 '배치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배차하다: 일정한 선로 또는 구간에 자동차나 기차 따위를 나누어 두거나 나누어 보내다.

11 '질주하다'는 '빨리 달리다.'의 뜻으로, '차, 배 따위가 빨리 움직이다.'를 의미하는 '달리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달아나다: 빨리 내닫다.

12 '중첩'은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짐.'의 뜻으로, '중첩시키다'는 '여러 사물이나 내용 따위가 서로 덧놓이거나 포개어지다.'를 의미하는 '겹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섞다: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데 합치다.

13 '구현하다'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다.'의 뜻으로,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글, 그림, 음악 따위로 드러내다.'를 의미하는 '나타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실현하다: 꿈,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루다.

14 형식: 일을 할 때의 일정한 절차나 양식 또는 한 무리의 사물을 특징짓는 데에 공통적으로 갖춘 모양

15 주기: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의 기간

16 비례: 표현된 물상의 각 부분 상호 간 또는 전체와 부분 간이 양적으로 일정한 관계가 됨. 또는 그런 관계

17 붙이다: 이름이 생기게 하다.

오답 해설 부치다: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

18 애매하다: 희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하다.

오답 해설 어리석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19 관심: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

오답 해설 관계: 어떤 방면이나 영역에 관련을 맺고 있음. 또는 그 방면이나 영역

20 교훈적: 교훈이 되거나 교훈으로 삼을 만한 것

오답 해설 구체적: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

21 해석: 문장이나 사물 따위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함. 또는 그 내용

오답 해설 해독: 어려운 문구 따위를 읽어 이해하거나 해석함.

22 독창: 성악에서, 혼자서 노래를 부름. 또는 그 노래

오답 해설 합창: 여러 사람이 여러 성부로 나뉘어 서로 화성을 이루면서 다른 선율로 노래를 부름. 또는 그 노래

23 속도: 물체가 나아가거나 일이 진행되는 빠르기

오답 해설 속력: 속도의 크기. 또는 속도를 이루는 힘

24 광란: 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뜀.

오답 해설 광기: 미친 듯한 기미

28 〈보기〉의 '어느'는 '관련되는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음을 이를 때 쓰는 말'로, ④의 '어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②, ③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똑똑히 모르거나 꼭 집어 말할 필요가 없는 막연한 사람이나 사물을 이를 때 쓰는 말 ⑤ 정도나 수량을 묻거나 또는 어떤 정도나 얼마만큼의 수량을 막연하게 이를 때 쓰는 말

29 〈보기〉의 '모습'은 '자연이나 사물 따위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의 뜻이다. ③의 '모습'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사람의 생긴 모양

30 〈보기〉의 '등장하다'는 '어떤 사건이나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현상, 인물 등이 세상에 처음 나오다.'의 뜻이다. 반면 ②의 '등장하다'는 '연극, 영화, 소설 따위에 어떤 인물이 나타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Ⅱ 사회 / 문화

04 ① 공공 선택 이론

• 본문 072~076쪽

1 ② 2 ② 3 ④ 4 ⑤ 5 ③ 6 ④
7 ① 8 ②

독해 PoinT 1 × 2 대안 3 의사 결정, 외부 4 ○ 5 중도

지문 한눈에 보기

1: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한 이유		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름. →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①)에 이르게 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함.
2: 의사 결정 방법 ① – 단순 과반수제	개념	투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안건이 채택되는 다수결 제도
	특징	•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많이 사용됨. • 각 투표자는 찬반 여부를 표시할 뿐 투표 결과에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음. – 안건 채택 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음. →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 발생 •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짐. – 투표의 (②) 현상
3: 의사 결정 방법 ② – 최적 다수결제	개념	투표에 따르는 총비용이 (③)되는 지점을 산정한 후,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 – 총비용=의사 결정 비용+외부 비용 → U자 형태 곡선 – 의사 결정 비용: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함. → 우상향 곡선 – 외부 비용: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낮아짐. 모든 사람이 찬성하면 0이 됨. → 우하향 곡선
	특징	• 의사 결정 과정을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음. • 최적 다수결의 기준을 정하는 데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하게 됨.
4: 의사 결정 방법 ③ – 점수 투표제	개념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하여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 – 합산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이 선택됨.
	특징	•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 잘 반영됨. • 소수의 의견도 투표 결과에 잘 반영됨. •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음. • (④) 행동에 취약하여 투표 결과가 불규칙하게 바뀔 수 있음.
5: 의사 결정 방법 ④ – 보르다 투표제	개념	n개의 대안이 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n, (n–1), …, 1점을 주고,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선택하는 투표 방식 – 오로지 (⑤)에 의해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함.
	특징	•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음.

정답 ① 합의 ② 역설 ③ 최소화 ④ 전략적 ⑤ 순서

1 세부 정보 이해

5에 따르면,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n점, (n−1)점, (n−2)점, …'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최하 1점을 준다. 따라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대안에 0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투표자의 전략적 행위는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맞춰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태도이다. 4에 따르면, 전략적 행위는 어떤 투표제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 ③ 2에 따르면, 단순 과반수제에서 어느 대안이 채택되면 이로 인해 채택되지 않은 안건을 지지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④ 4에 따르면, 점수 투표제는 선호 강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므로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 잘 반영되는데, 이는 투표 결과에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는 죄적 다수결제와의 차이점이다. ⑤ 2에 따르면, 단순 과반수제에서는 어떤 대안이든 과반수를 얻는 안이 통과된다. 그런데 3에 따르면, 죄적 다수결제에서는 투표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이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죄적 다수 지점이 된다. 그러므로 죄적 다수결제에서는 안건에 따라 안건 통과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2 자료 이해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한다면, 갑과 을은 학교, 병은 경찰서에 투표할 것이므로, 다수결에 따라 학교가 두 표를 얻어 먼저 채택된다. 이후에는 학교와 병원이 최종 투표에 부쳐지는데, 갑과 병은 병원, 을은 학교에 투표할 것이므로, 최종적인 대안으로는 두 표를 얻은 병원이 결정된다.

오답 해설 ① **〈최다 선택 오답〉**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한다면, 갑과 병은 병원, 을은 학교에 투표할 것이므로, 병원이 먼저 채택된다. 그 이후에 최종 결정을 위해 투표한다면, 먼저 채택된 병원과 남은 경찰서의 다수결 승자가 최종적인 대안으로 결정된다. 이때 갑은 병원, 을과 병은 경찰서에 투표할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경찰서가 결정된다. ③ 투표의 역설은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할 경우에는 경찰서로,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결정되므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난다. ④ 동시에 병원, 학교, 경찰서를 투표에 부치면 갑, 을, 병 세 사람이 세 가지 대안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게 되어 어떤 대안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⑤ 갑, 을, 병의 선호 순위는 바뀌지 않더라도 어떤 대안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 최종 투표 결과가 바뀌는 투표의 역설이 나타난다.

! ①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①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했을 때의 결과가 병원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갑과 을은 각각 1순위에 병원과 학교가 있었던 반면, 병은 1순위에 병원이나 학교가 아닌 경찰서가 있으므로, 2순위인 병원의 선호도가 3순위인 학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투표의 역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만 하면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세부 정보 추론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다수에 의해 중도의 대안으로 부여된 점수들의 합산 점수가,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들의 합산 점수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오로지 순서에 의해서만 대안에 대해 선호 강도를 표시하기 때문에, 주어진 점수를 투표자가 임의대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투표자는 중도의 대안에 관해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대안에 관해서도 점수를 배분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③ 점수 투표제에서도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최다 선택 오답〉** 모든 투표자에게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안은 모두에게서 n점을 받을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

! ⑤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⑤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과 '모든 투표자에게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안'이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글에 제시된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은 투표자들 중 일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합산 점수가 낮을 수 있지만, '모든 투표자에게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안'은 투표자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합산 점수도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선택지의 단어 하나하나, 글의 단어 하나하나 모두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4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A]에 따르면 ㉮는 외부 비용, ㉯는 의사 결정 비용, ㉰는 총비용이다. ㉮와 ㉯의 교차점인 n은 최적 다수 지점으로, 총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다. 그런데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의사 결정 비용은 증가하고 외부 비용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가 많아지게 되면 ㉮와 ㉯ 모두 이동한다.

오답 해설 ① 외부 비용은 안건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하므로,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고 했다. 따라서 반대표의 비율이 높아지면, 즉 찬성표의 비율이 낮아지면 외부 비용인 ㉮의 값이 커진다. ② 의사 결정 비용은 투표 참가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이므로, 투표 참가자들을 설득하는 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적을수록 그 값은 작아진다. ③ n은 ㉮와 ㉯를 합한 값이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이는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④ 외부 비용은 투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면 0이 된다.

5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단순 과반수제)에서는 단순히 과반수가 되면 채택되는데, 선호 강도에 따라 투표하면 Ⅱ는 B, C, E가 지지하고, Ⅲ은 A, D가 지지한다. Ⅰ을 지지하는 지지자는 없다. 따라서 ㉠에서는 Ⅱ가 선택된다. ㉡(점수 투표제)은 각 투표자가 선호에 따라 대안에 대해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므로, 현재의 선호 강도에 따라 부여한 점수를 합산해 보면 Ⅱ가 21점, Ⅲ이 20점, Ⅰ이 9점이 되어 최종적으로 Ⅱ가 채택된다.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선호 순서대로 n점, n−1점, n−2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이 채택된다. 이때 n은 대안의 개수이므로 3이 된다. A의 경우 선호 강도가 가장 높은 Ⅲ에 3점, Ⅰ에 2점, Ⅱ에 1점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E가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면 Ⅰ은 7점, Ⅱ는 11점, Ⅲ은 12점이 되어 최종적으로 Ⅲ이 채택된다.

6 세부 정보 이해

전략적 행위는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맞춰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태도로, 점수 투표제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행동에 의해 투표 결과가 불규칙하게 바뀔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집단 구성원들의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로 통합하기 위함이 아니다. ② 투표의 역설은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단순 과반수제에서 소수의 이익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③ 죄적 다수결제는 증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 후,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이므로, 증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항상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⑤ 보르다 투표제는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순서에 의해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한다. 따라서 투표자 모두에게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선호 강도가 강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 잘 반영되는 것은 점수 투표제이다.

7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단순 과반수제를 활용하면, 햄버거는 세 표(A, B, E), 마라탕은 두 표(C, D)를 얻어 햄버거가 판매 음식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점수 투표제를 활용하면, 햄버거는 21점, 떡볶이는 9점, 마라탕은 20점을 얻어 역시 햄버거가 판매 음식으로 결정된다. 보르다 투표제를 활용하여 A~E가 햄버거, 떡볶이, 마라탕에 대해 매긴 점수를 계산하면, A와 B는 '3 / 1 / 2', C는 '2 / 1 / 3', D는 '1 / 2 / 3', E는 '3 / 2 / 1'이 되고, 이에 따라 햄버거는 12점, 떡볶이는 7점, 마라탕은 11점을 얻어 이 역시 햄버거가 판매 음식으로 결정된다.

오답 해설 ② 단순 과반수제에서 먼저 햄버거와 마라탕을 비교할 경우, 햄버거는 세 표, 마라탕은 두 표를 얻어 햄버거가 선정된다. 그럼 다시 햄버거와 남은 떡볶이의 다수결로 승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햄버거와 떡볶이로 투표할 때 A, B, C, E는 햄버거, D는 떡볶이에 투표할 것이므로, 햄버거가 판매 음식으로 결정된다. ③ 점수 투표제에서는 투표자의 선호 강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고,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n개의 대안의 순서에 의해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하므로, 두 투표제의 점수 결과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④ 점수 투표제를 활용할 때 D가 떡볶이와 마라탕의 선호 강도를 바꾸는 것은 전략적 행위에 해당한다. D의 선호 강도가 바뀌면 떡볶이의 점수는 8점, 마라탕의 점수는 21점이 되는데, 이는 햄버거의 점수 21점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판매 음식을 햄버거와 마라탕 중 하나로 다시 선정해야 한다. ⑤ 보르다 투표제에서 n은 대안의 개수를 의미한다. 〈보기〉에 제시된 대안은 햄버거, 떡볶이, 마라탕이므로, n은 3이 된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의·정책·의견 따위에 찬동하여 이를 위하여 힘을 쓰다.'의 뜻으로, ②의 '지지하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는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①의 '이르다'는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의 뜻이다. ③ Ⓒ는 '상대편이 어떻게 하여 주기를 청하다.', ③의 '구하다'는 '필요한 것을 찾다. 또는 그렇게 하여 얻다.'의 뜻이다. ④ Ⓓ는 '권리나 결과·재산 따위를 차지하거나 획득하다.', ④의 '얻다'는 '긍정적인 태도·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의 뜻이다. ⑤ Ⓔ는 '값이나 비율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 ⑤의 '높다'는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고 우세하다.'의 뜻이다.

04 ② 신 민법강의

• 본문 077~081쪽

1 ② 2 ③ 3 ③ 4 ⑤ 5 ④ 6 ① 7 ② 8 ⑤

독해 PoinT 1 ○ 2 주택임대차보호법 3 × 4 임차권등기명령

지문 한눈에 보기

1: 주택 임대차의 개념과 임차권의 특징	• 주택 임대차: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 • 임차권의 특징: 채권 – 계약을 맺은 (①)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음.
2: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세권: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 부동산을 돌려받는 권리 – 임차권과 내용은 같지만, 채권인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은 물권임. –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여 국민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며, 임차권은 제삼자에게도 (②)을 가짐.
3: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한 주택이 경매됐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공공 기관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③)를 받을 수 있음. –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진 날부터 –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4: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주택 임대차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④)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도 임차권등기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함. – 임차권 등기 후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정답 ① 임대인 ② 대항력 ③ 확정일자 ④ 등기부

1 세부 정보 이해

2와 4에 따르면,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즉, 임대차가 체결되었을 때 관할 법원이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2의 '이 법률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③ 1의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 ④ 3의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까지 부여한다.'에서 알 수 있듯 보증금이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경우 전부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⑤ 1의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에서 알 수 있다.

2 핵심 정보 비교 이해

2와 3에 따르면, ㉡(전세권)은 ㉠(임차권)을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은 소유권과 같이 물권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과 같다.

오답 해설 ① 1에 따르면, ㉠은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2에 따르면, ㉡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최다 선택 오답〉** 1과 2에 따르면, ㉠이나 ㉡을 가진 사람은 임대차의 내용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은 채권에 해당하고 ㉡은 물권에 해당한다. 1에 따르면,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④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④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③의 '소유권'과 ④의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유권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에 따라 임차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게 되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글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시간이 없다고, 비슷한 말이 많다고 대충 봐서 넘기지 말고, 글을 분명히 읽도록 하자.

3 세부 정보 이해

3에 따르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진 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대항력을 이미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이 아닌 바로 그날부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 해설 ① 3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② 3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2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을 갖는다고 했으므로, 만약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갖춰지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④ 3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보증금의 기준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또한 4에 따르면, 임차권이 등기된 후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면 그 지역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⑤ 2와 3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면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항력은 요건(주택 인도, 전입 신고)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한 날, 즉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물권이 생긴다면 임차권은 해당 물권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다.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4에 따르면, 임대차등기명령이 내려지면 종료된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물권적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을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을이 이사를 가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되고 물권적 효력이 유지된다.

오답 해설 ① 4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기〉에서 임대차는 2023년 2월 4일에 종료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2023년 2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4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신청 후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즉시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을은 계약 기간 내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임대차등기명령이 내려지면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부여받는 것으로, 기존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④ 1에 따르면, 임차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주택의 소유권은 변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갑은 A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다.

5 세부 정보 추론

3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 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차권등기 이후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최우선변제권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것은 해당 내용을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은 등기부를 확인하면 원래의 임차권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최다 선택 오답〉**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더라도 권리 간의 순위를 따지는 것일 뿐 원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⑤ 새로 입주한 소액임차인도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③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③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최우선변제권이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우선변제권이,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은 맞다. 하지만 글의 어디에도 다른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면 원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것을 추측할 만한 근거는 없다. 독서 지문에서 세부 정보나 이유를 추론할 때는 어디까지나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기억한다.

6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2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보기〉에서 A는 2021년 3월 1일에 B의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전입 신고를 했기 때문에, A가 대항력을 갖게 되는 시점은 B와 임대차를 체결한 날이 아닌 B의 주택으로 이사하며 전입 신고를 한 다음 날이다.

오답 해설 ② 3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A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증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 ③ 1에 따르면,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제삼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A는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자신과 계약한 B가 아닌 주택의 새로운 소유주인 C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C가 A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이므로, 임대차 만료 후에 A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면 A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⑤ A는 B의 동의하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주택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주택 임대차가 만료된 후 A는 새로운 주택의 소유주인 C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7 세부 정보 이해

3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과 최우선변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한 지역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오답 해설 ① 2의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여 국민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로 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③ 3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④ 3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이 부여되어 임차인의 지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은 전입 신고뿐 아니라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다.

8 어휘의 사전적·문맥적 의미 이해

ⓐ는 〈보기〉의 「1」의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⑤의 '갖추다'는 「3」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④ 「1」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04 ③ 미시경제학

• 본문 082~085쪽

1 ② 2 ① 3 ② 4 ⑤ 5 ④ 6 ④

독해 PoinT 1 플랫폼 2 간접 3 ○ 4 낮은, 증가 5 ×
6 ① 공짜 미끼 ② 프리미엄

지문 한눈에 보기

1: 플랫폼의 개념과 예
- 플랫폼: 양쪽 이용자 집단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①)
- 예 신용 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
  - 플랫폼 사업자: 신용 카드 회사
  - 양쪽 이용자 집단: 카드 회원들, 가맹점들

2: 네트워크 외부성의 개념과 종류
- 네트워크 외부성의 개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규모가 이용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 네트워크 외부성의 종류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	동일 집단에 속한 이용자의 규모가 커지면 집단 내 개별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함. → 동일 집단 내에서 발생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증가하고,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감소함. →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발생 – (②)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함.

3: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구조 결정
- (③): 플랫폼 이용료를 각각의 이용자 집단에 부과하는 방식

→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쪽 이용자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함.

4: 가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 예 카드 회원들이 가맹점에 미치는 (④) 네트워크 외부성이 큼. →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낮은 연회비를 부과함. →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면 가맹점들의 효용이 증가함. → 가맹점은 높은 결제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함.

5: 가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 –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⑤)이 얼마나 변동하느냐를 의미함.
- 예 카드 회원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 연회비가 오르면 카드 회원 수가 크게 감소함.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 변동이 크지 않음.

→ 플랫폼 사용자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에 낮은 이용료를 부과하여 해당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리려고 함.

6: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략

공짜 미끼 전략	무료 서비스를 통해 한쪽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리면서 반대쪽 집단 이용자의 플랫폼 참여를 유도함.
프리미엄 (freemium) 전략	기본적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기능은 (⑥)로 제공함. →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의 긍정적 경험이 무료 이용자에게 전파되어, 그 중 일부가 유료 이용자로 전환되도록 함.

정답 ① 환경 ② 양면시장 ③ 가격구조 ④ 간접 ⑤ 수요량 ⑥ 유료

1 세부 정보 이해

1에서 '플랫폼 사업자인 신용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양쪽 이용자 집단인 카드 회원들과 가맹점들 모두가 고객이 된다.'라고 하였다. 즉, 신용 카드 회사는 가맹점의 고객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1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신용 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들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3에서 가격구조는 '양쪽 이용자 집단 모두를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한쪽 이용자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였다. ④ 〈최다 선택 오답〉 1에서 '플랫폼이란 양쪽 이용자 집단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을 일컫는다.'라 하였으며, 플랫폼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거래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한다고 하였다. ⑤ 6의 프리미엄 전략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의 긍정적 경험이 무료 이용자에게 전파되어 그 중 일부가 유료 이용자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 ④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④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글에서 주로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대해 설명한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하지만 글에서 예로 든 카드 결제 시스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드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는, 카드 회원들을 통해 경제적 가치, 즉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의 내용을 잘 정리하며 세밀히 읽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명심, 또 명심하자.

2 정보 추론

3에서, 가격구조는 '플랫폼 이용료를 각각의 이용자 집단에 어떻게 부과하느냐를 의미한다.'라고 하였으며,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양쪽 이용자 집단 모두를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격구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가격구조는 플랫폼 이용료를 이용자 집단에게 어떻게 부과하느냐의 문제로, 이용료 지불 수단과는 관련이 없다. ③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쪽 이용자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한다. ④ 가격구조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해, 한쪽 이용자가 늘어나면 다른 한쪽 이용자의 효용이 커져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양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플랫폼 사업자는 한쪽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이용료를 아주 낮게 책정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적으로 가격을 부과하므로, 규모가 큰 이용자 집단에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3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보기〉의 P사는 플랫폼 사업자로,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였다. 또한, 1에서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상대 집단과 거래하게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플랫폼 사업자인 P사가 이용자에게 이모티콘을 직접 판매하고자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P사는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했다고 하였으며, 6에서 '공짜 미끼 전략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한쪽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리면서 반대쪽 집단 이용자의 플랫폼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보기〉에서 P사는 광고주들에게 광고 비용을, 이모티콘 공급 업체에게 판매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하였으며, 3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였다. ④ 〈보기〉에서 P사는 '모든 광고주들에게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했다고 하였으며, 4에서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면 가맹점들의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높은 결제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⑤ 〈보기〉에서 P사의 메신저 프로그램은 '메신저 이용자들끼리 서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2에서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동일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동일 집단에 속한 이용자의 규모가 커지면 집단 내 개별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4 정보 추론

5에서 '카드 회원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오를 때 카드 회원 수가 크게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2에서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4에서 '카드 회원들이 가맹점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수록,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낮은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P사가 무료이던 메신저 이용료를 유료로 전환하면, ㉠(메신저 이용자들)의 수는 감소(A)하고, ㉡(광고주들)의 효용 또한 크게 감소(B)할 것이다. 또한 ㉣(이모티콘 공급 업체들)이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사용자)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면, P사가 ㉣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는 하락(C)할 것이다.

! ③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③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관계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즉, 한쪽이 줄어들면 반대쪽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에 따라 메신저 이용자들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 또 다른 이용자인 광고주들의 효용 또한 줄어들게 되므로, B에는 '증가'가 아닌 '감소'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이모티콘 공급 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고 했으므로, 이용자들의 수가 늘어나려면 이모티콘 공급 업체들도 늘어나야 한다. 공급 업체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P사가 판매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상들 간의 관계를 잘 따지며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5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4에서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면 가맹점들의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높은 결제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A사가 판매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쇼핑 사이트의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판매자들이 얻는 수익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A사가 유료 회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은 공짜 미끼 전략이 아니라 프리미엄 전략(기본적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기능은 유료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② A사가 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는 판매자들이 아닌 A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이용료이다. ③ 5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에 연회비가 오를 때 카드 회원의 수가 크게 감소한다. 〈보기〉에서 유료 회원에게 주는 혜택이 크니까 유료 회원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그 혜택을 줄인다면 유료 회원의 수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회원들은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에 해당한다. ⑤ 〈보기〉는 쇼핑 사이트의 회원이 늘어나자 판매자들이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A사의 쇼핑 사이트에 입점하기 위해 몰려드는 상황이다. 이는 회원들이 판매자들에게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6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의 뜻이지만, ④의 '부과'는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냄. ② ⓑ: 사물과 사물을 서로 잇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를 맺게 함. ③ ⓒ: 계획이나 방책을 세워 결정함. ⑤ ⓔ: 가장 알맞음.

04강 어휘 테스트

• 본문 086~087쪽

01 ①	02 ②	03 ②
04 다른	05 뽑아	06 셈해야
07 내주고	08 기록하여	09 없어진다
10 가질	11 만든다	12 달라지느냐를
13 꾀어내는	14 대안	15 차선
16 공시	17 침해	18 배분한다
19 만료되면	20 상실될	21 절감하여
22 구분된다	23 유도할	24 전파되기도
25 ㉡	26 ㉢	27 ㉠
28 ②	29 ②	30 ⑤

04 '상이하다'는 '서로 다르다.'의 뜻으로,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다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다채롭다: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따위가 한데 어울리어 호화스럽다.

05 '선정하다'는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하다.'의 뜻으로, '여럿 가운데서 골라내다.'를 의미하는 '뽑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올리다: 어떤 정도에 달하게 하다.

06 '산정하다'는 '셈하여 정하다.'의 뜻으로, '주고받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서로 따져 밝히다.'를 의미하는 '셈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더하다: 늘리거나 많게 하다.

07 '지급하다'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다.'의 뜻으로, '넣어 두었던 물건 따위를 꺼내어 주다.'를 의미하는 '내주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쳐주다: 셈을 맞추어 주다.

08 '기재하다'는 '문서 따위에 기록하여 올리다.'의 뜻으로,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다.'를 의미하는 '기록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기억하다: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내다.

09 '소멸하다'는 '사라져 없어지다.'의 뜻으로, '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나타나지 않게 되다.'를 의미하는 '없어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버려지다: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이 내던져지거나 쓸아지다.

10 '확보하다'는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다.'의 뜻으로, '자기 것으로 하다.'를 의미하는 '가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빌리다: 남의 물건이나 돈 따위를 나중에 도로 돌려주거나 대가를 갚기로 하고 얼마 동안 쓰다.

11 '창출하다'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내다.'의 뜻으로,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를 의미하는 '만들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끌어오다: 남의 관심 따위를 쏠리게 해 오다.

12 '변동하다'는 '바뀌어 달라지다.'의 뜻으로, '변하여 전과는 다르게 되다.'를 의미하는 '달라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틀리다: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13 '유인하다'는 '주의나 흥미를 일으켜 꾀어내다.'의 뜻으로, '꾀를 쓰거나 유혹하여 있던 곳에서 어느 곳으로 나오게 하다.'를 의미하는 '꾀어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승인하다: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이다.

14 대안: 어떤 일에 대처할 방안

15 차선: 최선의 다음

16 공시: 공공 기관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따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17 침해: 침범하여 해를 끼침.

오답 해설 침략: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감.

18 배분하다: 몫몫이 별러 나누다.

오답 해설 배열하다: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다.

19 만료되다: 기한이 다 차서 끝나다.

오답 해설 만회되다: 바로잡혀 회복되다.

20 상실되다: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다.

오답 해설 분실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 따위가 없어지다.

21 절감하다: 아끼어 줄이다.

오답 해설 절제하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다.

22 구분되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가 몇 개로 갈리어 나뉘다.

오답 해설 구성되다: 몇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

23 유도하다: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다.

오답 해설 유혹하다: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다.

24 전파되다: 전하여져 널리 퍼뜨려지다.

오답 해설 전가되다: 잘못이나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워지다.

28 ②에는 '자세하고 꼼꼼하다.'의 뜻을 지닌 '치밀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긴밀하다: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다.

29 〈보기〉의 '살다'는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의 뜻으로, ②의 '살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생명을 지니고 있다. ③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 ④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⑤ 어떤 생활을 영위하다.

30 〈보기〉의 '반환'은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줌.'의 뜻이다. 반면, ⑤의 '반환'은 '왔던 길을 되돌아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05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 영역 • 본문 088~092쪽

1 ② 2 ③ 3 ⑤ 4 ⑤ 5 ④ 6 ⑤
7 ③ 8 ⑤

독해 PoinT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 3 ○ 4 고유 식별, 민감 5 익명 6 가명

지문 한눈에 보기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삭제, 정정 등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주어진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②)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전 동의 제도	•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할 때 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함. • 동의를 (③)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역시 알려야 함.

4: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	• 고유 식별 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 예 여권 번호 • 민감 정보: 주체의 (④)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 건강 정보, 정치적 견해 →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밑줄이나 큰 글씨로 강조해야 함.	
5: 익명 정보	개념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목적	개인이 수집·이용에 동의했더라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
	특징	• 원래의 개인정보로 (⑤)되는 것이 불가능함. •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려움.
6: 가명 정보	개념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혹은 대체한 것 – (⑥)와 비교적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
	활용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될 수 있음.
	유의점	개인정보와 일대일 대응이 가능함. → 가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됨.

정답 ① 스스로 ② 결합 ③ 거부 ④ 사생활 ⑤ 복원 ⑥ 추가 정보

1 세부 정보 이해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의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서 알 수 있다. ③ 2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④ 6의 '최근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가 아닌 가명 정보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에서 알 수 있다. ⑤ 1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2 세부 정보 이해

5에 따르면, 익명 정보는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익명 정보)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6에 따르면, ㉡(가명 정보)은 추가 정보와 비교적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오답 해설 ① 6에 따르면, ㉡은 가명 처리되기 전의 개인정보와 일대일로 대응하지만, ㉠은 그렇지 않다. ② 6에 따르면, ㉡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될 수 있다. ④ 5에 따르면, ㉠은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반면 6에 따르면, ㉡은 ㉠에 비해 보다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⑤ 6에 따르면, ㉡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또한 5에 따르면, ㉠은 더 이상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세부 정보 추론

〈보기〉에서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소극적 성격의 권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삭제, 정정 등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데, 〈보기〉에 따르면 이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삭제, 정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점은, 헌법 제17조만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공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소극적 성격의 권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청구권적 성격을 포괄하기 어렵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권리가 아니다.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 권리가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을 우선하여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2에 따르면, 사망자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⑤의 '이부자 장학 재단'이라는 명칭은 단체의 이름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망자인 '이부자'의 이름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김○우'라는 이름은 담임을 맡은 학급과 함께 제공될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된다. 따라서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② 개인의 휴대 전화 번호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③ 의사자, 즉 사망자의 유족은 살아 있는 사람이며, 유족의 얼굴을 촬영한 동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④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얼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5 자료 이해

4에 따르면, 건강 정보는 고유 식별 정보가 아닌 민감 정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 항목을 강조해서 표시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3에 따르면, '회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자, '회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므로 개인정보의 주체에 해당한다. ② 3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3에 따르면, 사전 동의 제도를 통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회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⑤ 4에 따르면, 건강 정보는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집할 때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세부 정보 이해

5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이 수집·이용에 동의했더라

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에서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로 처리하여 보존하거나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3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② 3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에게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4에 따르면, 고유 식별 정보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는 맞지만,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고유 식별 정보가 아닌 민감 정보이다. ④ 6에 따르면,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혹은 대체한 것이 맞다. 하지만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가명 정보가 아닌 익명 정보이다.

7 세부 정보 이해

6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혹은 대체한 것은 가명 정보이다. 그런데 5로 볼 때,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는 것은 가명 정보가 아닌 익명 정보이다.

오답 해설 ① 6에서, 최근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짐과 함께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가 아닌 가명 정보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즉, 이는 익명 정보에 비해 가명 정보의 개인정보 활용 유연성이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2와 6에 따르면, 추가 정보와 비교적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가명 정보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④ 6에 따르면, 가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⑤ 4에 따르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는 고유 식별 정보이고,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민감 정보이다.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는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함.'의 뜻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림.'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예보(豫報)'이다.

05 ② 민법정론 • 본문 093~096쪽

1 ② 2 ② 3 ③ 4 ④ 5 ③ 6 ④

독해 PoinT 1 의사능력 2 ① 제한능력자 본인 ②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3 ○ 4 × 5 거절권 6 취소권 7 보호

지문 한눈에 보기

1: 의사능력의 개념과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능력: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 지능 → 의사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임. – 법률행위의 (①)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음.
2: 의사무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 → 제한능력자제도: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필요 없이 10년 내에 (②)을 행사할 수 있음.
3: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제도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제한능력자를 보호함으로써 (③)을 당할 수 있는 상대방을 위한 제도
4: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④)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 측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상대방의 철회권**: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상대방의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능력자가 (⑤)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제한능력자 측에서 해당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만 권리가 인정됨.
6: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나,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⑥)하는 것
7: 제한능력자 제도와 관련된 민법상 규정의 취지	**제한능력자제도**: 제한능력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함.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의 (⑦)로 인해 계약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함.

정답 ① 효력 ② 취소권 ③ 불이익 ④ 1개월 ⑤ 단독행위 ⑥ 박탈 ⑦ 법률행위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2의 앞부분에서 제한능력자제도가 필요한 이유(필요성)를 제시한 후, 제한능력자의 종류, 제한능력자제도의 내용과 그 행사 방식 등 제한능력자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제한능력자제도의 발전 과정이나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7에서 제한능력자제도와 관련된 민법 규정의 취지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제한능력자제도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나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찾을 수 없다. ④ 제한능력자제도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이나 절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제한능력자제도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서술은 찾을 수 없다.

2 세부 정보 이해

2에 따르면, 제한능력자는 '의사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정되며, '단독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한능력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2에서 제한능력자는 '나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규정된다고 했는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나이 기준에 의거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제한능력자로 규정된다. ③ 3의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2에서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했다. ⑤ 2에 따르면, 제한능력자는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제한능력자로 규정한 자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3 세부 정보 이해

4에 따르면, ⓐ(상대방의 확답촉구권)는 '제한능력자에게는 할 수 없으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반면 5에 따르면, ⓒ(상대방의 거절권)는 '제한능력자 측'에 직접 행사할 수 있는데, 2에서 '제한능력자 측'이란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는 제한능력자에게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최다 선택 오답〉 5에 따르면, ⓑ(상대방의 철회권)는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 측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2에서 '제한능력자 측'이란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는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 ② 5에 따르면 ⓒ는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 측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다. ④ 5에 따르면, ⓑ와 ⓒ는 모두 '제한능력자 측에서 해당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만 권리가 인정된다.' ⑤ 3에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를 제시하고 있다.

! ①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①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5에 제시된 '제한능력자 측'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한 능력자 측'에는 제한능력자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모두 포함되는데, 제한능력자 또는 법정 대리인만 해당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는 5에 제시되어 있지만, '제한능력자 측'에 대한 내용은 2에 나온다. 즉, ⓑ가 있는 5만 살필 것이 아니라 글의 다른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6에 따르면,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했다면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박탈된다. A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것은 상대방에게 속임수를 쓴 것이므로, A는 물론 그 법정대리인의 취소권도 배제되어 A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2에 따르면,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A가 성년이 된 다음 날은 악기 구입 후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이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② 2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여부는 '제한능력자 측, 즉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제한능력자 본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A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2에 따르면,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A의 법정대리인이 A의 악기 구매 사실을 안 것은 악기 구입 후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⑤ 판매자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확답촉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A가 속임수를 썼다고 볼 수도 없으며, 법률행위를 한 후 10년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므로, 제한능력자 측인 A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세부 정보 이해

6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는 제한능력자의 속임수가 작용한 계약에 대해 그의 취소권을 박탈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오답 해설 ① 5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이다. ② 3에 따르면,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제한능력자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다. ④ 5에 따르면, 상대방의 철회권은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상대방의 거절권은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4에 따르면, 상대방의 확답촉구권은 제한능력자에게는 직접 행사할 수 없다.

6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과 ①, ②, ③, ⑤는 「1」의 뜻인 반면, ④는 「2」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05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 • 본문 097~100쪽

1 ⑤ 2 ② 3 ④ 4 ⑤ 5 ⑤ 6 ⑤ 7 ②

독해 PoinT 1 탄력적, 비탄력적 2 대체재, 필요성, 지출 3 × 4 ○

지문 한눈에 보기

1: 수요의 가격탄력성

(①)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탄력적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함.
비탄력적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음.

2: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체재의 존재 여부	• 대체재가 있는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 – 탄력적 • 대체재가 없는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 – 비탄력적
필요성의 정도	• 필수재 수요의 가격탄력성 – 대체로 비탄력적 •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 – 대체로 탄력적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짐.

3: 수요의 가격탄력성 산출 방법

• 수요의 가격탄력성 $=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 -\frac{\text{수요량의 변화분/기존 수요량}}{\text{가격 변화분/기존 가격}}$

• 수요의 가격탄력성 > 1 → 탄력적
• 수요의 가격탄력성 < 1 → 비탄력적
• 수요의 가격탄력성 = 1 → (③)탄력적

4: 수요의 가격탄력성 파악의 중요성

(④)–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상품의 가격×거래량
→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판매자의 판매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정답 ① 수요 ② 사치재 ③ 단위 ④ 종수입

1 세부 정보 이해

2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체재의 존재 여부, 필요성의 정도,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하고 있지만, 세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1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에서 알 수 있다. ② 3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③ 4의 '총수입은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며 동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인데, 이는 상품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수치로 산출할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2의 '어떤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 대신에 대체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다.'에서 알 수 있다.

2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2에서 '필수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로 비탄력적인 반면에, 사치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로 탄력적'이라고 하였다. 〈보기〉에 따르면, 갑국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갑국에서는 쌀이 필수재로 인식된다. 따라서 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또한 을국은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 수단이므로 을국에서는 오토바이를 필수재, 이보다 비싼 자동차를 사치재(㉯)로 인식한다. 따라서 을국에서 자동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다.

3 세부 정보 추론

4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도 증가하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가격 상승에 따른 총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총수입의 증가를 지향하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알아야 총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오답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와 그에 따른 총수입의 증감이다. 소비자의 소득 규모(①), 판매 상품의 문제점(②), 판매 상품의 생산 단가(③), 판매자의 판매 수입과 소비자의 지출액 차이(⑤) 등은 파악할 수 없다.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A]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량 변화분/기존 수요량'이고, 가격의 변화율은 '가격 변화분/기존 가격'이다. 김밥의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은 20/100=1/5, 즉 20%이고, 가격의 변화율은 500/2,000=1/4, 즉 25%이다. 따라서 김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25=4/5이고, 4/5는 1보다 작으므로 김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영화 관람권의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은 1,000/2,500=2/5, 즉 40%이고, 가격의 변화율은 2,000/10,000=1/5, 즉 20%이다. 따라서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40/20=2이고, 2는 1보다 크므로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오답 해설 ① 김밥 가격의 변화율은 500/2,000=1/4, 즉 25%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20/100=1/5, 즉 20%이다. 따라서 김밥은 가격의 변화율(25%)이 수요량의 변화율(20%)보다 크다. ② 영화 관람권 가격의 변화율은 2,000/10,000=1/5, 즉 20%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1,000/2,500=2/5, 즉 40%이다. 따라서 영화 관람권은 가격의 변화율(20%)이 수요량의 변화율(40%)보다 작다. ③ **〈최다 선택 오답〉** 김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4/5로 1보다 작지만,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로 1보다 크다. ④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은 곧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다. 김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4/5이고,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이므로 서로 같지 않다.

! ③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③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김밥과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서 구해야 하므로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표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에 나온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숫자만 넣으면 해결되는 것이므로,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숫자를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5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은 '계산하여 냄.'의 뜻이다. '어떤 일에 필요한 돈이나 물자 따위를 내놓음.'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단어는 '출자(出資)'이다.

6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사탕의 수요량의 변화율은 40/100=2/5, 즉 40%이고, 가격의 변화율은 200/1,000=1/5, 즉 20%이다. 따라서 사탕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40/20=2이다. 한편 쌀의 수요량의 변화율은 10/100=1/10, 즉 10%이고, 가격의 변화율은 15,000/30,000=1/2, 즉 50%이다. 따라서 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0/50=1/5이다. 그러므로 사탕 수요의 가격탄력성(2)이 쌀 수요의 가격탄력성(1/5)보다 크다.

오답 해설 ① 3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했다. 사탕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로, 1보다 크므로 탄력적이다. 또한 1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면 탄력적이라고 했으므로, 사탕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② 4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감소한다고 했다. 사탕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므로, 가격 인상 후 사탕의 총수입(1,200원×60개=72,000원)은 기존(1,000원×100개=100,000원)보다 감소하게 된다. ③ 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5로, 1보다 작으므로 비탄력적이다. 1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했으므로, 쌀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④ 4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도 증가한다고 했다. 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므로, 가격 인상 후 쌀의 총수입(45,000원×90포대=4,050,000원)은 기존(30,000원×100포대=3,000,000원)보다 증가하게 된다.

7 어휘의 의미 관계 이해

Ⓐ와 Ⓑ는 그 뜻이 서로 정반대되는 관계, 즉 반의 관계에 있는 말이다. 그런데 ②의 '자동(自動: 기계나 설비 따위가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장치의 작용에 의하여 스스로 작동함.)'과 '반자동(半自動: 기계 장치에서, 절반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은 반의 관계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공식(公式: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적인 방식) ↔ 비공식(非公式: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사로운 방식) ③ 자유(自由: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 부자유(不自由: 무엇에 얽매여서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음.) ④ 평등(平等: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 불평등(不平等: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함.) ⑤ 합리(合理: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함.) ↔ 불합리(不合理: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지 아니함.)

05강 어휘 테스트

• 본문 102~103쪽

01 ①	02 ②	03 ①
04 분별할	05 특유하게	06 뚜렷이
07 대신한	08 짐작할	09 순서
10 번복할	11 빼앗을	12 들어맞으면
13 강한	14 가공하여	15 위조하여
16 민감하게	17 보장되어야	18 익명
19 제약	20 유효한	21 취소할
22 비중	23 지장	24 인상되었는데
25 수치	26 ㉢	27 ㉡
28 ㉠	29 ①	30 ③

04 '식별하다'는 '분별하여 알아보다.'의 뜻으로,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다.'를 의미하는 '분별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차별하다: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다.

05 '고유하다'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 특유하다.'의 뜻으로, '일정한 사물만이 특별히 갖추고 있다.'를 의미하는 '특유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특이하다: 보통 것이나 보통 상태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다르다.

06 '현저히'는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의 뜻으로, '엉클어지거나 흐리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를 의미하는 '뚜렷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반드시: 틀림없이 꼭

07 '대체하다'는 '다른 것으로 대신하다.'의 뜻으로,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맡다.'를 의미하는 '대신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대납하다: 남을 대신하여 조세 따위를 바치다.

08 '예견하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하다.'의 뜻으로,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어림잡아 헤아리다.'를 의미하는 '짐작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추적하다: 사물의 자취를 더듬어 가다.

09 '절차'는 '일을 치르는 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의 뜻으로, '무슨 일을 행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 차례'를 의미하는 '순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순리: 순한 이치나 도리. 또는 도리나 이치에 순종함.

10 '철회하다'는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하다.'의 뜻으로, '이리저리 뒤쳐 고치다.'를 의미하는 '번복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전복하다: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정권 따위를 뒤집어엎다.

11 '박탈하다'는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를 빼앗다.'의 뜻으로, '합법적으로 남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권리를 잃게 하다.'를 의미하는 '빼앗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옮기다: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하다.

12 '해당하다'는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다.'의 뜻으로, '정확히 맞다.'를 의미하는 '들어맞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들어차다: 많이 들어서 가득 차다.

13 '크다'는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의 뜻으로, '수준이나 정도가 높다.'를 의미하는 '강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과하다: 정도가 지나치다.

14 가공하다: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다.

15 위조하다: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들다.

16 민감하다: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데가 있다.

17 보장되다: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이 마련되어 보증되거나 보호되다.

오답 해설 인정되다: 확실히 그렇다고 여겨지다.

18 익명: 이름을 숨김. 또는 숨긴 이름이나 그 대신 쓰는 이름

오답 해설 실명: 실제의 이름

19 제약: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또는 그 조건

오답 해설 규약: 조직체 안에서, 서로 지키도록 협의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

20 유효하다: 법률적 행위가 당사자나 법률이 의도한 본래의 효과가 있다.

오답 해설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21 취소하다: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리다.

오답 해설 고소하다: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다.

22 비중: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중요도

오답 해설 밀도: 빽빽이 들어선 정도

23 지장: 일하는 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

오답 해설 규제: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24 인상되다: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가 오르다.

오답 해설 향상되다: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지다.

25 수치: 계산하여 얻은 값

오답 해설 수량: 수효와 분량을 아울러 이르는 말

29 〈보기〉의 '유출'은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의 뜻이다. 반면, ①의 '유출'은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0 〈보기〉의 '차지하다'는 '비율, 비중 따위를 이루다.'의 뜻으로, ③의 '차지하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사물이나 공간, 지위 따위를 자기 몫으로 가지다.

06 ① 경제학 들어가기 • 본문 104~108쪽

1 ④ 2 ③ 3 ④ 4 ⑤ 5 ⑤ 6 ②
7 ④ 8 ④

독해 PoinT 1 순편익 2 × 3 ○ 4 줄여야, 늘려야 5 ○ 6 가격 7 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 줌. ②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

지문 한눈에 보기

1: 가계, 기업, 정부의 합리적인 선택 방법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함. → 편익에서 (①)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함.
2: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 순편익	(②)이 가장 커지는 시점: 한계편익−한계비용 – 한계편익: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 – 한계비용: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3: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생산 시 고려하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	• 기업 입장에서의 한계비용: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 • 기업 입장에서의 한계수입: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 → 완전경쟁시장에서의 한계수입=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 – 시장 수요 (③) → 상품 가격 상승 → 한계수입 상승
4: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④)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함. – 한계비용 > 한계수입: 생산량을 줄임. – 한계비용 < 한계수입: 생산량을 늘림.
5: 기업이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평균비용	• 평균비용: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비용 ÷ (⑤) –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 • 총비용: 고정비용+가변비용 → 한계비용: 총비용 중 가변비용에만 영향을 받음. / 평균비용: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모두에 영향을 받음.
6: 기업이 평균비용을 통해 손실 발생을 아는 방법	완전경쟁시장에 있는 기업은 가격이 (⑥)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 발생을 판단함.
7: 기업의 생산 활동의 중요성	기업의 생산 활동 – 소비자의 (⑦)를 충족해 줌. – 고용 증가, 경제 성장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

정답 ① 비용 ② 순편익 ③ 증가 ④ 일치 ⑤ 생산량 ⑥ 평균비용곡선 ⑦ 수요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1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3과 4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5와 6에서는,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생산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평균비용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면서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의 장점은 다루지 않았다. 또한 3~6에서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 ② 합리적인 선택이 지닌 한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7에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③ 1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 주체임을 밝히고 있지만, 경제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각 경제 주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 ⑤ 3을 통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때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을 고려함을, 그리고 5를 통해 손실 발생 상황을 판단할 때 평균비용을 고려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생산량을 결정할 때의 어려움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2 세부 정보 이해

5에 따르면, 한계비용은 가변비용에만 영향을 받고, 평균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생산량과 상관없이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는 고정비용이므로, 임대료는 평균비용에는 영향을 주지만 한계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5의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구분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3에 따르면, 완전경쟁시장의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④ 5의 '평균비용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말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1에 따르면,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세부 정보 추론

3과 4에 따르면, 기업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을 고려하여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며,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한계비용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도달해야 할 생산량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

다. 그리고 5와 6에 따르면, 기업이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이 평균비용으로, 시장 가격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평균비용은 생산을 중단할 만한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오답 해설 ① 5에 따르면, 한계비용이 가변비용에 영향을 받고, 평균비용이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모두에 영향을 받지만,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각각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한지는 알 수 없다. ② 평균비용이나 한계비용과 시장 가격의 관련성은 찾아볼 수 없다. ③ 6에 따르면, 생산을 멈추어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볼 때 평균비용이 유용하다. 하지만 한계비용과 생산에 드는 암묵적 비용의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⑤ 5에 따르면, 평균비용은 생산량 증가로 증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하지만 6에 따르면, 상품 가격 하락으로 판매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볼 때 유용한 것도 평균비용이다.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1에 따르면, 비용은 암묵적 비용(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어떤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합친 것이므로, 제시된 표의 비용에서 명시적 비용을 제외하면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를 알 수 있다.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과자를 1개 살 때는 1,500원(비용 2,500원−1,000원인 과자의 가격), 2개 살 때는 3,500원(비용 5,500원−2×1,000원인 과자의 가격), 3개 살 때는 6,000원(비용 9,000원−3×1,000원인 과자의 가격)이므로, 과자 구입 개수가 늘어날수록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도 함께 늘어난다.

오답 해설 ① 1에 따르면,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다. 과자를 1개 살 때의 순편익은 1,500원(편익 4,000원−비용 2,500원), 3개 살 때의 순편익은 500원(편익 9,500원−비용 9,000원)이므로, 과자를 3개 살 때보다 1개 살 때의 순편익이 더 크다. ② 1에 따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갑이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면 순편익이 2,000원(편익 7,500원−비용 5,500원)으로 제일 큰 2개를 선택해야 한다. 과자를 2개 사면 원래 있던 3,000원에서 2,000원이 차감되므로 음료수 1개 값인 1,000원이 남게 된다. ③ **〈최다 선택 오답〉** 2에 따르면, 한계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다. 갑이 과자 소비량을 0개에서 1개씩 늘릴 때마다 얻는 한계편익은 4,000원(4,000원−0원), 3,500원(7,500원−4,000원), 2,000원(9,500원−7,500원)으로 점점 줄어든다. ④ 갑이 과자 소비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3,500원(9,000원−5,500원), 추가로 얻는 만족감, 즉 편익은 2,000원(9,500원−7,500원)이므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추가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다.

! ③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③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과자 소비량이 늘어날 때의 한계편익을 계산하지 않고 표에 제시된 편익을 한계편익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한계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므로, 제시된 표에서 소비가 1개씩 늘어날 때마다 편익의 차를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에 제시된 개념도 많고, 간단하지만 계산까지 해야 해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을 잘 읽고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5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3에 따르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수입이며, 한계비용은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시장 수요 증가로 가격이 P_2가 되면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커진다. 4에서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가격이 P_2가 되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Q_2로 생산량을 늘려야 이윤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생산량을 Q_2에 가깝게 늘릴수록 이윤은 증가한다.

오답 해설 ① 4에 따르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즉, 생산량을 Q_0로 유지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유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② **〈최다 선택 오답〉** 생산량을 Q_2로 늘리면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한계비용곡선이 한계수입(시장 가격)인 P_0보다 위에 있으므로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커져서 이윤이 줄어든다. 하지만 한계비용곡선이 여전히 평균비용곡선의 위에 있으므로 이윤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③ 가격이 P_0로 유지되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Q_0이다. 따라서 생산량을 Q_1으로 줄이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윤이 줄어들게 된다. ④ **〈최다 선택 오답〉** 6에 따르면, 가격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기업은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 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 수요의 감소로 가격이 P_1이 되면, 상품의 시장 가격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아지므로 생산을 계속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 ②와 ④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②와 ④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②의 경우, 생산량을 Q_2로 늘리면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커져서 이윤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윤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④의 경우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글에서 분명히 상품의 시장 가격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 미치지 못하면 기업은 생산량과 상관없이 손실을 예상한다고 했다. 즉, ④에는 글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 글의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를 풀 때는, 아무리 선택지가 그럴싸해 보여도 글의 내용과 어긋날 경우 잘못된 선택지임을 잊지 말자.

6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의 뜻으로, ②의 '내리다'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탈것에서 밖이나 땅으로 옮아가다. ③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거나 알려 주다. 또는 그렇게 하다. ④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을 아래로 옮기다. ⑤ 컴퓨터 통신망이나 인터넷 신문에 올린 파일이나 글, 기사 따위를 삭제하다.

7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2에 따르면, 한계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다. 따라서 음료수 소비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얻는 한계편익은, 1개 구입할 때 3,500원(3,500원−0원), 2개 구입할 때 2,800원(6,300원−3,500원), 3개 구입할 때 2,200원(8,500원−6,300원)으로 점점 줄어들게 된다.

오답 해설 ① 1에 따르면,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다. 따라서 음료수 3개를 살 때의 순편익은 편익인 8,500원에서 비용인 8,000원을 뺀 500원이 된다. ② 1에 따르면, 비용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므로, 비용에서 명시적 비용, 즉 음료수를 사며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면 암묵적 비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음료수 1개를 살 때의 암묵적 비용은 비용 2,500원에서 명시적 비용 1,000원을 뺀 1,500원

이 된다. ③ 1에 따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음료수 소비량은 순편익이 1,800원(편익 6,300원−비용 4,500원)인 2개이다. ⑤ 1에 따르면, 비용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므로, 〈보기〉의 표의 비용에서 명시적 비용을 제외하면 음료수를 사기 위해 포기한 물 소비의 금전적 가치를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음료수를 사기 위해 포기한 물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음료수를 1개 살 때 1,500원(비용 2,500원−1,000원인 음료수의 가격), 2개 살 때 2,500원(비용 4,500원−2×1,000원인 음료수의 가격), 3개 살 때 5,000원(비용 8,000원−3×1,000원인 음료수의 가격)이 된다. 따라서 음료수 구입 개수가 늘어날수록 같이 음료수를 사기 위해 포기한 물 소비의 금전적 가치도 함께 커짐을 알 수 있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의 뜻으로, ④의 '판단'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둘은 동음이의어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주체'는 '짐스럽거나 귀찮은 것을 능히 처리함.'의 뜻으로,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의 의미를 지닌 ㉮의 동음이의어이다. ② '결정(結晶)'은 '애써 노력하여 보람 있는 결과를 이루는 것이나 그 결과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뜻으로,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의 의미를 지닌 ㉯의 동음이의어이다. ③ '포기'는 '뿌리를 단위로 한 초목의 낱개를 세는 단위'의 뜻으로,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림.'의 의미를 지닌 ㉰의 동음이의어이다. ⑤ '가정(家庭)'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의 뜻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의 의미를 지닌 ㉱의 동음이의어이다.

06 ② 거시경제론

• 본문 109~113쪽

1 ① 2 ② 3 ② 4 ① 5 ④ 6 ⑤ 7 ②

독해 PoinT 1 × 2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 3 가격 경직성 4 경기 안정화 정책 5 × 6 ① 메뉴 비용 이론 ② 효율 임금 이론

지문 한눈에 보기

1: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과 관련한 시간대의 구분	단기	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①　　)이 지속되는 시간대
	장기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 시장 (②　　)이 달성되는 시간대
2: 고전학파의 입장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함. – (③　　)는 존재하지 않음. →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3: 케인즈의 입장	•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경직적임. •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④　　)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됨. • 임금(노동 시장에서의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킴.	
4: 케인즈학파의 입장	• 경기 변동: 시장 균형으로부터의 이탈(불균형)과 회복(균형)이 반복되는 현상 • (⑤　　)가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함. • 거시 계량 모형이 개발되어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이용됨. →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새고전학파의 입장	• 케인즈학파가 거시 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과거 자료만으로 이 관계를 추정하려 했다는 점을 비판함. •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함. • 가격이 신축적이라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함. • 총수요 변동이 아닌 (⑥　　)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함.	
6: 새케인즈학파의 입장	•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⑦　　)의 방법론을 받아들임. •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남. →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함. • 가격 경직성의 근거: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 ⇒ 케인즈학파가 임의로 가정하였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함.	

정답 ① 불균형 ② 균형 ③ 단기 ④ 총수요 ⑤ 정부 ⑥ 기술 ⑦ 새고전학파

1 세부 정보 이해

2의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를 통해,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의 '총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를 통해 새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이 존재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5의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로 볼 때, 새고전학파는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했을 뿐, 미시적 분석을 통해 가격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③ 3의 '노동 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로 볼 때, 케인즈는 임금 경직성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과 같은 극심한 고용량의 변화가 야기된다고 보았다. ④ 3에서 케인즈는 단기에 가격이 경직적이어서 경기 침체와 대규모 실업이 일어났다고 했으므로, 만일 단기에 가격이 신축적이라면 케인즈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6의 '메뉴 비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메뉴 비용을 비교하여 가격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제품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를 통해, 새케인즈학파는 메뉴 비용의 존재로 인해 제품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느리다고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다른 상황에의 적용

2에 따르면, 고전학파(㉠)는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시장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고 보았다. 즉, 고전학파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격이 변화하여 시장이 균형을 회복한다고 여긴 것이다. 이러한 고전학파의 입장을 볼 때,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P_1에서 P_2까지 신축적으로 변화하여 국민총소득이 Y^*인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AD 곡선이 이동하면 물가가 P_1에서 P_2까지 신축적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물가가 항상 P_0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2에 따르면, 고전학파는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시장

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고 보았고,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전학파에서는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하여 국민 총소득이 Y*로 일정할 것이라 판단할 것이다. ③ **〈최다 선택 오답〉** 4에 따르면, 케인즈학파(㉡)는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케인즈학파는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P_1에서 P_2 사이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하면서, 국민 총소득은 장기 균형인 Y*를 이탈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④ 4에 따르면, 케인즈학파는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즉 극심한 경기 변동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라는 것은, 물가가 P_0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케인즈학파는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P_0에 고정되어 변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국민 총소득은 Y_1에서 Y_2까지 변화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⑤ 4에 따르면, 케인즈학파는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손'을 통해 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부의 경기 안정화 정책이 유효할 경우, 케인즈학파는 물가가 P_0에 고정된, 즉 완전히 경직적인 상황이라 해도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 총수요를 변화시켜 국민 총소득이 장기 균형인 Y*로 일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③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③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보기〉의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글의 내용과 연관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르면, AD 곡선은 총수요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우측 또는 좌측으로 평행 이동하며, 총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도 P_1에서 P_2까지 변화한다. 그런데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총수요 변동이 시장 불균형을 유발한다고 했으므로,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가격은 P_1에서 P_2까지 원활히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총수요가 AD_0이고 물가가 P_0이면 국민 총소득은 Y*이지만, 총수요가 AD_1로 이동했는데 물가가 P_1으로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P_0에 머물러 있으면 총소득은 Y*를 이탈하여 Y_1이 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격 경직성은 말 그대로 가격이 잘 변화하지 않는 것이고, 케인즈학파는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불균형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았으므로, 가격 변화가 적은 상태에서 총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문제였다. 글에 제시된 핵심 정보의 개념, ㉠과 ㉡의 입장, 그리고 그것을 〈보기〉에 하나하나 대응해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잡이이다.

3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5에서, 새로운 정보가 전해질 경우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꾼다고 했다. 이로 볼 때 새고전학파(㉢)는 K국 정부의 확장적 통화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합리적 기대에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반응이 달라지리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보기〉에서 경제학자 갑은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K국 정부에게 확장적 통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새고전학파는 경제학자 갑의 제안에 대해, 확장적 통화 정책 발표 이후 통화량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므로 정책의 효과 분석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최다 선택 오답〉** 2019년은 이미 지났으며 그때의 통화량은 2019년 12월 31일에 이미 발표되었으므로, 새고전학파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 발표되더라도 2019년의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들의 반응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③ **〈최다 선택 오답〉** 5에 따르면,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기존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므로, 새고전학파는 2020년 이전의 자료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보기〉에서 경제학자 갑은 2020년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비판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다음 달의 소비가 증가한다고 했으므로, 경제학자 갑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 다음 달의 소비가 증가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자 갑은 2020년 4월에 확장적 통화 정책이 시행되면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도 K국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⑤ 5에 따르면, 새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의 원인이 총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K국 정부의 인위적인 통화량 조절로 총수요 변동이 유발되더라도 새고전학파에서는 이것이 불황 등의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①과 ③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①과 ③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의 경우, 새고전학파가, 새로운 정보가 전해질 경우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K국 정부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들의 반응이 바뀌는 것이지, 이미 통화량 발표가 끝난 2019년의 상황에 대한 K국 국민들의 반응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③의 경우, 새고전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기존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 기대를 형성한다고 생각했으므로, 2020년 이전의 자료는 배제한다는 내용이 잘못되었다. 즉, 글에 제시된 새고전학파의 입장만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도 잘못된 답을 고르지 않았을 것이다. 글에 제시된 내용들은 항상 꼼꼼히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4 핵심 정보 이해

[A]에 따르면, 메뉴 비용 이론에 따라 기업은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메뉴 비용을 비교하여 가격을 변화시킨다. 즉, 가격 변화로 인해 이득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제품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제품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효율 임금 이론에 따라 기업은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려 할 것이므로, 시장 상황에 의해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임금을 낮추지 않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이다. 이로 볼 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품 가격이나 임금으로 인해 시장에 가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새케인즈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경기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③ [A]로 볼 때, 제품 시장과 노동 시장에서 기업은 공통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가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A]에서는 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제품 시장과 수요자로 참여하는 노동 시장에서의 기업의 행동 차이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메뉴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제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가격의 신축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제품 시장에 존재하는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할 수는 없다. ⑤ [A]로 볼 때,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노동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시장의 균형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기업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이직과 태만을 방지하려 할 것이다.

5 구절의 문맥적 의미 이해

4에서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④를 '시장 균형을 없앨 수'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보다는 '호황이나 불황의 발생을 없앨 수'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1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가 시장 균형임을 알 수 있으므로, ④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② 3을 통해 가격이 경직적인 것이 가격이 신축적인 것과 반대가 됨을 짐

작할 수 있으므로, ⓑ를 '즉시 바뀌지 않는다고'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③ 4에 따르면, 케인즈학파는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시장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므로, ⓒ를 '적절한 수준으로 변화시킴으로써'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⑤ 5로 볼 때, 경제 주체는 자신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므로, ⓔ를 '미래를 예상하고'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6 다른 상황에의 적용

5에서 새고전학파는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였다고 했으므로, 새고전학파가 경기 변동이 가격 경직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2에 따르면, 고전학파는 시장이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 즉 평균 경기 수준을 달성하며, 이에 따라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3에서 케인즈가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시장의 가격 경직성에 있다고 주장한 데서 알 수 있다. ④ 4에 따르면, 케인즈학파는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면서, 정부가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다.'의 뜻이므로, '일이 다 이루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끝나다'로 바꾸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의 뜻이므로, '나누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③ ㉢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의 뜻이므로, '생겨나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④ ㉣는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의 뜻이므로, '가지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⑤ ㉤는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다.'의 뜻이므로, '가리키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06 ③ 국제정치 패러다임

• 본문 114~117쪽

1 ③ 2 ⑤ 3 ① 4 ③ 5 ⑤ 6 ⑤ 7 ④

독해 PoinT 1 이익 2 ○ 3 × 4 관계

지문 한눈에 보기

1: 동맹결성의 이유	동맹결성의 핵심적 이유: (①)을 통해서 확보되는 이익 – 동맹관계 유지의 근간이 됨.	
2: 동맹의 종류와 특징	방위조약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다른 모든 서명국들이 공동방어를 위해 참전하기를 약속하는 것
	중립조약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더라도, 서명국들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
	협상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경우, 서명국들 간에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차후에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것
	→ 동맹국 간의 정치 · 외교적 (②): 방위조약 < 중립조약 < 협상	
3: 현실주의자들이 동맹관계를 고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이유	• 국가 – 이기적 존재. 국제 사회의 유일하고 중요한 행위 주체 • 국제 사회 – 국가 이상의 단위에서 작동하는 중앙정부 같은 존재가 부재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 → 각 나라는 군사적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을 이루어 (③) 안정을 취하려 함. ⇒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에서 동맹관계가 변할 수 있음.	
4: 구성주의자들이 동맹관계를 고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이유	• 무정부적 국제 사회를 힘의 분배와 균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없음. • 국제 사회의 구성원들은 (④)을 하여 상호 간 역할과 가치를 형성하면서 국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냄. → 상호 작용의 (⑤)에 따라 동맹은 달라질 수 있음.	

정답 ① 동맹 ② 자율성 ③ 패권 ④ 상호 작용 ⑤ 변화

1 세부 정보 이해

3에서 '특정한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동맹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힘에 편승하는 동맹이 형성되기도 한다.'라고 하였지만,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 그 힘에 편승한 세력들의 동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1의 '동맹결성의 핵심적인 이유는 동맹을 통해서 확보되는 이익'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2에서 '협상은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경우, 서명국들 간에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차후에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1에서 '국가는 자국의 힘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때나, 역사와 전통 등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라고 했으며,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때'를 전제로 맺어지는 동맹이다. ⑤ 2에서 중립조약은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더라도, 서명국들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 세부 정보 추론

2에서 동맹국 간의 자율성은 방위조약이 가장 낮고 중립조약, 협상 순서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강제성으로 인해 동맹국 간 정치 · 외교적 관계도 방위조약이 가장 가깝고 중립조약, 협상 순서로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에서 제시한 연구에서 방위조약의 수명이 가장 길고 중립조약, 협상 순서로 짧다고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에 들어갈 내용을 추측하면, 동맹은 양국의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동맹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 수명은 짧아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동맹관계가 멀면 자율성은 높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동맹관계가 가까우면 자율성이 낮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동맹관계가 가까우면 자율성이 낮고 그 수명은 길어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세부 정보 비교

3을 통해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의 변화를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으로 보며, 4를 통해 구성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의 변화를 '국제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호 작용을 하여 상호 간 역할과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사

회의 문제를 힘의 관계에, 구성주의자들(㉡)은 상호 인식 관계에 주목하여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국가적 이기심과 세력의 불균형은 모두 ㉠의 견해에 속한다. ③ 상호 협력은 상호 간의 역할 및 가치 형성과 연관 지을 수 있으며 이는 ㉡의 견해에 속한다. 상호 견제는 ㉠의 견해에 속한다. ④ ㉠은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힘의 균형점의 이동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동맹이 변화한다고 하였다. 한편 ㉡은 구성원의 자국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 상호 작용의 변화에 따라 국제 사회의 동맹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⑤ ㉠은 국제 사회가,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부재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라고 보았을 뿐,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도 타국이나 국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국제 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보았을 뿐, 구성원 간의 고른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보기〉에서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A국과 B국의 동맹관계에서 A국과 C국의 동맹관계로 관계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조약의 내용도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서명국들이 공동방어에 나서기로 약속하는 방위조약에서, 서명국들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중립조약으로 바뀌었다. 〈보기〉에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3에서 현실주의자들은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동맹관계가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 상대 국가에 대한 신뢰 여부에 따라 동맹관계가 변화된다고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A국과 B국의 동맹이 파기된 이유를 B국에 대한 A국 구성원들의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동맹 파기 전에는 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서명국인 B국이 침략을 당하면 A국은 공동방어를 위해 참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② A국이 C국과 맺은 동맹은 중립조약이므로, 서명국이 침략을 당해도 A국은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참전하지 않아야 한다. ④ 구성주의자들은 타국이나 국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국제 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치 있다고 판단될 때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맺는다고 보며, 그렇지 않으면 동맹관계가 파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구성주의자들은 타국이나 국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국제 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치 있다고 판단될 때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맺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A국의 여론이 변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B국과의 동맹을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5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관계나 인연 따위를 이루거나 만들다.'의 뜻으로, ⑤의 '맺다'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오답 해설 ① 〈최다 선택 오답〉 ⓐ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의 뜻인 반면, ①의 '나누다'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② ⓑ는 '높낮이로 잴 수 있는 수치나 정도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의 뜻인 반면, ②의 '낮다'는 '소리가 음계에서 아래쪽이거나 진동수가 작은 상태에 있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는 '어떤 대상이 일정한 상태나 결과를 생기게 하거나 일으키거나 만들다.'의 뜻으로 쓰인 반면, ③의 '이루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④ ⓓ는 '원상태를 회복하다.'의 뜻으로 쓰인 반면, ④의 '찾다'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 따위에 도움을 요청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①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①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어휘의 대상의 성격을 잘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 대상은 '동맹'으로, 이는 형태라는 기준에 따라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항목화할 수 있다. 반면 ①에서 '나누다'의 대상은 '글'로, 이를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눈 것은 하나의 글을 세 부분으로 쪼갠 것이지 하위 개념으로 항목화한 것은 아니다. 어휘 문제라도 이 문제처럼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오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휘 문제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평소에 어휘력을 키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6 세부 정보 이해

2에 따르면, 방위조약은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다른 모든 서명국들이 공동방어를 위해서 참전하기를 약속하는 것으로, 동맹국의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다. 반면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경우, 서명국들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중립조약이나, 서명국들 간에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차후에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협상은 전쟁 개입의 강제성이 없다.

오답 해설 ① 2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방위조약이 115개월, 중립조약이 94개월, 협상이 68개월이다. 즉, 평균 수명이 가장 긴 것은 방위조약, 가장 짧은 것은 협상이다. ② 3에 따르면,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사회를 국가 이상의 단위에서 작동하는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부재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로 생각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는 힘의 논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볼 뿐,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③ 4에 따르면, 구성주의자들은 동맹관계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약속으로 본다. 나아가 타국이나 국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치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동맹은 파기될 수 있다고 여긴다. ④ 2에 따르면, 동맹국 간의 자율성은 방위조약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중립조약, 협상 순으로 자율성이 높아진다.

7 어휘의 사전적·문맥적 의미 이해

Ⓐ는 〈보기〉의 「4」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④의 '당하다'도 Ⓐ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06강 어휘 테스트

• 본문 118~119쪽

01 ①	02 ①	03 ①
04 손해	05 보존하는	06 거두어들이는
07 일어난다고	08 계속될	09 지적
10 기초	11 의견	12 세력
13 깨질	14 신중하게	15 견제하기에
16 주목한다	17 합리적	18 추가
19 회복한다	20 상쇄되는	21 조절해야
22 추정되었다	23 선포하지	24 차후
25 ㉡	26 ㉢	27 ㉠
28 ①	29 ①	30 ②

04 '손실'은 '잃어버리거나 축나서 손해를 봄. 또는 그 손해'의 뜻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밑짐.'을 의미하는 '손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손익: 손해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

05 '유지하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의 뜻으로,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기다.'를 의미하는 '보존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보장하다: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하다.

06 '회수하다'는 '도로 거두어들이다.'의 뜻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아서 들여오다.'를 의미하는 '거두어들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끌어들이다: 남을 권하거나 꾀어서 자기편이 되게 하다.

07 '유발되다'는 '어떤 것에 이끌려 다른 일이 일어나다.'의 뜻으로, '어떤 일이 생기다.'를 의미하는 '일어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드러나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

08 '지속되다'는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되다.'의 뜻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가다.'를 의미하는 '계속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연결되다: 사물과 사물이 서로 이어지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가 맺어지다.

09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의 뜻으로,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함.'을 의미하는 '지적'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지시: 일러서 시킴. 또는 그 내용

10 '근간'은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의 뜻으로, '사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기초'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기원: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 또는 그런 근원

11 '견해'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의 뜻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의미하는 '의견'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의중: 마음의 속

12 '힘'은 '한 나라의 국력이나 세력'의 뜻으로, '권력이나 기세의 힘'을 의미하는 '세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역량: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13 '파기되다'는 '계약, 조약, 약속 따위가 깨져 버리다.'의 뜻으로, '일 따위가 틀어져 성사가 안되다.'를 의미하는 '깨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흐려지다: 흐린 상태로 되다.

14 신중하다: 매우 조심스럽다.

15 견제하다: 일정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상대편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르다.

16 주목하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

17 합리적: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

오답 해설 논리적: 논리에 맞는 것

18 추가: 나중에 더 보탬.

오답 해설 부가: 주된 것에 덧붙임.

19 회복하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다.

오답 해설 수복하다: 잃었던 땅이나 권리 따위를 되찾다.

20 상쇄되다: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받아 효과가 없어지다.

오답 해설 상환되다: 갚아지거나 주인에게 도로 주어지다.

21 조절하다: 균형이 맞게 바로잡다.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다.

오답 해설 조장하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다.

22 추정되다: 미루어져 생각되어 판정되다.

오답 해설 처리되다: 사무나 사건 따위가 절차에 따라 정리되어 치러지거나 마무리가 지어지다.

23 선포하다: 세상에 널리 알리다.

오답 해설 선점하다: 남보다 앞서서 차지하다.

24 차후: 지금부터 이후

오답 해설 최후: 맨 마지막

28 〈보기〉의 '자체'는 '다른 것을 제외한 사물 본래의 몸체. 또는 바로 그 본래의 바탕'의 뜻으로, ①의 '자체'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⑤ 외부적 영향 없이 내부적이거나 독립적임.

29 〈보기〉의 '주류'는 '사상이나 학술 따위의 주된 경향이나 갈래'의 뜻이다. 반면, ①의 '주류'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의 내부에서 다수파를 이루는 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0 〈보기〉의 '신축적'은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의 뜻이다. 반면, ②의 '신축적'은 '늘고 주는 성질이 있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Ⅲ 과학 / 기술

07 ① 식욕의 작용 원리

• 본문 122~126쪽

1 ① 2 ③ 3 ④ 4 ④ 5 ② 6 ②
7 ① 8 ⑤

독해 PoinT 1 × 2 촉진, 억제, 억제, 촉진 3 식욕 4 ○

지문 한눈에 보기

1: 식욕 중추의 구성과 역할

식욕 중추의 구성

섭식 중추	배가 (①) 느낌이 들게 함.
포만 중추	배가 (②) 느낌이 들게 함.

식욕 중추가 식욕을 조절하는 방법

영양분을 필요로 할 때	섭식 중추 작용 – 식욕이 느껴져 먹는 일과 관련된 무의식적 행동 촉진
영양분의 섭취가 늘어날 때	포만 중추 작용 – 식욕 억제

2: 식욕의 조절 원리 ① – 몸속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

포도당의 작용 원리	(③)이 식사를 통해 섭취된 후 소장에서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흡수됨. →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줄이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됨. → 포도당과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시상 하부로 이동함. → 포만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섭식 중추의 작용은 억제함.
지방산의 작용 원리	(④)이 피부 아래의 조직에 중성 지방의 형태로 저장됨. →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액 속으로 흘러가 간으로 운반됨. →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시상 하부로 이동함. → 섭식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포만 중추의 작용은 억제함.

3: 식욕의 조절 원리 ② – 전두 연합 영역에 따라

전두 연합 영역의 기능
- 영양분의 섭취와 상관없이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을 조절함.
  - 음식에 관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기억함.
  -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함.: 전두 연합 영역의 지령이 (⑤)의 신호를 통해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로 전해짐.

4: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디저트를 먹는 이유

배가 찬 경우	전두 연합 영역의 신경 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냄. → (⑥)이 나와서 위의 운동에 관련되는 신경 세포에 작용함. → 위의 내용물을 밀어내고 새로운 음식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함.
배가 차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맛에 질린 경우	주식이나 반찬에는 단맛을 내는 음식이 없음. → 식사가 끝난 후 단맛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함.

정답 ① 고픈 ② 부른 ③ 탄수화물 ④ 지방 ⑤ 신경 세포 ⑥ 오렉신

1 핵심 정보 이해

식욕 중추와 전두 연합 영역의 역할을 중심으로 식욕의 작용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 정보인 '식욕의 작용 원리'를 표제로, 그에 대한 부가 정보인 '식욕 중추와 전두 연합 영역을 중심으로'를 부제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식욕의 개념과 특성'은 1과만,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은 2와만 관련된 것으로, 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므로 모두 표제와 부제로 적절하지 않다. ③ '식욕이 생기는 이유'는 표제로 적절하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의 영향 관계'는 글에 언급된 정보가 아니므로 부제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전두 연합 영역의 특성'은 3, 4와만, '디저트의 섭취'는 4와만 관련되어 있고, '소화 과정'은 글에 언급된 정보가 아니므로 모두 표제와 부제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전두 연합 영역의 여러 기능'은 3, 4와만 관련되어 있고, '포도당과 지방산의 작용 관계'는 글에 언급된 정보가 아니므로 모두 표제와 부제로 적절하지 않다.

2 세부 정보 이해

4의 '오렉신은 위(胃)의 운동에 관련되는 신경 세포에 작용해서, 위(胃)의 내용물을 밀어내고 다시 새로운 음식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에서, 오렉신이 위(胃)의 운동에 관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앞 문장인 '전두 연합 영역의 신경 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거기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로 볼 때, 오렉신이 분비되는 곳은 전두 연합 영역이 아니라 섭식 중추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1의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에서 알 수 있다. ② 1의 '식욕은 기본적으로 뇌의 시상 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의 영향을 받는데,'에서 시상 하부가 식욕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④ 4의 '흔히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배가 찼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배가 차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맛에 질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3의 '본래 이 영역(전두 연합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식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에서 알 수 있다.

3 세부 정보 추론

실제로 배가 찬 상태(ⓑ)에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느끼는 것은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게 하는 포만 중추의 작용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만 중추가 작용하면 식욕이 억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디저트를 먹는 현상이 발생했으므로 ⓐ에 대해 모순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섭식 중추의 작용이 억제되는 것이므로 맞지만, 그럼에도 디저트를 먹는 현상은 섭식 중추의 작용이 억제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반대되므로 ⓐ는 타당한 것이 아니라 모순적이다. ② 섭식 중추의 작용이 활발한 것이 아니라 억제된다. ③ 포만 중추의 작용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것이다. ⑤ **〈최다 선택 오답〉** 포만 중추의 작용이 활발할 뿐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의 작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며, ⓐ는 식욕 중추의 작용을 고려하면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⑤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⑤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와 관련된 설명 부분에 섭식 중추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에 포만 중추도 함께 작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 앞에서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배가 부른 느낌이 드는 것으로, 포만 중추가 작용한 결과이다. 물론 ⓐ의 경우에 섭식 중추에서 오렉신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이를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의 작용이 반

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택지의 정오를 판단할 때는, 선택지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해야 함을 잊지 말자.

4 정보 간의 관계 이해

[A]를 바탕으로 할 때, ㉠은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것이므로 포도당, ㉡은 췌장에서 분비된 것이므로 인슐린, ㉢은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지방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복 상태가 길어진다는 것은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생기는 ㉠의 양도 줄어든다. 반면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간에서는 중성지방을 분해해 ㉢을 생성하므로 ㉢의 양은 늘어난다.

오답 해설 ① 혈관 속에 ㉠의 양이 늘어나면 ㉡이 분비된다. ② 혈관 속에 ㉠과 ㉡의 양이 많아지면 포만 중추가 작용해서 배가 부른 느낌이 든다. ③ ㉠과 ㉢은 모두 몸속 상황을 사상 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상 하부의 명령을 식욕 중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이 아닌 ㉢이 혈액을 타고 사상 하부로 이동하여 섭식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포만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⑤ ㉡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것이지, 피부 아래 조직에 중성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 역시 중성지방에서 분해되는 것이지, ㉡이 중성지방으로 저장되도록 돕는 것이 아니다.

5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3에서 전두 연합 영역이 '음식의 맛, 냄새 등 음식에 관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기억'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가 뷔페의 과자가 맛있었다고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섭식 중추가 아닌 전두 연합 영역의 작용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A는 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후식(과자)을 먹으려 하고 있는데, 4를 통해 이러한 현상은 오렉신의 영향으로 위에 후식이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③ B는 이미 배가 부른 상태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한다. 이는 3에서 언급한 '영양분의 섭취와 상관없이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이 작용한 것이다. ④ B는 건강을 위해 입맛에 맞지 않는 녹차를 마시려 하고 있다. 이는 3에서 언급한, 전두 연합 영역이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에 해당한다. ⑤ 디저트를 둘러보기 전까지 A와 B는 모두 배가 부르다고 느끼고 있었다. 1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배가 고픈 느낌이 들게 하는' 섭식 중추의 작용은 억제되고,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게 하는' 포만 중추의 작용은 촉진되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6 세부 정보 이해

실제로 배가 찬 경우, 전두 연합 영역의 신경 세포는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포만 중추가 아닌 섭식 중추로 보내기 때문에 위에 디저트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어 ⓐ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3에서는 전두 연합 영역의 지령이 신경 세포의 신호를 통해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로 전해지면서 식욕에 영향을 미침을 언급하고 있는데, ⓐ도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4의 '전두 연합 영역의 신경 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거기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오렉신은 위(胃)의 운동에 관련되는 신경 세포에 작용해서, 위(胃)의 내용물을 밀어내고 다시 새로운 음식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④, ⑤ 4의 '배가 차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특정한 맛에 질릴 수 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난 후에는 대개 단맛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이나 반찬에는 그 정도의 단맛을 내는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에서 알 수 있다.

7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2에 따르면, 몸속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 식욕이 조절될 때는 음식물 섭취 여부에 따라 몸속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작용한다. 그러나 〈보기〉의 A와 B는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 식욕을 느끼거나(탕후루),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고(녹즙)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는 몸속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 식욕 중추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전두 연합 영역의 지령에 따라 식욕 중추가 작용한 것(3, 4)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A는 실제로 배가 찼기 때문에, B는 배가 차지는 않았지만 매운맛에 질려서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탕후루를 후식으로 먹으려 하고 있다. 4에 따르면, 이들의 이런 태도는 모두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③ A는 배가 찼음에도 탕후루를 먹으려 하고 있다. 4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오렉신의 영향으로 위에 후식이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④ A는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맛이 없는 녹즙을 마시고 있다. 3에 따르면, 이처럼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로, 전두 연합 영역의 지령으로 이루어진다. ⑤ B는 배가 부르지 않음에도 매운맛에 질려서 마라탕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있다. 4로 볼 때, 이것은 '배가 차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특정한 맛에 질'린 경우에 해당한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의 뜻으로, ⑤의 '들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물감, 색깔, 물기, 소금기가 스미거나 배다. ② 어떤 범위나 기준,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 ③ 남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다. ④ 어떤 조직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되다.

07 ② 핵의학 기술 • 본문 127~130쪽

1 ③ 2 ② 3 ⑤ 4 ④ 5 ④ 6 ⑤ 7 ④

독해 PoinT 1 ○ 2 포도당 3 × 4 감마선 5 동시계수 시간폭 6 ① 산란계수 ② 랜덤계수

지문 한눈에 보기

1: 양전자 단층 촬영(PET)의 개념과 원리

개념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
원리	특정 물질과 (①)의 반응을 이용하여 이들의 분포를 확인함.

2: PET의 과정 ① – 방사성추적자의 주입과 축적

몸속에 방사성추적자를 주입함.

↓

방사성추적자가 비정상세포에 다량 (②)되어 축적됨.

3: PET의 과정 ② – 양전자 방출을 통한 감마선 방출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추적자의 방사성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함.

↓

	방출된 양전자가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하면서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뀜. ↓ 에너지가 180도 각도를 이루는 한 쌍의 (③)으로 방출되어 몸 밖으로 나옴.
4: PET의 과정 ③ – PET 스캐너를 통한 감마선 검출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이 PET 스캐너를 통해 검출됨. ↓ (④)을 통해 감마선의 방출 지점, 즉 비정상 세포의 위치를 알아냄.
5: PET 영상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법	동시계수: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PET 스캐너의 (⑤)로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 →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함. – 동시계수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폭인 동시계수시간폭을 설정하고 그 안에 들어온 경우를 유효한 성분으로 간주함.
6: PET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	**산란계수**: 감마선이 주변의 물질과 상호 작용을 일으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검출되는 경우 **랜덤계수**: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 **참계수**: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 → PET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란계수와 랜덤계수의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⑥)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함.

정답 ① 비정상 세포 ② 흡수 ③ 감마선 ④ 동시검출응답선 ⑤ 검출기 ⑥ 동시계수시간폭

1 세부 정보 이해

4에서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PET 스캐너를 통해 검출'된다고 하였다. 즉, PET 스캐너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된 감마선을 검출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1에서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② 4에서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의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을 동시검출응답선이라 한다고 하였다. ④ 1에서 '양전자 단층 촬영(PET)은 세포의 대사량 등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⑤ 4에서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라고 하였다.

2 세부 정보 이해

2에 따르면, 방사성추적자는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되지만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몸속 세포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대사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방사성추적자가 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2에서 방사성추적자는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되며, 일정 시간 동안 세포 안에 머무른다고 하였다. ③ 2에서 방사성추적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과 유사'하지만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 2에서 방사성추적자가 '특정한 원소 또는 물질의 이동 양상을 알아내기 위해' 쓰인다고 하였다. ⑤ 2에서 방사성추적자를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이라 하였고, 3에서 '방사성추적자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한다고 하였다.

3 세부 정보 추론

4에서,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 역시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므로, 그 이유는 4에 언급된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3의 '이 에너지는 180도 각도를 이루는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되어 몸 밖으로 나온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의 이유는 아니다. ② 3의 '방출된 양전자는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하는데, 이때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의 이유는 아니다. ③ 5의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PET 스캐너의 검출기로 동시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를 동시계수라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의 이유는 아니다. ④ 6을 통해 랜덤계수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의 이유는 아니다.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A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동시계수시간폭(12ns) 내에 도달했으므로 참계수, B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 중 하나가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계수시간폭(12ns) 내에 검출되었으므로 산란계수, C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시간폭(12ns) 내에 도달했으므로 랜덤계수에 해당한다. 만일 동시계수시간폭을 8ns로 설정했더라도 A와 B는 모두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한 경우가 되므로, 산란계수인 B는 여전히 검출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A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했으므로 참계수에 해당한다. ② B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 중 하나가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검출'된 경우(산란계수)이다. ③ C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한 경우이므로 랜덤계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6에 따르면, 유효한 영상 성분이 되는 것은 참계수만이므로, 랜덤계수인 C는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없다. ⑤ 산란계수인 B와 랜덤계수인 C는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검출응답선(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의 두 지점을 잇는 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5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의 뜻이다. '유사한 점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다.'는 '유추하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 ⑤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⑤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한 ⑤에서 '새로'라는 말 때문에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즉, ⓔ가 사용된 문장을 읽으며 동시계수시간폭을 새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6을 잘 읽어 보면, PET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란계수와 랜덤계수의 검출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시계수시간폭을 적절히 정해야 하는 것이다. 즉, 두 계수를 바탕으로 동시계수시간폭을 계산하거나 추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외우려 하기보다는 글을 많이 읽으면서 문맥 속에서 그 뜻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C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한 랜덤계수에 해당한다. 감마선의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산란계수인 B이다.

오답 해설 ① A는 참계수, B는 산란계수, C는 랜덤계수에 해당한다. 6에 따르면, 유효한 영상 성분이 되는 것은 참계수인 A뿐이다. ② A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한 참계수, B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 중 하나가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한 산란계수로, 모두 한 쌍의 감마선만이 관여된 것이다. 그러나 C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한 랜덤계수로, 두 쌍의 감마선이 관여된 것이다. ③ 4에 따르면,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동시검출응답선(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의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의 어느 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 참계수인 A는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검출응답선 위에 존재한다. 하지만 6에 따르면, 산란계수인 B와 랜덤계수인 C는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검출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④ 만일 동시계수시간폭이 6ns로 설정되었다면 B는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되므로 산란계수는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7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원래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거나 대신하게 하다.'의 뜻으로,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다.'의 의미를 지닌 '전환(轉換)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또한 ㉯는 '어떤 대상이 일정한 상태나 결과를 생기게 하거나 일으키거나 만들다.'의 뜻으로, '어떤 형상을 이루다.'의 의미를 지닌 '형성(形成)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교체(交替)되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바뀌어 대체되다. / 완성(完成)하다: 완전히 다 이루다. ② 교환(交換)되다: 서로 바꾸다. / 달성(達成)하다: 목적한 것을 이루다. ③ 대체(代替)되다: 다른 것으로 바뀌다. / 구성(構成)하다: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 ⑤ 변화(變化)되다: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게 되다. / 육성(育成)하다: 길러 자라게 하다.

07 ③ 알기 쉬운 열전달

• 본문 131~135쪽

1 ⑤ 2 ⑤ 3 ③ 4 ③ 5 ⑤ 6 ④
7 ③ 8 ②

독해 PoinT 1 전도 2 × 3 ○ 4 기포

지문 한눈에 보기

1: 전도에 의한 열전달	열전달: 열이 온도가 (①) 곳에서 (②)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 → 조리 과정에서는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많이 일어남.
2: 전도에 의한 열전달을 설명하는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 온도 차이와 면적에 비례 / 거리에 반비례 →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③)가 높은 경우 열전달률도 높게 나타남.
3: 튀김의 조리 과정	냄비를 가열하여 식용유의 온도를 충분히 높여, 식용유로부터 튀김 재료로의 (④)을 높임. → 튀김 재료를 식용유에 넣으면 재료 표면에 수많은 기포들이 형성됨. → 기포들이 식용유 표면으로 올라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이때 지글지글 소리가 남.
4: 기포의 역할	• 지속적으로 재료의 수분이 기포로 변함. → 재료의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바삭한 식감을 지니게 됨. • 식용유가 재료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튀김을 덜 기름지게 함. • 재료 표면이 빨리 타 버리지 않게 하고 튀김 재료의 안쪽까지 (⑤)이 전달되어 재료가 골고루 잘 익게 함.

정답 ① 높은 ② 낮은 ③ 열전도도 ④ 열전달률 ⑤ 열

1 세부 정보 이해

1의 '전도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데, 한 물질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로 보아, 전도는 한 물질 안에서도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1의 '전도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보다 활동적인 입자로부터 이웃의 덜 활동적인 입자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② 1의 '조리 과정에서는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많이 일어난다.'에서 알 수 있다. ③ 2의 '물질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 즉 열전도도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④ 2의 '열전달률은 결국 열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전달되는가를 나타내므로 음식의 조리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에서 알 수 있다.

2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2에 따르면, '열전도도가 높은 경우 열전달률도 높게 나타'나므로 열전달률을 낮추려면 열전도도가 낮은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건물 외부의 열기가 내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서 내부를 시원하게 해야 하는, 즉 열전달률을 낮춰야 하는 여름철에는 열전도도가 낮은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겨울철에는 건물 내부의 온기가 외부로 전달되는 것, 즉 열손실을 막아서 내부를 따뜻하게 해야 하므로, 열전도도가 낮은 재질로 지붕을 설계하면 열전달률을 낮출 수 있다. ② 2에 따르면,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온도 차이와 면적에 비례'하므로, 창문의 면적을 줄이면 창문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출 수 있다. ③ 2에 따르면,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

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열전달률은 낮아진다.' 따라서 외벽의 두께를 두껍게 하면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므로, 외벽을 통한 열전달률을 낮출 수 있다. ④ 겨울철에는 난방을 통해 내부 온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때는 온수 배관에서 방바닥으로 열전달이 일어난다. 2에 따르면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온도 차이와 면적에 비례'하므로, 난방용 온수 배관과 방바닥이 닿는 면적을 넓히면 난방용 온수 배관에서 방바닥으로의 열전달률을 높일 수 있다.

3 핵심 과정 이해

4의 '수분이 수증기의 형태로 튀김 재료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재료 안쪽의 수분들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표면 쪽으로 이동한다.'로 볼 때, 열이 전달됨에 따라 튀김 재료 표면의 수분이 튀김 재료 안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3에서 '냄비를 가열하여 식용유의 온도를 충분히 높'인다고 했으므로, 서로 다른 물질인 냄비와 식용유 사이에서 열전달이 일어나 식용유의 온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② 3의 '이 기포들은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의 높은 열전달률로 인해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되어 생겨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4의 '지속적으로 재료의 수분은 기포로 변하고 이로 인해 재료는 수분량이 줄어들면서'에서 알 수 있다. ⑤ 3의 '이 기포들은 식용유 표면으로 올라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이때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에서 알 수 있다.

4 핵심 정보 이해

4에서 '튀김 재료 표면의 기포들은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서 일종의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해 식용유가 재료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튀김을 덜 기름지게 한다.'라고 했으므로, ㄱ에는 '튀김 재료와 식용유 사이', ㄴ에는 '방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재료 표면에 생성된 기포들을 거쳐 열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포들은 재료 표면이 빨리 타 버리지 않게 하고 튀김 재료의 안쪽까지 열이 전달되어 재료가 골고루 잘 익게 한다.'라고 했으므로, ㄷ에는 '전도되지 못하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5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뜻으로, ⑤의 '따르다'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아 움직이다. ②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③ 남이 하는 대로 같이 하다. ④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

6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외벽은 두껍게 (A), 즉 거리를 멀게 설계해야 열전달률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열전도도가 높으면 열전달률도 높으므로 지붕의 재료는 열전도도가 낮은(B) 재료를 사용해야 열전달률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면적에 비례하므로 창문의 면적은 줄여야(C) 열전달률을 낮출 수 있다.

7 세부 정보 이해

3의 '이 기포들은 식용유 표면으로 올라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이때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로 보아, 지글지글 소리는 기포가 식용유 속에서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서 나는 소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3의 '이 기포들은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의 높은 열전달률로 인해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되어 생겨난 것인데 재료 표면의 수분이 수증기로 변해 식용유 속에서 기포의 형태가 된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②, ⑤ 4의 '수분이 수증기의 형태로 튀김 재료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재료 안쪽의 수분들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표면 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재료의 수분은 기포로 변하고 이로 인해 재료는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바삭한 식감을 지니게 된다.'에서 알 수 있다.

8 어휘의 비유적 의미 이해

Ⓐ에는 외부 물질의 침투를 막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방어막(다른 것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막)'이 적절하고, Ⓑ에는 열이 직접 전도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완충재(두 물질 사이에 끼어서 충격을 완화하는 재료)'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가늠자: 총을 목표물에 조준할 때 이용하는 장치의 하나 → 어떤 평가의 기준 / 나침반: 항공, 항해 따위에 쓰는 지리적인 방향 지시 계기 → 길이나 방향을 알려 주는 지표 ③ 울타리: 풀이나 나무 따위를 얽거나 엮어서 담 대신에 경계를 지어 막는 물건 →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 / 디딤돌: 마루 아래 같은 데에 놓아서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한 돌 → 목표하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 ④ 지렛대: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데에 쓰는 막대기 →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나 힘 / 도화선: 폭약이 터지도록 불을 붙이는 심지 →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 ⑤ 지름길: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 가장 쉽고 빠른 방법 / 우회로: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길 → 간접적인 문제 해결 방법

07강 어휘 테스트

• 본문 136~137쪽

01 ②	02 ①	03 ②
04 욕구	05 빨라진다	06 흡수
07 비축되어	08 배 속이 빈	09 기호
10 영향을 미친다	11 작은	12 요소
13 전해지는	14 양상	15 입자
16 척도	17 영향	18 주식
19 차이	20 결합한	21 붕괴되면서
22 조리	23 기포	24 식감
25 ㉡	26 ㉢	27 ㉠
28 ④	29 ④	30 ④
31 ③		

04 '욕망'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의 뜻으로,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을 의미하는 '욕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욕심: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05 '촉진되다'는 '다그쳐져 빨리 나아가게 되다.'의 뜻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를 의미하는 '빠르다'를 활용한 '빨라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늦어지다: 늦게 되다.

06 '섭취'는 '생물체가 양분 따위를 몸속에 빨아들이는 일'의 뜻으로, '위창자관 벽에서 혈관 또는 림프관으로 영양소 및 물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의미하는 '흡수'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포섭: 상대편을 자기편으로 감싸 끌어들임.

07 '저장되다'는 '물건이나 재화 따위가 모아져서 간수되다.'의 뜻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되어 미리 갖추어져 모아지거나 저축되다.'를 의미하는 '비축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변화되다: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게 되다.

08 '공복'은 '배 속이 비어 있는 상태. 또는 그 배 속'의 뜻이므로, '배 속이 비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9 '취향'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의 뜻으로, '즐기고 좋아함.'을 의미하는 '기호'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습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10 '작용하다'는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다.'의 뜻이므로, '영향을 미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1 '미세하다'는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다.'의 뜻으로,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를 의미하는 '작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적다: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12 '요인'은 '사물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까닭. 또는 조건이 되는 요소'의 뜻으로,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을 의미하는 '요소'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요점: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이나 관점

13 '전달되다'는 '자극, 신호, 동력 따위가 다른 기관에 전하여지다.'의 뜻으로, '어떤 것을 상대에게 옮기어 주다.'를 의미하는 '전하다'를 활용한 '전해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전염되다: 병이 남에게 옮다.

14 양상: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15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미세한 크기의 물체

16 척도: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의거할 기준

17 영향: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오답 해설 지시: 일러서 시킴. 또는 그 내용

18 주식: 밥이나 빵과 같이 끼니에 주로 먹는 음식

오답 해설 부식: 주식에 곁들여 먹는 음식

19 차이: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

오답 해설 괴리: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

20 결합하다: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오답 해설 혼합하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아니하고 섞다.

21 붕괴되다: 불안정한 소립자가 스스로 분열하여 다른 종류의 소립자로 바뀌게 되다. 또는 불안정한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출하거나 스스로 핵분열을 일으켜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바뀌게 되다.

오답 해설 와해되다: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다.

22 조리: 요리를 만듦. 또는 그 방법이나 과정

오답 해설 조절: 균형이 맞게 바로잡음.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감.

23 기포: 액체나 고체 속에 기체가 들어가 거품처럼 둥그렇게 부풀어 있는 것

오답 해설 수포: 물이 다른 물이나 물체에 부딪쳐서 생기는 거품

24 식감: 음식을 먹거나 씹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느낌

오답 해설 풍미: 음식의 고상한 맛

28 〈보기〉의 '분해되다'는 '한 종류의 화합물이 두 가지 이상의 간단한 화합물로 변화되다.'의 뜻으로, ④의 '분해되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③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 그 낱낱으로 나뉘다. ⑤ 어떤 조직이나 단체 따위가 와해되거나 어떤 대상이 완전히 해체되어 없어지다.

29 〈보기〉의 '이용하다'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다.'의 뜻이다. 반면, ④의 '이용하다'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方便)으로 쓰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0 〈보기〉의 '접촉하다'는 '서로 맞닿다.'의 뜻으로, ④의 '접촉하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가까이 대하고 사귀다.

31 〈보기〉의 '일종'은 '어떤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어떤, 어떤 종류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의 뜻으로, ③의 '일종'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한 종류. 또는 한 가지

08 ① 지구의 이해

• 본문 138~142쪽

1 ① 2 ③ 3 ⑤ 4 ① 5 ⑤ 6 ③
7 ② 8 ⑤

독해 PoinT 1 상대적 2 동위원소 연대측정법 3 중성자 4 × 5 ○

지문 한눈에 보기

1: 19세기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한계	(①)적 시간 척도 – 상대적인 척도로,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말해 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말해 줄 수 없음.
2: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의 등장과 발전	동위원소 연대측정법 – 러더포드가 암석 내 (②)의 양을 측정하여 한 암석의 연대를 계산해 냄으로써 시작됨.
3: 동위원소의 개념	원자핵에 들어 있는 양성자의 수에 따라 원소의 종류가 결정됨. – (③):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
4: 방사성 동위원소가 일으키는 방사성 붕괴의 원인과 결과	방사성 붕괴(핵붕괴):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④)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 –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 → 방사성 붕괴를 통해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된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함.
5: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의 원리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듦. – (⑤):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에 걸리는 시간 → 원소에 따라 다름. /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모원소의 개수 변화: 첫 반감기 – 처음의 반 → 두 번째 반감기 – 처음의 1/4 → 세 번째 반감기 – 처음의 1/8 …… ⇒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 첫 반감기 – 1 : 1 → 두 번째 반감기 – 1 : 3 → 세 번째 반감기 – 1 : 7 ……

정답 ① 지질학 ② 우라늄 ③ 동위원소 ④ 에너지 ⑤ 반감기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3에서는 동위원소의 개념, 4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 5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의 원리를 각각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3에서 원자핵의 구성 물질을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③ 4와 5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와 관련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 과정을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 즉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1과 2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이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 과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 즉 분류를 통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2 세부 정보 이해

5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4에서, 동위원소 중 원자핵의 상태가 불안정한 원소들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였다. ② 4에서, 탄소–14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인 질소–14의 원자핵은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④ 1을 통해 19세기 초에 지층의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대적인 척도인 지질학적 시간 척도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의 첫 문장을 통해 20세기가 되어서야 지층의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질학적 시간 척도만이 존재하던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형성된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⑤ 4의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다.

3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5에서,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하였다. 즉, 모원소의 개수가 줄어든 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자원소와 모원소의 개수를 더한 값은 변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A는 시간에 따른 모원소의 함량 감소를, B는 자원소의 함량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② 그림을 보면, 모원소의 함량이 100%에서 50%로 절반이 줄어드는 데 걸린 시간, 즉 반감기는 2억 년이다. 그런데 〈보기〉에서 측정 결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 : 3이라고 했으므로, 이 암석은 두 번의 반감기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암석 S의 생성 시기는 2×2억 년, 즉 4억 년 전이다. ③ 반감기의 횟수에 따라 모원소의 양은 '처음의 1/2, 처음의 1/4, 처음의 1/8, …'로 줄어든다. 따라서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처음 A(모원소)의 양은 1/16로 줄어든다. ④ 그림을 보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50% : 50%, 즉 1 : 1로 같아지는 시기는 2억 년이다.

4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은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 내다.'의 뜻으로, 바람이 파도라는 물리적·자연적 현상을 만들어 냈다는 의미의 ①의 '일으키다'와 가장 유사하다.

오답 해설 ②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 ③ 무엇을 시작하거나 흥성하게 만들다. ④, ⑤ 일어나게 하다.

5 세부 정보 추론

〈보기〉에 따르면, 질소–14는 기체라서 죽은 생물체의 외부로 빠져 나가므로 그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생물 유해나 화석의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과 대기 중의 그 비율을 비교하여 탄소–14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와 탄소–14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그 생물이 죽은 연대를 계산해야 한다. 결국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히 측정할 수도 없는 질소–14의 양만 알아서는 생물이 죽은 연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탄소–14는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양만 남는다.' 따라서 죽은 생물체 내에 남은 탄소–14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의 측정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죽은 생물은 더 이상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지도 배출하지도 못한다. 그렇지만 그 내부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14는 계속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개수가 줄어들게 된다. ③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14는 방사성 붕괴로 인해 양이 줄어드는 반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닌 탄소–12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죽은 생물 내의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은 변화하게 된다. ④ 〈보기〉에 따르면, 생물체가 살아 있을 때는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이 일정하다. 따라서 탄소–14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으로는 살아 있는 생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없다.

6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암석 A의 방사성 동위원소 ㉮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 : 7

이므로 세 번째 반감기임을 알 수 있다. 탄소−14의 반감기는 5730년이므로, 암석 A는 3×5730년, 즉 17190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세부 정보 이해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는 다른 원소이다. 3에서 "탄소−12'는 원자핵에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가 있는 원자이며, '탄소−14'는 양성자 6개와 중성자 8개가 있는 동위원소이다.'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3에서 '탄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6개이고, 산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8개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산소 원자핵의 양성자 수가 탄소 원자핵의 양성자 수보다 많다. ③ 4를 보면, 양성자 6개와 중성자 8개로 이루어진 탄소−14는 방사성 붕괴로 인해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질소−14로 바뀐다. 따라서 자원소인 질소−14만 원자핵의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가 같다. ④ 원소의 종류에 상관없이 네 번째 반감기에는 모원소의 개수가 처음의 1/16로 줄어든다. 모원소가 1/16, 자원소가 15/16가 되므로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은 1 : 15가 된다. ⑤ 원소의 개수가 절반으로 가장 빨리 줄어든다는 것은 반감기가 가장 짧다는 의미이다. 5를 보면, 탄소−14, 포타슘−40, 우라늄−238 중에서 반감기가 가장 짧은 것은 탄소−14이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보기〉에 제시된 ㉮의 구성 요소 중 Ⓐ는 '절반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이고, Ⓑ는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작아진다는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는 '기간', '시기'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⑤의 '기'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계 장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08 ② 상과 상변화

• 본문 143~147쪽

1 ① 2 ⑤ 3 ④ 4 ① 5 ⑤ 6 ② 7 ③

독해 PoinT 1 ① 고체 ② 액체 ③ 기체 2 × 3 ○ 4 증발, 응결 5 삼중점

지문 한눈에 보기

1: 물질의 상의 개념과 유형별 특성	물질의 (①): 화학적 조성은 물론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질한 물질의 형태
	고체: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가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각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서로 고정된 상태
	액체: 일정한 부피를 가지나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음.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분자 위치를 고정할 만큼 강하지 못하여 분자가 액체 내부를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상태
	기체: 부피와 모양이 모두 일정하지 않음.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작은 편으로, 기체의 분자 간 평균적인 거리는 고체나 액체일 경우에 비해 매우 먼 상태
2: 상변화의 개념과 특징	(②):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면서 물질의 상이 전환되는 현상 → 물질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남. – 높은 상 물질: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일 때의 물질
3: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상변화를 나타내는 상평형 그림	(③) 그림: 닫힌계에서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상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상 경계: 상과 상 사이의 선들 –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의 집합 선의 각 점: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 융해 곡선: 고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 승화 곡선: 기체상과 고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 증기 압력 곡선: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
4: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증기 압력 곡선	•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 액체의 표면에 있는 분자들 중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들은 분자 간 인력을 극복하고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변함. • 기체에서 액체로의 상변화: 기체의 분자들 일부는 에너지를 잃고 응결되어 액체로 변함. → 분자들의 증발·응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나, 특정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기체의 응결 속도'가 되어 거시적으로 (④)을 유지함.
5: 삼중점과 임계점	• 삼중점: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 경계에서 두 선이 분기하는 점 –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상태 • 임계점: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 경계에서 선이 끝나는 점 → 두 상은 액체도 기체도 아닌 (⑤)를 형성함.

정답 ① 상 ② 상변화 ③ 상평형 ④ 평형 ⑤ 조임계 유체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1의 '화학적 조성은 물론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질한 물질의 형태'에서 물질의 상의 개념을, 2의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면서 물질의 상이 전환되는 현상'에서 상변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3에서 상평형 그림을 활용하여 물질의 상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1에서 물질의 상을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2에서 상변화에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압력 변화에 따라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가 달라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1에서 물질의 상을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제시했지만, 다양한 물질의 예를 들고 있지는 않다. ④ 물질의 상이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상변화이지만, 2에서 상변화에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라 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화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물질의 상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압력과 온도 사이의 상관성이나 물질의 화학적 변화 이유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다른 상황에의 적용

이 글과 〈보기〉의 〈그림〉을 보면, 물과 이산화 탄소 모두 삼중점 아래의 온도와 압력에서 승화 곡선이 나타나고 있다. 즉, 물과 이산화 탄소 모두 승화 곡선을 경계로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그림〉을 보면 이산화 탄소는 31.1℃와 73.0atm에서 임계점이 형성되고, 이 글의 〈그림〉을 보면 물은 374.4℃와 217.7atm에서 임계점이 형성된다. 즉, 물에 비해 이산화 탄소의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압력과 온도 조건에 있는 것이다. ② 이 글의 〈그림〉을 보면 물은 압력이 1atm일 때 0~100℃의 온도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반면 〈보기〉의

〈그림〉을 보면 이산화 탄소는 압력이 1atm일 때 어떤 온도에서도 액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③ 2에서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일 때의 물질을 높은 상 물질이라고 했다. 이 글과 〈보기〉의 〈그림〉을 보면 물과 이산화 탄소는 공통적으로 동일한 압력에서 더 높은 온도에 존재하는 상일 때의 물질이 기체이다. ④ **〈최다 선택 오답〉** 3을 통해 고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이 융해 곡선임을 알 수 있다. 〈보기〉의 그림을 보면 이산화 탄소의 융해 곡선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도 높아지지만, 이 글의 〈그림〉을 보면 물의 융해 곡선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낮아진다.

! ④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④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보기〉에 집중한 나머지 글의 〈그림〉에 신경을 덜 썼기 때문이다. 글의 〈그림〉에서는 물의 상평형 그림을, 〈보기〉에서는 이산화 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선택지에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따라 각각의 그림을 살펴봐야 한다. ④는 이산화 탄소가 아닌 물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글의 〈그림〉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평소에 선택지에서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3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c는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상평형 상태이고 e는 기체 상태라고 했으므로, c에서 e로 갈수록 액체의 증발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1에서 기체의 분자 간 인력은 매우 작은 편이라 고체나 액체에 비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매우 멀다고 했으므로, 액체가 증발하여 기체가 되는 c~e에서는 분자 간의 인력이 점점 작아질 것이다.

오답 해설 ① a~e는 액체가 증발하여 기체가 되는 과정이므로, 액체의 분자 수는 감소하고 기체의 분자 수는 증가할 것이다. ② b는 액체가 증발하는 상태이므로,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기체에서 액체로 돌아오는 분자의 수보다 더 많을 것이다. ③ [A]에서 특정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결 속도가 같아지면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상평형 상태에 해당한다. 〈보기〉의 c가 상평형 상태라고 했으므로, 액체 분자의 증발 속도와 기체 분자의 응결 속도는 같을 것이다. ⑤ 1에서 기체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작은 편으로, 기체의 분자 간 평균 거리는 고체나 액체보다 매우 먼 상태라고 했다. 〈보기〉의 a는 액체 상태, e는 기체 상태이므로, 분자 간 거리는 e가 a보다 멀 것이다.

4 세부 개념 이해

㉠(삼중점)은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상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4에서 '분자들의 증발 또는 응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결 속도는 같아지게 되어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라며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증기 압력 곡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은 고체와 액체, 기체 사이에서는 상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속도가 같아서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1에서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유지하는 것은 고체라고 했으므로,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는 ㉠에 대한 이해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사이에서 상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므로, 물리적 형태에 변화가 없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③ ㉠에서는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라 상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므로, 세 가지 물질이 압력과 온도 변화에도 특정한 상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1에서 고체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각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서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으며, 액체는 분자 간 인력이 분자 위치를 고정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했다. 또한 기체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작다고 했다. 따라서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가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과는 관련이 없다. ⑤ ㉠은 고체, 액체, 기체가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압력과 온도 조건이므로, 지속적으로 압력과 온도가 상승한다고 볼 수 없다.

5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는 '어떤 형상을 이룸.'이라는 뜻이다.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뜸.'은 '상형'의 의미이다.

6 다른 상황에의 적용

고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은 융해 곡선이다. 〈보기〉에서 이산화 탄소의 융해 곡선은 삼중점, 즉 온도 −56.4℃, 압력 5.11atm 이상에서 형성되므로, 이산화 탄소의 고체상과 액체상은 −56.4℃ 이상으로 올라야 평형을 이루게 된다.

오답 해설 ① 이산화 탄소는 일반적인 대기 압력 수준, 즉 1atm일 때 −78.5℃보다 온도가 낮으면 고체로 존재하고, 그보다 온도가 높으면 기체로 존재한다. ③ 기체상과 고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은 승화 곡선이다. 〈보기〉에서 이산화 탄소의 승화 곡선은 삼중점보다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형성되고 있다. ④ 〈보기〉에서 온도 31.1℃, 압력 73.0atm은 이산화 탄소의 임계점에 해당한다. 5에 따르면, 임계점에서는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유체가 형성된다. ⑤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결 속도가 같아져서 평형을 이루는 것은 증기 압력 곡선이다. 〈보기〉에서 이산화 탄소의 증기 압력 곡선은 삼중점보다는 높고 임계점보다는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형성되므로, 온도 −56.4~31.1℃, 압력 5.11~73.0atm에서 액체상과 기체상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

7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의 뜻이다. ③에는 '전환' 대신 '몸의 모양이나 태도 따위를 바꿈. 또는 그렇게 바꾼 몸'의 의미를 지닌 '변신'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 하나의 물질에서 어느 부분을 취하여도 성분이나 특성이 일정함. ② ㉯: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됨. ④ ㉰: 어떤 것과 비교하여 똑같음. ⑤ ㉱: 양이나 수치가 늚.

08 ③ OLED 소재 및 소자의 기초와 응용 • 본문 148~151쪽

1 ① **2** ② **3** ③ **4** ③ **5** ③ **6** ① **7** ⑤

독해 PoinT **1** 야외 시인성 **2** 명암비 **3** 명실 **4** × **5** 편광판 **6** 위상지연필름 **7** ○

지문 한눈에 보기

1: 맑고 화창한 날 밖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	화면에 반사된 햇빛이 화면에서 나오는 (①)과 많이 혼재될수록 야외 시인성이 저하되기 때문 – 야외 시인성: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
2: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	명암비: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을 화면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나타내는 수치–(②)을 표현할 때의 휘도÷(③)을 표현할 때의 휘도

3: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

〈명암비의 종류〉

암실 명암비	햇빛과 같은 외부광 없이 오로지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명암비
명실 명암비	외부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명암비

→ 스마트폰의 (④)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함.
–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높임.
–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낮춤.

4: OLED의 특징

OLED: 화면의 내부에 있는 기판에서 빛을 내는 소자
–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구현함.
–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면 해당 색의 (⑤)가 높아짐.
–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할수록 OLED의 수명이 단축됨.
→ 편광판과 위상지연필름을 활용하여, 외부광의 반사로 높아진,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낮추는 기술이 적용됨.

5: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편광판의 원리

일반적인 빛의 성질: 진행하는 방향에 (⑥)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감.

빛
↓
편광판
↙ ↘
투과죽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선형 편광만 남음. / 투과죽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차단됨.
↓
편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가 감소함.

6: OLED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

외부광
↓
편광판
↓
일부가 차단되고 투과죽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⑦) 편광만 남음.
↓
위상지연필름
↓
회전하며 나아가는 빛인 (⑧) 편광으로 바뀜.
↓
스마트폰 화면의 내부 기판에 반사됨.
↓
위상지연필름
↓
(⑨) 편광으로 바뀜.
– 외부광이 처음 편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 편광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어 편광판에 가로막힘.
↓
기판에 반사된 외부광이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함.

7: OLED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의 한계

- 편광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 스마트폰 화면이 일정 수준의 (⑩)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함.
- 외부광이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야외 시인성의 저하도 방지하지 못함.

정답 ① 빛 ② 흰색 ③ 검은색 ④ 야외 시인성 ⑤ 휘도 ⑥ 수직 ⑦ 선형 ⑧ 원형 ⑨ 선형 ⑩ 명암비

1 세부 정보 이해

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간다. 또한 스마트폰에 적용된 편광판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과 **6**을 볼 때, 외부광은 편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므로 외부광이 일반적인 빛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에 따르면, 햇빛은 외부광에 해당되므로, 햇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4**에 따르면, OLED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③ **2**에 따르면, 휘도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양'이므로,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휘도는 높아진다. ④ **1**에 따르면, 야외 시인성은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이므로, 야외 시인성이 사물 간의 크기 차이를 비교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4**에 따르면, OLED는 화면의 내부에 있는 기판에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소자이다. 그러므로 OLED가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2 세부 정보 이해

2와 **3**에 따르면, 암실 명암비는 외부광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화면이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다. 그러므로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낮아질수록 암실 명암비도 낮아진다.

오답 해설 ① **3**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한다. 즉, 명실 명암비를 높이면 야외 시인성이 높아지게 된다. ③ **3**에 따르면, 암실 명암비와 명실 명암비는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④ **2**에 따르면, 명암비는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다. ⑤ **1**에 따르면, 화면에 반사된 햇빛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많이 혼재될수록 야외 시인성이 저하된다. 그런데 **3**에서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면에 반사된 외부광이 눈에 많이 들어올수록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높아져서 명실 명암비가 낮아진다.

3 세부 정보 추론

OLED 스마트폰에서 ㉡과 같은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은, 편광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편광판은 OLED에서 방출된 빛 중 편광판 투과축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차단시켜 빛의 세기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OLED에서 방출된 빛이 외부광처럼 편광판에 일부 차단되어 빛의 세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여야 휘도를 높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4**에 따르면,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여 해당 색의 휘도를 높일 수 있다. ② **4**에 따르면, OLED가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할수록 OLED의 수명이 단축된다. ④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것은 명암비 계산을 어렵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4**에 따르면, 빛의 세기를 높이는 것과 OLED의 수명이 관계가 있지만 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4 자료에의 적용

b(위상지연필름)를 거친 빛은 원형 편광이고, a(편광판)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은 선형 편광이므로, 둘은 같은 형태의 편광이 아니다. 또한 기판은 편광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므로, b를 거친 빛이 기판에 의해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의 편광으로 바뀐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5와 6에 따르면, 외부광은 편광판(a)을 거치면서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선형 편광만 남는다. ② 〈최다 선택 오답〉 5와 6에 따르면, 편광판(a)을 거쳐 위상지연필름(b)으로 나아가는 빛은 선형 편광이다. 선형 편광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빛 중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빛이다. ④ 6에 따르면, 기판에 반사되어 다시 위상지연필름(b')을 통과한 빛의 진동 방향은 외부광이 처음 편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 편광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룬다. ⑤ 5와 6에 따르면, 기판에 반사되어 다시 위상지연필름(b')을 통과한 빛의 진동 방향은 외부광이 처음 편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 편광의 진동 방향(=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과 수직을 이룬다. 즉, 편광판(a')의 투과축과 수직을 이루므로 빛은 편광판에 가로막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 ②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②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진행 방향'에 수직인 방향과 '투과축'에 수직인 방향이 헷갈렸기 때문이다. 5에 따르면, 외부광은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선형 편광만 남고, 투과축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차단된다고 했다. 5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투과축과 진행 방향은 수직을 이루므로,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진행 방향에 수직인 방향'이 되는 것이다. 표현이 조금 다르더라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다.'의 뜻으로,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의 의미를 지닌 '고르다'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는 '뒤섞이어 있다.'의 뜻이므로, '뒤섞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는 '현실에 실재하다.'의 뜻이고, '있다'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를 '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짧게 줄어들다.'의 뜻이므로, '줄어들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다.'의 뜻이므로, '막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6 자료에의 적용

ㄱ은 편광판, ㄴ과 ㄷ은 위상지연필름이다. 6에 따르면, 외부광은 편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고, 투과축과 수직 방향이 아닌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선형 편광만 남게 된다.

오답 해설 ②, ⑤ ㄱ을 거친 선형 편광은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반면, ㄷ을 거친 선형 편광은 외부광이 처음 편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 편광의 진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게 되어 ㄱ에 가로막힌다. ③ 선형 편광은 ㄴ을 거치면서 원형 편광이 되고, 원형 편광은 ㄷ을 거치면서 선형 편광이 된다. ④ 6에 따르면, 원형 편광은 스마트폰 화면의 내부 기판에 반사된 뒤에 ㄷ을 통과한다.

7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값이나 비율 따위를 더 높게 하다.'의 뜻으로, ⑤의 '높이다'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어떤 의견을 다른 의견보다 더 강하게 내다. ② 이름이나 명성 따위를 널리 알려지게 하다. ③ 소리의 음계를 위쪽으로 옮기거나 진동수를 큰 상태가 되게 하다. ④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를 길게 하다.

08강 어휘 테스트

• 본문 152~153쪽

01 ①	02 ②	03 ②
04 모았다	05 세워졌다	06 붙어 있는
07 불규칙하게	08 상태	09 이겨 내고
10 액체로 변하지	11 낮아진다	12 뚜렷하다고
13 고치기	14 방출하고	15 증발할
16 반사된	17 실질적	18 측정
19 심층적	20 물리적	21 변화
22 평형	23 화창한	24 수직
25 ㉡	26 ㉠	27 ㉢
28 ②	29 ③	30 ③

04 '종합하다'는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서 합하다.'의 뜻으로, '한데 합치다.'를 의미하는 '모으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마련하다: 헤아려서 갖추다.

05 '확립되다'는 '체계나 견해, 조직 따위가 굳게 서다.'의 뜻으로,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를 올바르게 하거나 짜다.'를 의미하는 '세우다'를 활용한 '세워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정리되다: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한데 모아지거나 치워져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다.

06 '고정되다'는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되다.'의 뜻이므로, '붙어 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움직이다: 멈추어 있던 자세나 자리가 바뀌다. 또는 자세나 자리를 바꾸다.

07 '무질서하다'는 '질서가 없다.'의 뜻으로, '규칙에서 벗어나 있다. 또는 규칙이 없다.'를 의미하는 '불규칙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정신없다: 무엇에 놀라거나 경황이 없어 앞뒤를 생각하거나 사리를 분별할 여유가 없다.

08 '조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갖추어져야 할 상태나 요소'의 뜻으로, '사물 · 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을 의미하는 '상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형태: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

09 '극복하다'는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 내다.'의 뜻이므로 '이겨 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해결하다: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하다.

10 '액화되다'는 '기체가 냉각 · 압축되어 액체로 변하게 되다.'의 뜻이므로 '액체로 변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1 '저하되다'는 '정도, 수준, 능률 따위가 떨어져 낮아지다.'의 뜻으로, '품위, 능력, 품질 따위가 바라는 기준보다 못하거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를 의미하는 '낮다'를 활용한 '낮아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흐려지다: 흐린 상태로 되다.

12 '선명하다'는 '산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아니하다.'의 뜻으로, '엉클어지거나 흐리지 않고 아주 분명하다.'를 의미하는 '뚜렷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정직하다: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

13 '개선하다'는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다.'의 뜻으로,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다.'를 의미하는 '고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보충하다: 부족한 것을 보태어 채우다.

14 방출하다: 입자나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내다.

15 증발하다: 어떤 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다.

16 반사되다: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던 파동이 다른 물체의 표면에 부딪혀서 나아가던 방향이 반대로 바뀌다.

17 실질적: 실제로 있는 본바탕과 같거나 그것에 근거하는 것

오답 해설 본질적: 본질에 관한 것

18 측정: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잼.

오답 해설 측량: 기기를 써서 물건의 높이, 깊이, 넓이, 방향 따위를 잼.

19 심층적: 정도나 경지가 깊이 있고 철저한 것

오답 해설 구체적: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

20 물리적: 물질의 원리에 기초한

오답 해설 순차적: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하는

21 변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오답 해설 변모: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뀜. 또는 그 모양이나 모습

22 평형: 사물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안정해 있음.

오답 해설 평행: 나란히 감.

23 화창하다: 날씨나 바람이 온화하고 맑다.

오답 해설 화사하다: 화려하게 곱다.

24 수직: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 따위가 서로 만나 직각을 이루는 상태

오답 해설 수평: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

28 〈보기〉의 '자연적'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저절로 되는 것'의 뜻으로, ②의 '자연적'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③, ④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것 ⑤ 자연이나 자연법칙을 따르는 것

29 〈보기〉의 '공존하다'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하다.'의 뜻이다. 반면, ③의 '공존하다'는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0 〈보기〉의 '통과하다'는 '어떤 곳이나 때를 거쳐서 지나가다.'의 뜻으로, ③의 '통과하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제출된 의안이나 청원 따위가 담당 기관이나 회의에서 승인되거나 가결되다. ② 검사, 시험, 심의 따위에서 해당 기준이나 조건에 맞아 인정되거나 합격하다. ④ 멈추었다가 가도록 예정된 곳을 그냥 지나치다. ⑤ 장애물이나 난관 따위를 뚫고 지나가다.

09 ① 폐수처리공학 I

• 본문 154~157쪽

1 ④ **2** ④ **3** ⑤ **4** ③ **5** ① **6** ⑤

독해 PoinT **1** ① 보통 침전 방식 ② 약품 침전 방식 **2** ○ **3** 전기적 중화, 가교 **4** 급속 **5** ○ **6** ×

지문 한눈에 보기

1: 정수 처리 기술의 침전 방식

- 침전 과정의 목적: 부유하는 오염 물질을 가라앉혀 물의 (①)를 제거함.
- 침전 방식의 유형

보통 침전 방식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큰 경우, 중력만으로 가라앉히는 방식
약품 침전 방식	화학 약품을 이용하여 중력만으로 침전시키기 어려운 물질들을 응집시켜 가라앉히는 방식

2: 물의 탁도가 높아지는 원인

- 미세한 입자들: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면 반데르발스 힘의 영향을 받아 응집함.
- 콜로이드 입자들: (②) 전하를 띠고 있어 전기적 반발력의 영향을 받음. → 일정 거리 이하로 입자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음. → 입자들이 물속에서 균일하게 분산되어 안정성을 가지고 부유함. → 물의 탁도가 높아짐.

3: 약품 침전 방식의 과정

응집제 주입 → 전기적 중화 작용, 가교 작용 → (③)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춤.
– 응집제: 양이온계 응집제(물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함.)

4: 전기적 중화 작용의 과정

응집제와 물의 화학 반응 → 양(+) 전하의 금속 화합물 형성 → 화합물이 음(–) 전하를 띤 콜로이드 입자와 결합 → 콜로이드 입자 간 (④) 감소 → 콜로이드 입자들이 불안정화되어 물 분자 운동이나 물의 흐름에 의해 움직임. →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할 정도로 가까워지면 서로 응집 → 침전이 가능한 작은 플록 형성
⇒ 응집제 주입 후 극히 단시간에 이루어짐.
∴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이 빠르게 결합하여 반응하게 하기 위해 급속 교반을 해야 함.

5: 가교 작용의 과정

응집제의 주입으로 형성된 화합물 중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함. → 여러 플록들이 하나의 큰 플록이 됨. → (⑤)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침전함.
⇒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들기 위해, 플록이 다른 플록과 연결될 때 접촉 시간을 늘려 주고 연결이 깨지지 않도록 완속 교반을 해야 함.

6: 전하 역전 현상과 체 거름 현상		
	전하 역전 현상	전기적 중화 작용·가교 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한 응집제가 많이 남아 있게 되면, 중화되었던 콜로이드 입자들이 양(+) 전하를 띠게 됨. → 콜로이드 입자들이 재안정화되면서 물의 탁도가 다시 높아짐.
	↓	
	체 거름 현상	여분의 응집제가 물과의 화학 반응을 통해 침전성 금속 화합물을 형성함. →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들을 (⑥)하면서 가라앉음.

정답 ① 탁도 ② 음(−) ③ 콜로이드 ④ 전기적 반발력 ⑤ 중력 ⑥ 흡착

1 세부 정보 이해

5에서, 플록과 다른 플록이 연결될 때 접촉 시간을 늘려 주기 위해서는 물을 천천히 저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교 작용 과정에서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물을 빠르게 젓는 급속 교반은 전기적 중화 작용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체 거름 현상은 물을 젓는 것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4에서, 급속 교반은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이 빠르게 결합하여 반응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 1에서, 약품 침전 방식은 '화학 약품을 이용하여 입자들을 응집시켜 가라앉히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③ 1에서,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큰 경우, 다른 물질과의 상호 작용 없이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하였다. ⑤ 3에서, 양이온계 응집제는 '물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2 세부 정보 이해

2에서, 콜로이드 입자들은 물속에서 '음(−) 전하를 띠고 있어 서로를 밀어내는 전기적 반발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은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② ㉠으로 인해 입자들이 응집하게 되므로, ㉠ 때문에 물속에서 입자들이 균일하게 분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 때문에 콜로이드 입자들이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지 않는다. 입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⑤ ㉠은 입자와 이온의 결합과 상관이 없다. 또한 콜로이드 입자들이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등으로 음(−) 전하를 띠면서 ㉡의 영향을 받지만, ㉡을 입자가 이온과 결합할 때 형성되는 힘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핵심 정보 이해

〈보기〉의 ⓐ는 응집제가 주입되는 구간, ⓐ와 ⓑ 사이는 전기적 중화 작용과 가교 작용으로 인해 콜로이드 입자들의 침전이 일어나는 구간, ⓑ와 ⓒ 사이는 전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 ⓒ 이후는 체 거름 현상으로 인해 콜로이드 입자들의 침전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5를 통해 '응집제의 주입으로 형성된 화합물 중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 가교 작용에 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6에서 체 거름 현상을 통해 '여분의 응집제'로 형성된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들을 흡착하면서 가라앉는'다고 하였으므로, ⓒ 이후에서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들과 흡착하여 침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3에서 '응집제를 주입하여 전기적 중화 작용과 가교 작용'으로 '물의 탁도를 낮'춘다고 하였고, 4에서 전기적 중화 작용으로 콜로이드 입자들이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작은 플록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② 5에서 '고분자 화합물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는데, 이는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③ **〈최다 선택 오답〉** 5에서 '가교 작용'의 목적이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였으며, '연결된 여러 플록들은 하나의 큰 플록이 되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침전'한다고 하였다. ④ 6에서 '탁도가 낮아진 물에, 전기적 중화 작용과 가교 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한 응집제가 많이 남아 있게 되면' 콜로이드 입자들이 '양(+) 전하를 띠'고 재안정화되면서 물의 탁도가 다시 높아진다고 하였다.

! ③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③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침전 속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탁도가 높아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겼기 때문이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침전 속도가 높아지면 탁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침전 속도가 낮아지면 탁도는 높아진다. 즉, 침전 속도와 탁도는 반비례 관계인 것이다. 이 글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낯선 용어들이 많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일단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서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4 세부 정보 이해

2에서 '음(−) 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 입자들이 '안정성을 가지고 부유'한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안정화'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4에서 '전기적 중화 작용'은 '양(+) 전하의 금속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와 결합'하면 나타나며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들이 불안정화'된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전기적 중화'가, ㉰에는 '불안정화'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6에서 '전기적 중화 작용과 가교 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한 응집제가 많이 남아 있게 되면 전기적으로 중화되었던 콜로이드 입자들이 오히려 양(+) 전하를 띠'는 '전하 역전'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전하 역전'이 들어가야 한다.

5 핵심 정보 이해

ⓐ 이전에 물의 탁도가 높은 것은, 물속에서 부유하는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의 거리가 전기적 반발력의 영향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세한 입자들에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 이전에서 물의 탁도가 높은 것은 콜로이드 입자가 전기적 반발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② ⓐ와 ⓑ 사이는 전기적 중화 작용과 가교 작용으로 인해 콜로이드 입자들의 침전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전기적 중화 작용에 의해 침전이 가능한 작은 플록이 형성되고, 가교 작용에 의해 여러 플록들이 하나의 큰 플록이 되어 빠르게 침전한다. ③ 전기적 중화 작용에서는 급속 교반을, 가교 작용에서는 완속 교반을 해야 한다. ④ ⓑ와 ⓒ 사이에서는, 전기적 중화 작용과 가교 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한 응집제로 인해 전기적으로 중화되었던 콜로이드 입자들이 오히려 양(+) 전하를 띠게 되는 전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콜로이드 입자들이 재안정화되면서 물의 탁도가 다시 높아진다. ⑤ ⓒ 이후는 체 거름 현상으로 인해 콜로이드 입자들의 침전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6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는 '거꾸로 회전함.'이 아니라 '형세가 뒤집힘. 또는 형세를 뒤집음.'을 뜻한다.

09 ②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

• 본문 159~163쪽

1 ① 2 ② 3 ⑤ 4 ④ 5 ④ 6 ⑤
7 ① 8 ⑤

독해 PoinT 1 송신기 2 발생 여부, 위치 3 × 4 모듈로−2 연산 5 ○

지문 한눈에 보기

1: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송신기와 수신기의 작용

송신기	오류 검출 (①)를 포함한 데이터 전송
수신기	수신한 데이터 검사 → 오류 있으면 재전송 요청

2: 오류 검출 방식 ① − 패리티 검사

방식	• 전송할 데이터에 패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함. • 패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②)의 개수를 짝수(짝수 패리티)나 홀수(홀수 패리티)로 만듦.
한계	•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 개의 비트에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 어려움. • 오류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있을 뿐 데이터 내 오류의 위치는 알아낼 수 없음.

3: 패리티 검사의 한계 극복 방법

전송할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구성해서 패리티 비트 생성 − 오류의 발생 여부와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음.

예

송신기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구성 → 모든 행과 모든 열에 패리티 비트 생성 → 데이터 전송
수신기	수신한 데이터의 각각의 행과 열의 1의 개수를 세어 오류 검사 → 어떤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비트가 포함된 행과 열에서 모두 오류가 검출됨. →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알 수 있음.

→ 한계: 동일한 행 또는 열에서 (③) 개의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음.

4: 오류 검출 방식 ② − CRC 방식

방식	• 미리 선택된 생성 부호를 사용해서 오류 검출 부호 생성 •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 부호로 나누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 데 모듈로−2 연산을 활용함. − 모듈로−2 연산: 자릿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④)를 구하는 연산. 해당 자릿수의 비트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이 됨.

5: CRC 방식의 예와 장점

예	〈생성 부호: 1011 / 전송할 데이터: 110101〉 • 송신기: 전송할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생성 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 (⑤)을 추가한 후 이를 생성 부호로 나누고, 그 나머지가 오류 검출 부호가 됨. →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 110101111만 전송 • 수신기: 수신한 데이터를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 부호로 나눔. → 오류가 없다면 생성 부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00 됨. ⇒ 나머지가 000 아니면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함.
장점	여러 개의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이를 검출할 수 있음. → 오류 검출 확률이 높음.

정답 ① 부호 ② 1 ③ 짝수 ④ 나머지 ⑤ 0

1 세부 정보 이해

4에서, CRC 방식은 미리 선택된 생성 부호를 사용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한다고 하였다. 모듈로−2 연산은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 부호로 나누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다.

오답 해설 ② 2에서, 패리티 검사에는 짝수 패리티와 홀수 패리티 방식이 있는데, 송신기와 수신기는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5의 〈그림〉에서 생성 부호(1011)의 비트 수는 4개이고 오류 검출 부호(111)의 비트 수는 3개이므로, 생성 부호의 비트 수가 오류 검출 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 더 많다. ④ 2에서, 패리티 검사는 패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짝수 패리티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다. ⑤ 5에서, CRC 방식은 복잡하지만 여러 개의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이를 검출할 수 있어서 오류 검출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2 핵심 정보 비교·이해

㉠(패리티 검사)과 ㉡(CRC 방식) 모두,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해서 이를 데이터에 포함하여 전송하고,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검사하여 오류를 검출한다. 즉, ㉠과 ㉡ 모두 송신기는 오류 검사를 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은 데이터에 포함된 1의 개수가 짝수나 홀수가 되도록 오류 검출 부호인 패리티 비트를 생성한다. 그러나 ㉡은 모듈로−2 연산을 통해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한다. ③ ㉠은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의 1의 개수를 파악하여 오류를 검출하고, ㉡은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를 모듈로−2 연산을 수행하여 나머지를 구해 오류를 검출한다. ④ ㉠과 ㉡ 모두 송신기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여 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한다. ⑤ ㉠은 데이터가 같더라도 짝수 패리티나 홀수 패리티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패리티 비트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은 미리 정해진 생성 부호가 무엇인지에 따라 송신기의 모듈로−2 연산의 나머지가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정보 추론

패리티 검사를 활용하면 데이터의 1의 개수가 짝수나 홀수가 되도록 패리티 비트를 생성한다. 만약 짝수 패리티를 사용하여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패리티 비트를 생성하여 전송했을 때,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서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 오류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짝수 개의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전송한 데이터와 수신한 데이터가 달라지더라도 수신한 데이터의 1의 개수는 짝수로 나타난다. 즉, 패리티 비트는 전송할 데이터가 짝수일 때를 기준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1의 개수의 짝·홀수 여부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수신기는 오류를 검출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수신한 데이터가 정상일 때와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때의 패리티 비트는 동일하기 때문에,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 개의 비트에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송신기가 패리티 비트를 생성하는 것과 짝수 개의 비트의 오류 검출은 관련이 없다. ②, ③ 〈최다 선택 오답〉 전송되는 데이터에 포함되는 1의 개수는 사용하는 패리티 방식에 따라 짝수나 홀수로 나타난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수신한 데이터에 짝수 개의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수신기는 오류를 검출할 수 없다. ④ 패리티 비트는 송신기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생성하는 것으로, 그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③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③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에서 '짝수 개의 비트에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에서 짝수를 언급하고 있으니 당연히 답도 짝수를 언급한 ③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는 '수신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짝수임을 이야기하는 반면, ③에서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1의 개수가 짝수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짝수'라는 공통점 때문에 ③을 답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선택지의 정오를 판단할 때는 한 단어가 아니라 선택지 전체의 내용과 글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수신한 데이터에서 ⓑ도 0으로 바뀌어서 수신되었다면 두 번째 행의 1의 개수는 홀수(5개)가 되고, 〈보기〉에서는 홀수 패리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신기는 두 번째 행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일곱 번째 열의 1의 개수가 짝수(2개)가 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오류가 있는 행과 열의 교차 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류의 정확한 발생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일곱 번째 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류 발생 여부는 검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첫 번째 행의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의 1의 개수는 홀수인 3개이다. 홀수 패리티를 사용했으므로 수신기는 첫 번째 행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② 여섯 번째 열의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의 1의 개수는 홀수인 1개이다. 홀수 패리티를 사용했으므로 수신기는 여섯 번째 열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③ ⓐ가 포함된 행과 열은 각각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이다.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의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1의 개수는 각각 6개와 2개로 짝수이다. 홀수 패리티를 사용했으므로, 수신기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행과 열의 교차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가 ⓐ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⑤ 〈보기〉에서는 홀수 패리티를 활용했으며 패리티 비트의 오류는 없다고 가정했으므로, 짝수 패리티를 활용했다면 송신기는 현재의 ⓒ와는 반대로 1010110으로 생성했을 것이다.

5 세부 정보 적용

5에 따르면, CRC 방식에서 오류의 판단 기준은 모듈로-2 연산의 결과 나머지가 0인지의 여부이다. 〈보기〉에서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모듈로-2 연산의 나머지가 0이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5에 따르면, CRC 방식에서 수신기는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 부호를 사용해서 모듈로-2 연산을 한다. 수신기의 연산에서 사용한 1011은 송신기에서 사용했던 생성 부호와 동일한 것이다. ②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의 오른쪽 끝의 111은, 송신기의 모듈로-2 연산으로 생성된 오류 검출 부호인 111을 추가한 것이다. ③ **〈최다 선택 오답〉** 〈보기〉의 모듈로-2 연산을 보면, 수신한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생성 부호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 0을 추가하지 않고 110101111을 바로 생성 부호로 나누고 있다. ⑤ CRC 방식에서는 수신기의 모듈로-2 연산의 나머지가 0으로 나오면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보기〉의 모듈로-2 연산의 나머지가 0이 아니었다면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신기에 재전송을 요청했을 것이다.

③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③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보기〉가 아닌 글의 내용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5에서 송신기가 '전송할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생성 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 0을 추가'한다고 했으므로, 〈보기〉의 연산을 제대로 보지 않고 0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내용만으로 ③을 답으로 선택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보기〉에는 생성 부호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의 0인 0000이 없으므로 ③은 적절한 설명이다. 〈보기〉에 정보를 적용하는 문제의 경우, 글의 내용과 〈보기〉 모두 살펴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6 세부 정보 이해

5에 따르면, CRC 방식에서는 모듈로-2 연산을 통해 수신한 데이터를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 부호로 나누는데, 이때 나머지가 0이면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다.

오답 해설 ① 4에 따르면, CRC 방식은 미리 선택된 생성 부호를 사용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고 오류 검출 부호는 그보다 비트가 하나 작다. 전송할 데이터보다 생성 부호의 비트가 하나 작은지는 알 수 없다. ② 5에 따르면, 여러 개의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이를 검출할 수 있는 것은 패리티 검사가 아니라 CRC 방식이다. ③ 2에 따르면, 패리티 검사는 오류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있을 뿐 데이터 내 오류의 위치는 알아낼 수 없다. 설령 2차원 배열로 구성되었더라도 짝수 개의 오류가 발생하면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다. ④ 3에 따르면, 패리티 검사를 할 때 송신기가 아닌 수신기가 데이터의 각각의 행과 열의 1의 개수를 세어 검사한다.

7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두 번째 행의 1의 개수는 8개이고, 세 번째 열의 1의 개수는 2개이다. 짝수 패리티를 활용한다고 했으므로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오류가 있는 위치는 세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의 교차 지점이다.(세 번째 행의 1의 개수: 3개 / 두 번째 열의 1의 개수: 3개)

오답 해설 ②, ③ 첫 번째 행과 여섯 번째 열은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1의 개수가 각각 4개로 모두 짝수이다. 짝수 패리티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첫 번째 행과 여섯 번째 열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④ 수신한 데이터에서 ㄱ이 1로 바뀌어 수신되었다면, 첫 번째 행은 1의 개수가 5개로 홀수, 다섯 번째 열은 1의 개수가 3개로 홀수가 된다. 따라서 ㄱ이 1로 바뀌어 수신되면, 첫 번째 행과 다섯 번째 열의 교차 지점인 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⑤ 〈보기〉에서는 짝수 패리티를 활용했으며 패리티 비트의 오류는 없다고 가정했으므로, 홀수 패리티를 활용했다면 송신기는 현재의 ㄴ과는 반대로 1001001로 생성했을 것이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의 뜻이므로, '펴져서 드러나다.'를 의미하는 '펼쳐지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는 '전하여 보내다.'의 뜻이므로, '보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는 '전신이나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의 신호를 받다.'의 뜻이므로, '받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는 '나중에 더 보태다.'의 뜻이므로, '이미 있던 것에 더하여 많아지게 하다.'를 의미하는 '보태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는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쓰다.'의 뜻이므로,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를 의미하는 '쓰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9 ③ 인공지능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의 자연어 처리 기술

• 본문 164~167쪽

1 ③ 2 ④ 3 ⑤ 4 ④ 5 ⑤ 6 ④

독해 PoinT 1 ① 철자 오류 보정 방식 ②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 2 전처리 3 × 4 ○ 5 통계 데이터

지문 한눈에 보기

1: 인공지능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의 자연어 처리 기술	인공지능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의 작동 요건: 사용자의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함. – 자연어 처리 기술: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 → (①)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 보정
2: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의 과정 ① – 전처리, 오류 문자열 판단	철자 오류 보정 방식: 교정 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문자열을 올바른 문자열로 바꿔 주는 방식 **전처리**: 입력 문장에서 사용자의 발음이 불분명하게 입력되어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 줌. **오류 문자열 판단**: 입력된 문장을 (②) 단위의 문자열로 구분하여, 각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3: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의 과정 ② – 교정 후보 집합 생성,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교정 후보 집합 생성** • 처리된 문자열이 (③)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면 넘어옴. •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함.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 철자 오류가 거의 없는 교과서나 신문 기사와 같은 자료에서 어휘들의 사용 빈도를 추출한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함. • 교정 후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열을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여 결과 문장을 도출함.
4: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 잘못된 띄어쓰기를 통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올바른 띄어쓰기로 바꿔 주는 방식 ① 입력된 문장의 띄어쓰기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진법으로 변환함. – 음절의 좌나 우, 음절 사이에 공백 있을 때 (④), 공백 없을 때 (⑤)으로 표기함. ② 올바르게 띄어쓰기가 구현된 문장에서 추출한 통계 데이터와 비교함. ③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 띄어쓰기 오류를 보정함.
5: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의 공통점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 모두 올바른 단어나 문장에서 추출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정이 이루어짐. → 보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통계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 경우 데이터 처리 (⑥)가 감소하게 됨.

정답 ① 통계 데이터 ② 어절 ③ 교정 사전 ④ 1 ⑤ 0 ⑥ 속도

1 세부 정보 이해

2에 따르면,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의 첫 번째 단계인 '전처리'에서는 국어에 쓰이는 음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꾸어 준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부터는 입력된 문장을 어절 단위의 문자열로 나누어 처리한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입력된 문장을 음절 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에 따르면,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잘못 입력된 문장이 보정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② 1에 따르면,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한 다음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 ④ 4에 따르면,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에서 문장의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⑤ 5에 따르면, 보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의 양을 늘리면 처리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2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3에 따르면,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에서는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 이에 따라 ㉥에서는 '틀어죠'와 '틀어줘'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하게 된다.

오답 해설 ① 2에 따르면, '전처리' 단계에서는 불분명하게 입력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 준다. 이에 따라 '왘'이라는 음절은 국어에 쓰이지 않으므로, ㉦에서는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인 '왈츠'로 바꿔 주게 된다. ② 3에 따르면,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된다. 이에 따라 ㉧에서는 '쇼팽의'라는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 문장으로 바로 보내게 된다. ③ 2에 따르면,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에서는 어절 단위의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틀어죠'라는 문자열은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므로 ㉥에서는 이를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보내게 된다. ⑤ 3에 따르면,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단계에서는 교정 후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열을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여 결과 문장을 도출한다. 이에 따라 ㉩에서는 교정 후보 '틀어죠'와 '틀어줘' 중 어휘별 통계 데이터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틀어줘'를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게 된다.

3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4에 따르면,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에서는 입력 문장의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환한 다음 통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 오류를 보정한다. 따라서 〈보기〉의 통계 데이터 빈도수 비교 결과 중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 '학생이(1000)'의 빈도수가 ⓐ의 '학생이(1010)'의 빈도수보다 높은 ㅁ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ㄱ은 ⓐ의 '생(01)'의 빈도수가 ⓑ의 '생(00)'의 빈도수보다 높으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② ㄴ은 ⓑ의 '학생(100)'의 빈도수가 ⓐ의 '학생(101)'의 빈도수보다 낮으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③ ㄷ은 ⓐ의 '이다(101)'의 빈도수가 ⓑ의 '이다(001)'의 빈도수보다 높으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④ ㄹ은 ⓑ의 '생이다(0001)'의 빈도수가 ⓐ의 '생이다(0101)'의 빈도수보다 낮으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4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은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내다.'의 뜻이므로, '고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의 '기반'은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의 뜻이므로,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바탕'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의 뜻이므로,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를 의미하는 '나누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은 '사물이 생겨나다.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다.'의 뜻이

므로,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를 의미하는 '만들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의 '향상'은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짐. 또는 나아지게 함.'의 뜻이므로, ㉢ 앞에 '정확도'가 쓰인 문맥을 고려할 때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다.'를 의미하는 '높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5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4에 따르면,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에서는 입력 문장의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환한 다음 통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 오류를 보정한다. 따라서 〈보기〉의 통계 데이터 빈도수 비교 결과 중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의 '사랑(111)'의 빈도수가 ㉡의 '사랑(100)'의 빈도수보다 낮은 c와, ㉡의 '랑해(001)'의 빈도수가 ㉠의 '랑해(111)'의 빈도수보다 높은 e이다.

오답 해설 a. ㉠의 '사(11)'의 빈도수가 ㉡의 '사(10)'의 빈도수보다 높으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b. ㉡의 '랑(00)'의 빈도수가 ㉠의 '랑(11)'의 빈도수보다 낮으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d. ㉡의 '해(01)'의 빈도수가 ㉠의 '해(11)'의 빈도수보다 낮으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6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다음 순서나 시기, 또는 다른 경우로 옮아가다.'의 뜻으로, ④의 '넘어가다'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바로 있던 것이 저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쓰러지다. ② 사람, 물건, 권리, 책임, 일 따위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아가다. ③ 어떤 일이나 문제를 소홀히 여겨 그냥 지나치다. ⑤ 꾀나 유혹 따위에 빠져서 속거나 마음을 주다.

09강 어휘 테스트

• 본문 168~169쪽

01 ①	02 ①	03 ②
04 뭉치게	05 넣는	06 붙이며
07 요구한다	08 앞서	09 이용한다
10 한정된	11 바꾼다	12 나온다
13 방법	14 정화하는	15 분산되어
16 중화되었던	17 침전	18 가교
19 간단한	20 검사한다	21 보정하는
22 빈도	23 공백	24 통계
25 ㉢	26 ㉡	27 ㉠
28 ④	29 ②	30 ③

04 '응집하다'는 '한군데에 엉겨서 뭉치다. 또는 엉겨서 뭉치게 하다.'의 뜻으로, '한데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를 의미하는 '뭉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치대다: 빨래, 반죽 따위를 무엇에 대고 자꾸 문지르다.

05 '주입하다'는 '흘러 들어가도록 부어 넣다.'의 뜻으로, '다른 것에 섞거나 타다.'를 의미하는 '넣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쌓다: 여러 개의 물건을 겹겹이 포개어 얹어 놓다.

06 '흡착하다'는 '어떤 물질이 달라붙다.'의 뜻으로,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를 의미하는 '붙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채우다: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냄새 따위를 가득하게 하다.

07 '요청하다'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하다.'의 뜻으로,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하다.'를 의미하는 '요구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강구하다: 좋은 대책과 방법을 궁리하여 찾아내거나 좋은 대책을 세우다.

08 '미리'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또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의 뜻으로, '아예 미리'를 의미하는 '앞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원래: 처음부터 또는 근본부터

09 '활용하다'는 '충분히 잘 이용하다.'의 뜻으로,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다.'를 의미하는 '이용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허용하다: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이다.

10 '제한되다'는 '일정한 한도가 정하여지거나 그 한도가 초과되지 못하게 막다.'의 뜻으로, '수량이나 범위 따위가 제한되어 정해지다.'를 의미하는 '한정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정렬되다: 데이터가 특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한 순서가 되도록 다시 배열되다.

11 '변환하다'는 '달라져서 바뀌다. 또는 다르게 하여 바꾸다.'의 뜻으로, '원래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거나 대신하게 하다.'를 의미하는 '바꾸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번역하다: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다.

12 '도출되다'는 '판단이나 결론 따위가 이끌려 나오다.'의 뜻으로, '처리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기다.'를 의미하는 '나오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나타나다: 어떤 일의 결과나 징후가 겉으로 드러나다.

13 '방안'은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의 뜻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을 의미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비법: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방법

14 정화하다: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다.

15 분산되다: 갈라져 흩어지다.

16 중화되다: 같은 양의 양전하와 음전하가 하나가 되어 전체로는 전하를 가지지 아니하게 되다.

17 침전: 액체 속에 있는 물질이 밑바닥에 가라앉음. 또는 그 물질

오답 해설 침식: 비, 하천, 빙하, 바람 따위의 자연 현상이 지표를 깎는 일

18 가교: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 주는 사물이나 사실
오답 해설 대교: 규모가 큰 다리

19 간단하다: 단순하고 손쉽다.
오답 해설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20 검사하다: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다.
오답 해설 검문하다: 검사하기 위하여 따져 묻다.

21 보정하다: 실험, 관측 또는 근삿값 계산 따위에서 결과에 포함된 외부적 원인에 의한 오차를 없애고 참값에 가까운 값을 구하다.
오답 해설 보수하다: 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치다.

22 빈도: 같은 현상이나 일이 반복되는 도수(度數)
오답 해설 강도: 센 정도

23 공백: 종이나 책 따위에서 글씨나 그림이 없는 빈 곳
오답 해설 공터: 집이나 밭 따위가 없는 비어 있는 땅

24 통계: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냄. 또는 그런 것
오답 해설 회계: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셈을 함.

28 〈보기〉의 '구성하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의 뜻이다. 반면, ④의 '구성하다'는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거나 서술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9 〈보기〉의 '나머지'는 '나누어 똑 떨어지지 아니하고 남는 수'의 뜻으로, ②의 '나머지'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어떤 일을 하다가 마치지 못한 부분 ③ 어떤 일의 결과 ④, ⑤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

30 〈보기〉의 '구축되다'는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가 닦아져 세워지다.'의 뜻이다. 반면, ③의 '구축되다'는 '어떤 시설물이 쌓아 올려져 만들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Ⅳ 주제 통합

10 ① 독점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 / 공정거래법의 이해

• 본문 172~176쪽

1 ④ 2 ⑤ 3 ② 4 ① 5 ④ 6 ① 7 ② 8 ④

독해 PoinT 1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2 ○ 3 최적 생산량 4 × 5 ① 착취 남용 ② 방해 남용 6 카르텔 7 경제력

지문 한눈에 보기

(가) 1: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개념과 구조	완전경쟁시장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 누구나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구조
	독점시장	비슷한 대체재가 없는 재화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극단적인 시장 – (①)이 존재하는 시장구조
2: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특징	완전경쟁시장	• 경쟁자가 다수 →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기업=가격수용자 –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임. • 기업의 한계수입 일정 • '수요=공급' 지점에서 가격과 거래량 결정
	독점시장	기업=가격결정자 – 시장가격을 조정할 힘을 가짐. → 독점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②)을 가짐.
3: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과 부정적 영향		〈이윤 극대화 전략〉 • 생산량 ↓ → 시장가격 ↑ / 생산량 ↑ → 시장가격 ↓ ⇒ 한계수입<가격 • 한계수입>한계비용 → 생산량 ↑ / 한계수입<한계비용 → 생산량 ↓ ⇒ '한계수입=한계비용' 지점에서 최적 생산량 결정 • 수요자가 (③)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시장가격으로 결정됨. 〈부정적 영향〉 • 시장가격의 상승 유발 → 수요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시장의 비효율성 유발
(나) 4: 공정거래법의 원칙		(④)주의 →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될 때 이를 규제함.
5: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착취 남용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⑤)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변경한 경우 – 출고량 조절로 시장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방해 남용	현실적·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제함. –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여 경쟁 제한의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

	〈종류〉 **약탈적 가격 설정** –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매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것 **배타조건부 거래** – 다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일방적, 강제적 요구+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결정한 경우
6: 부당한 공동행위	동일업종의 복수 사업자가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입찰 내용 등을 합의하여 형성하는 (⑥) 형태 – 명시적 합의+묵시적 합의 → 사업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움. →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경쟁 제한적인 합의만 있으면,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봄.
7: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공정거래법 위반 시 →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 (⑦)을 부과함. ⇒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정답 ① 진입장벽 ② 시장지배력 ③ 최대 ④ 폐해규제 ⑤ 독점적 ⑥ 독과점 ⑦ 과징금

1 세부 정보 이해

(가)는 **3**에서 독점기업의 이윤 추구 방법과 관련하여 독점기업의 가격과 생산량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설명하며 **5**와 **6**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시장구조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았고, (나)에서 역시 공정거래법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확인할 수 없다. ② (가)의 **3**에 독점기업의 이익 추구 과정은 제시되어 있으나, 시장에서 독점이 필요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나)에서 부당한 독점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도 확인할 수 없다. ③ (나)에 제시된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대책이다. 또한 (가)에서 균등한 소득 분배를 위한 경제학적 대책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의 **3**의 '독점시장에서 기업은 시장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수요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에서 독점이 시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의 문제점은 찾을 수 없다.

2 세부 정보 이해

1과 **2**에 따르면, ㉠(완전경쟁시장)은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므로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반면, ㉡(독점시장)은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므로 시장지배력을 가진다.

오답 해설 ① **2**에 따르면, ㉠에서 기업은 가격수용자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② **3**에 따르면, ㉡에서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늘려 나가면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낮아진다. ③ **3**에 따르면, ㉡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시장가격이 하락한다. 즉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춰야 한다. ④ **1**에 따르면, ㉠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누구나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구조이다.

3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보기〉에서 독점기업 '갑'이 생산량을 최적 생산량 수준인 Q_1에서 Q_2로 늘리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제품의 가격을 P_2에서 한계비용인 P_1으로 낮추면, 갑이 독점을 통해 얻고 있던 이윤은 사라진다.

오답 해설 ① [A]의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한다.'로 볼 때, '갑'의 최적 생산량 수준은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Q_1 지점이 될 것이다. ③ [A]의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로 볼 때, '갑'의 생산량이 Q_2보다 적으면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갑'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을 Q_1 수준까지 증가시킬 것이다. ④ **〈최다 선택 오답〉** '갑'이 제품을 판매할 때 얻게 되는 단위당 이윤은, 제품의 가격으로 설정한 P_2에서 제품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드는 한계비용인 P_1만큼을 뺀 값이 된다. ⑤ P_2은 최적 생산량인 Q_2에 대응하는 가격이지만, P_1에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는 '갑'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아니다. 따라서 '갑'은 최적 생산량을 Q_1으로 결정한 후, 가격결정자로서 Q_1에서의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 수준(수요곡선)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가격을 P_2로 결정할 것이다.

! ④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④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른 적절한 선택지들은 해당 내용을 [A]에서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④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즉, [A]에는 독점기업의 최적 생산량 수준 결정(①), 이윤을 높이기 위한 생산량 조절(③),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 결정(⑤)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드러나지만, ④에 제시된 독점기업의 단위당 이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단위당 이윤은 결국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얻게 되는 수입이므로 한계수입이라 할 수 있다.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을 글에서 바로 찾을 수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선택지에 제시된 개념이 무엇인지, 글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4 세부 정보 추론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제품의 시장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하는데, 시장가격의 상승으로 한계비용보다 지불 용의가 낮은 수요자들은 소비를 포기하여 소비 감소(Ⓑ)가 일어난다. 따라서 상호 이득이 될 수 있었던 거래의 기회는 줄게 되고, 이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에서는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 진입 제한을 막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5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6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사업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비록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례 2]에서 C사와 D사가 실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입찰 담합이 있었으면,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사례 1]에서 A사는 반도체 판매 1위라는 자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인 B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방해 남용) ② [사례 1]에서 A사가 B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 PC 제조업체들과 합의한 것은 배타조건부 거래(다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 **6**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서는 명시적인 합의와 묵시적인 합의 모두 경쟁 제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⑤ **4**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서는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이로 인해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 이를 규제하는 폐해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6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어떤 일에 대한 방책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정한 태도를 가지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①의 '취하다'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의 뜻인 반면, ②의 '나누다'는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 따위를 함께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는 '어떤 사정이나 사실, 현상 따위를 나타내 보이다.'의 뜻인 반면, ③의 '말하다'는 '평하거나 논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는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해지거나 이름이 붙여지다.'의 뜻인 반면, ④의 '불리다'는 '이름이나 명단이 소리 내어 읽히며 대상이 확인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는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의 뜻인 반면, ⑤의 '이루어지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7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6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은 동일업종의 복수 사업자가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입찰 내용 등을 합의하여 형성하는 독과점 형태이다. 그런데 ②는 유료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의 회원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파일을 올린 경우로, 사이트의 회원들은 동일업종의 복수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②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사업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종류와 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ㅁ)에 해당한다. ③ 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 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ㄷ)에 해당한다. ④ 사업자들이 상품·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ㄱ)에 해당한다. ⑤ 사업자들이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그러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ㅂ)에 해당한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다.'의 뜻으로, '의사나 의견을 같이하다.'라는 의미의 '동의(同意)하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해결(解決)하다'는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하다.'의 뜻이므로, ㉮와 바꾸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는 '물건 따위가 매매되다.'의 뜻이므로, '물건이 팔리고 구매되다.'라는 의미의 '매매(賣買)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는 '현실에 실재하다.'의 뜻이므로, '실제로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실재(實在)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다.'의 뜻이므로, '따로 떼어 내어 한데 헤아리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의 '제외(除外)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다.'의 뜻이므로,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다.'라는 의미의 '증명(證明)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0 ② 관자 / 율곡의 군주론

• 본문 177~181쪽

1 ② 2 ④ 3 ④ 4 ⑤ 5 ④ 6 ③
7 ④ 8 ⑤

독해 PoinT 1 실리적 2 부강한 나라의 실현 3 법 4 ○
5 도덕적 6 ① 왕도 ② 패도 7 × 8 경제적

지문 한눈에 보기

(가) 1: 국가 통치 방법에 대한 관중의 생각	관중은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대처하고 정치적인 (①)을 적극적으로 막아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함.
2: 군주의 법 제정을 강조한 관중	군주 –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하여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②)을 만들어야 함. → 백성의 윤택한 삶은 도덕적 교화가 아닌,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임.
3: 군주의 법 존중을 강조한 관중	(③) –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 이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함. ∵ 군주의 법 존중은 백성의 군주 존중으로 이어짐.
4: 관중의 사상의 의의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④)을 통한 통치를 도모함.
(나) 5: 율곡이 제시한 군주상	군주의 자격: 개인의 (⑤)을 통해 앎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 →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백성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해짐.
6: 군주의 유형 ① – 치세를 만드는 군주	특징: •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일을 분배할 줄 앎. • 재능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현명한 신하를 분별하여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길 줄 앎. 통치 방법: • 왕도: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 냄. • 패도: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백성의 (⑥) 안정은 이루어 냄.
7: 군주의 유형 ② – 난세를 만드는 군주	특징: •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신하를 불신함. • (⑦)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눈과 귀가 가려짐. – 폭군, 혼군, 용군으로 분류됨. 통치 방법: 무도: 포악한 정치 → 무도를 행하는 군주는 교체되어야 함.
8: 율곡의 사상의 의의	(⑧)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함.

정답 ① 분열 ② 법 ③ 패 ④ 법 ⑤ 수양 ⑥ 경제적 ⑦ 간신 ⑧ 왕도정치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가)는 관중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담긴 내용(1~3)을 중심으로, 관중의 사상이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4). 또한 (나)는 율곡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담긴 내용(5~7)을 중심으로, 율곡의 사상이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8).

오답 해설 ① (가)는 관중의 사상을, (나)는 율곡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각각의 통치술의 변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관중과 율곡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의 한계를 드러내거나 새로운 통치술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④ (가)가 아닌 (나)에서 율곡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을 군주의 유형(치세를 만드는 군주 / 난세를 만드는 군주)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관중과 율곡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세부 정보 추론

3의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패(霸)'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군주는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때 군주가 패를 실천해야 백성이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에서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패는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2에 따르면,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이다. 즉, 군주가 법을 존중해야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다. ③, ⑤ 2에 따르면, 군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하여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법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에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며, 법을 만들 때 먼저 백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3 세부 정보 이해

8을 통해,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율곡의 입장에서는 백성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해야 도덕적 교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다.

오답 해설 ① 5를 통해, 율곡은 '개인의 수양을 통해 앎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군주의 자격으로 보았'고,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백성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율곡은 군주가 앎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앎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② 5를 통해, 율곡은 '만약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으면 교체될 수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율곡은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교체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③ 8에 따르면, 율곡은 '왕도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율곡은 군주가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백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⑤ 8을 통해, 율곡이 '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역설'했음을 알 수 있다.

4 다른 관점의 적용

[A]에 언급된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일을 분배'하는 것은 치세를 만드는 군주임을 알 수 있는데, 4에서 군주는 '패업을 위한 통치'의 방법으로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함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 언급된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는 간신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난세를 만드는 군주로, (가)의 관점에서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군주는 패업을 위한 통치를 펼칠 수 없다. ② [A]에 언급된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군주는 백성을 괴롭히는 폭군으로, 충언의 수용과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A]에 언급된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는 군주는 난세를 만드는 군주로,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없다. ④ [A]에 언급된 '나약하여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군주는 용군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패와는 관련이 없다.

5 다른 관점과의 비교

6을 통해,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 태평한 시대인 치세와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가 구분'되는데, 이들의 통치 방법은 왕도와 패도이고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 내는 것',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이루어 내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율곡은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가 아닌 군주의 통치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구분된다고 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 '권력을 얻은 후에는 법을 통해 통치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4에서 관중이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한 것에서 그 역시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최다 선택 오답〉** ㉯가 '법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3과 4에서 관중은 '군주는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고 보고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인 권세가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 '군주는 도덕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백성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라고 한 것에서, 백성의 경제적 안정의 목적이 도덕성 회복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에서 관중이 '백성의 윤택한 삶은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것에서, 관중이 생각하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의 목적이 도덕성 회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중은 ㉰와는 다른 입장임을 알 수 있다. ⑤ ㉱가 '인간의 선한 본성인 도덕성'이라고 한 것에서, 백성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5에서 율곡이 '백성의 선한 본성'이라고 한 것에서, 그 역시 백성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 ②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②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3에서 군주도 법의 적용을 받고 패를 실천해야 백성이 군주의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는 내용을 확대 해석했기 때문이다. 즉, 백성이 인정하지 않으면 군주가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4에서 군주는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므로, 관중의 입장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군주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답을 찾을 때는 반드시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해서 판단해야 함을 명심한다.

6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는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의 뜻이다. '바로잡아 고침.'은 '수정'의 의미이다.

7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6에서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일을 분배할 줄 안다고 했으므로, B국 군주는 치세를 만드는 군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율곡은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하였다. 법의 제정을 강조한 사람은 율

곡이 아닌 관중이다.

오답 해설 ① 2의 '그(관중)에 따르면,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② 4의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에서 알 수 있다. ③ 8의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에서 알 수 있다. ⑤ 관중은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강조하였으므로, A국 군주의 행동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또한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정치를 위해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B국 군주의 행동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의 뜻이므로, '가지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는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리다.'의 뜻이므로,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의 일을 보살펴 관리하고 통제하다.'라는 의미의 '다스리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의 뜻이므로,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헤아리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는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바뀌어 대체되다.'의 뜻이므로,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거나 대신하게 되다.'라는 의미의 '바뀌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쓸 사람을 뽑다.'의 뜻이므로,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내다.'라는 의미의 '뽑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0 ③ 방사광과학입문 • 본문 182~185쪽

1 ⑤ 2 ② 3 ③ 4 ⑤ 5 ⑤ 6 ② 7 ②

독해 PoinT 1 방사광 2 ○ 3 방사광가속기 4 × 5 X선 빌라인

지문 한눈에 보기

1: 방사광의 개념

방사광: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
→ 미세한 물질의 (①)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함.

2: 방사광의 특성

-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을 가짐.
- 파장 가변성(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지님.
- 휘도(빛의 집중 정도)가 높음. – 빛의 (②)가 클수록, 빛의 (③)이 작을수록 높은 휘도 값을 가짐.

3: 방사광가속기에서 방사광을 만드는 과정 ① – 전자입사장치

전자입사장치의 구성 요소: 전자총, 선형가속기

전자총	광전효과(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됨.)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킴. – 전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높은 에너지를 가지지 못함.
선형가속기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양극 쪽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하여 전자를 가속시킴. – (④)의 속도에 근접하게 된 전자가 저장링으로 보내짐.

4: 방사광가속기에서 방사광을 만드는 과정 ② – 저장링

전자링의 구성 요소: 휨전자석, 삽입장치, 고주파 공동장치
– n각형 모양으로 설계 → n개의 직선 부분과 n개의 모서리 부분으로 이루어짐.

휨전자석	• 저장링의 (⑤)에 따라 개수가 달라짐. • 전자의 방향 조절 – 전자가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의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사광이 방출됨.
삽입장치	전자는 삽입장치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N극과 S극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며 구불구불하게 움직임. →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뀔 때마다 방사광이 방출됨.
고주파 공동장치	휨전자석과 삽입장치를 통과하며 방사광을 방출하여 에너지를 잃은 전자에 에너지를 보충하여 전자가 계속 궤도를 돌게 함.

5: 방사광가속기에서 방사광을 만드는 과정 ③ – 빌라인

개념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
종류	• 진공 자외선 빌라인: 기체 상태의 물질의 구조나 고체 표면에서의 물질의 구조 등에 관한 실험들이 이루어짐. • X선 빌라인: 물질의 내부 구조, 원자 배열 등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짐. – X선 현미경: 최대 15 나노미터 정도 되는 생체 조직 등과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까지 확대하여 관찰함. /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⑥)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특수 금속 렌즈를 이용해 X선을 실험에 활용함.

정답 ① 내부 ② 세기 ③ 퍼짐 ④ 빛 ⑤ 모양 ⑥ 굴절

1 세부 정보 이해

3에 따르면, 전자총은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효과를 활용하여 전자를 방출시킨다.

오답 해설 ① 5의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로, 크게 진공 자외선 빔라인과 X선 빔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4에서, 저장링은 n각형 모양으로 설계하여 n개의 직선 부분과 n개의 모서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휨전자석은 이러한 저장링의 모서리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n의 값이 얼마이냐에 따라, 즉 저장링의 모양이 어떠하냐에 따라 휨전자석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③ 2에서 빛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는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빛의 퍼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값을 갖는다고 했으므로, 빛의 세기와 퍼짐에 따라 빛의 집중 정도인 휘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④ 3의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양극 쪽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의 원리'에서 알 수 있다.

2 핵심 정보 이해

3에서, 방사광은 방사광가속기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방사광가속기 전자입사장치의 선형가속기에서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양극 쪽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하여 전자를 가속시킨다고 했으므로, 방사광가속기에서 가속시키는 것은 전자기파인 방사광이 아니라 전자이다.

오답 해설 ① 2의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에서 알 수 있다. ③ 3의 '방사광은 자연에서는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고성능 슈퍼 현미경이라고도 불리는 방사광가속기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2에서, 방사광은 휘도가 높은 빛으로, 방사광에서 실험을 위해 선택된 X선은 기존에 쓰던 X선보다 휘도가 수만 배 이상이라 이를 활용하여 물질의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⑤ 1의 '방사광이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를 가리킨다.'에서 알 수 있다.

3 세부 정보 이해

4의 '삽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광은, 휨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더 밝은 방사광이 된다.'를 통해, ⓓ에서 방출된 방사광이 ⓒ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더 밝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3의 '전자총은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효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킨다.'와 '방출되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높은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므로, 선형가속기에서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양극 쪽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하여 전자를 가속시킨다. 선형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된 전자는 이후 저장링으로 보내진다.'에서 알 수 있다. ② 4의 '저장링의 모서리 부분에는 전자의 방향을 조절해 주는 휨전자석을 설치하여 전자가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는 휨전자석을 지나면서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 휘게 되는데,'에서 알 수 있다. ④ 4의 '휨전자석과 삽입장치를 통과하며 방사광을 방출한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고주파 공동장치는 이러한 전자에 에너지를 보충하여 전자가 계속 궤도를 돌게 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⑤ 5의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광에서 원하는 과정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에서 알 수 있다.

4 다른 대상과의 비교

〈보기〉에서,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굴절시킨다고 했는데, 1에서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이 길다고 했다. 한편, 5에서 ㉠(X선 현미경)을 포함하는 X선 빔라인에서는 다른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을 가진 X선의 특성을 이용한다고 했다. 즉, ㉠은 ㉡에서 사용하는 가시광선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을 가진 X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질을 관찰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5에서 ㉠은 물질의 내부 구조까지도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고 했으며, 〈보기〉에서 ㉡은 물질의 표면을 확대한다고 했으므로, ㉡이 아닌 ㉠을 활용하여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② 5에서 ㉠은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굴절시킨다고 했으며, 〈보기〉에서 ㉡은 가시광선을 굴절시킨다고 했으므로, ㉠과 ㉡ 모두 빛이 굴절하는 성질을 이용함을 알 수 있다. ③ 5에서 ㉠은 특수 금속 렌즈를 이용한다고 했으며, 〈보기〉에서 ㉡은 유리 렌즈를 이용한다고 했다. 즉, ㉠이 아닌 ㉡이 유리 렌즈를 활용한다. ④ 〈보기〉에서 ㉡은 가시광선을 굴절시킨다고 했는데, 1에서 가시광선 영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에서 사용하는 빛의 영역은 X선이므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의 영역을 이용하는 것은 ㉡이 아닌 ㉠이다.

5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의 뜻으로, ⑤의 '지니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 ② 어떠한 일 따위를 맡아 가지다. ③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다. ④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 두다.

6 세부 정보 이해

3에 따르면, ㄴ에서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양극 쪽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하여 전자를 가속시킨다.

오답 해설 ① 3의 '전자총은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효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킨다.'에서 알 수 있다. ③ 4의 '저장링의 모서리 부분에는 전자의 방향을 조절해 주는 휨전자석을 설치하여 전자가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④ 4의 '전자는 삽입장치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N극과 S극의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며 구불구불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에서 알 수 있다. ⑤ 4의 '휨전자석과 삽입장치를 통과하며 방사광을 방출한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고주파 공동장치는 이러한 전자에 에너지를 보충하여 전자가 계속 궤도를 돌게 한다.'에서 알 수 있다.

7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일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체에 걸치는 것'의 뜻인 반면, ②의 '일반적'은 '전문(專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의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③ ㉯: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것 ④ ㉰: 서로 맞서거나 비교되는 관계에 있는 것 ⑤ ㉱: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진행하거나 나타나는 것

10강 어휘 테스트

• 본문 186~187쪽

01 ① 02 ① 03 ②
04 이전 05 의향 06 불합리하게
07 덜기 08 뽑아야 09 맡기지
10 빼어나 11 범위 12 가까워지게
13 똑같은 14 독점적 15 통상적
16 천부적 17 동질적 18 윤택
19 교화 20 도모한 21 수양
22 파장 23 발생한다 24 분리
25 ㉡ 26 ㉠ 27 ㉢
28 ① 29 ④ 30 ①

04 '종전'은 '지금보다 이전'의 뜻으로, '이제보다 전'을 의미하는 '이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사전: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

05 '용의'는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또는 그 마음'의 뜻으로,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을 의미하는 '의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의견: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06 '부당하다'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의 뜻으로,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불합리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07 '경감하다'는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덜어서 가볍게 하다.'의 뜻으로, '그러한 행위나 상태를 적게 하다.'를 의미하는 '덜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찾다: 어떤 것을 구하다.

08 '등용하다'는 '인재를 뽑아서 쓰다.'의 뜻으로,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내다.'를 의미하는 '뽑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쓰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다.

09 '위임하다'는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기다.'의 뜻으로,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게 하다.'를 의미하는 '맡기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전가하다: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우다.

10 '출중하다'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지다.'의 뜻으로, '여럿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뛰어나다.'를 의미하는 '빼어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빼곡하다: 사람이나 물건이 어떤 공간에 빈틈없이 꽉 찬 상태에 있다.

11 '영역'은 '활동, 기능, 효과, 관심 따위가 미치는 일정한 범위'의 뜻으로,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을 의미하는 '범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개념: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12 '근접하다'는 '가까이 접근하다.'의 뜻으로, '어떤 수치에 근접하다.'를 의미하는 '가깝다'를 활용한 '가까워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유사하다: 서로 비슷하다.

13 '동일하다'는 '어떤 것과 비교하여 똑같다.'의 뜻으로, '모양, 성질, 분량 따위가 조금도 다른 데가 없다.'를 의미하는 '똑같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똑바르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곧다.

14 독점적: 물건이나 자리 따위를 독차지하는 것

15 통상적: 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로운 것

16 천부적: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

17 동질적: 성질이 같은 것

오답 해설 이질적: 성질이 다른 것

18 윤택: 살림이 풍부함.

오답 해설 윤활: 기름기나 물기가 있어 뻑뻑하지 아니하고 매끄러움.

19 교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

오답 해설 교양: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20 도모하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오답 해설 도발하다: 남을 집적거려 일이 일어나게 하다.

21 수양: 몸과 마음을 갈고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림.

오답 해설 수절: 절의를 지킴.

22 파장: 파동에서, 같은 위상을 가진 서로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

오답 해설 파동: 공간의 한 점에 생긴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가 차츰 둘레에 퍼져 가는 현상

23 발생하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

오답 해설 발동하다: 움직이거나 작용하기 시작하다.

24 분리: 서로 나뉘어 떨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오답 해설 분장: 일이나 임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함.

28 〈보기〉의 '운동하다'는 '물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공간적 위치를 바꾸다.'의 뜻으로, ①의 '운동하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④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다. ③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다. ⑤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신체의 기량이나 기술을 겨루다.

29 〈보기〉의 '줄이다'는 '수나 분량을 본디보다 적게 하거나 무게를 덜 나가게 하다.'의 뜻이다. 반면, ④의 '줄이다'는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작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0 〈보기〉의 '강력하다'는 '힘이나 영향이 강하다.'의 뜻이다. 반면, ①의 '강력하다'는 '가능성이 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1 ① 정념 / 도덕형이상학 정초

• 본문 188~192쪽

1 ② 2 ④ 3 ⑤ 4 ③ 5 ② 6 ② 7 ② 8 ③

독해 PoinT 1 ○ 2 수동적, 능동적 3 정념 4 × 5 의무 6 실천적

지문 한눈에 보기

(가) 1: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을 사랑이라고 본 아퀴나스

- 인간: (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
- 사랑: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

→ 선: 자신에게 즐은 것 –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

2: 인간의 욕구를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한 아퀴나스

(②) 욕구	(③) 욕구
• 추구 행위 –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 감각적 인식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된 것을 추구함.	• 추구 행위 – 지성의 능동적 활동과 주체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보다 적극적인 것 •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함.

3: 선을 향한 욕구와 사랑을 연결 지어 설명한 아퀴나스

정념: (④)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

–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으며, 선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여러 정념이 비롯됨.

(나) 4: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을 구별한 칸트

감성적 차원의 사랑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
실천적 차원의 사랑	의무로서의 사랑

→ 칸트는 (⑤) 차원의 사랑에 더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함.

5: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본 칸트

- 인간: 도덕법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선의지(선을 지향하는 의지로, 그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한 것)를 지닌 존재
- 의무: 도덕법칙에 대한 (⑥)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

→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봄.

6: 실천적 차원의 사랑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 칸트

실천적 차원의 사랑

- 어떤 경향성과도 무관하거나 심지어 경향성을 거스르지만,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무로서의 사랑
- 보편적인 도덕법칙으로 명령될 수 있음.
- 모든 인간이 갖는 서로에 대한 (⑦)

정답 ① 선 ② 감각적 ③ 지적 ④ 감각적 ⑤ 실천적 ⑥ 존경심 ⑦ 의무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가)는 1에서 '선'의 개념(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나)는 5에서 '선의지'의 개념(선을 지향하는 의지로 그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한 것)을 정의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가), (나)는 모두 사랑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객관적 입장에서 소개하는 글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①), 이론의 장단점 비교(③), 관점의 절충(④), 논리적 오류 지적(⑤)'과 같은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2 핵심 개념 이해

3에서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다.'라고 했으므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2에서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이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였다. ② 1에서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라고 하였다. ⑤ 3에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칭'했다고 하였다.

3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칸트에 따르면,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4)이고,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6)이다. 그런데 갑이 이성인 을에게 첫눈에 반해 다가간 것은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려 행동한 것이지 의무에서 비롯되어 행동한 것이 아니므로,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2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갑이 카레 냄새를 맡고 카레가 먹고 싶어진 것은 카레 냄새라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② 2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선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카레가 먹고 싶어졌지만, 봉사 활동에 늦지 않기 위해 먹지 않기로 한 갑의 결정은, 지성에 의해 카레를 먹는 것을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3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이는 '다른 것보다 더 선이라고 이해된 것을 우선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갑이 생수를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와 케이크를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동시에 일어났지만 생수를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를 먼저 선택한 것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더 선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4와 6에 따르면,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같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으로, 이는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갑이 이성인 을의 미소에 첫눈에 반한 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 해당하므로,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4 세부 정보 이해

1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며, '선이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5에 따르면, 칸트는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가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고 보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최다 선택 오답〉** 2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에 따르면, 칸트는 '인간은 도덕법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선의지를 지닌 존재'이고 '선의지란 선을 지향하는 의지로 그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는 인간에게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3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다고 보았다. 또한 6에 따르면,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의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④ 3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으며, '사랑이 선을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사랑을 욕구와의 관계에 따라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4에 따르면,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다르다'면서 사랑을 감성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⑤ 3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고 보았다. 한편 5에 따르면, 칸트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칙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칙의 존재를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 ①이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①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퀴나스에 관한 선택지의 내용을 글에서 즉각적으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①의 뒷부분인 칸트에 관한 내용은 5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앞부분인 아퀴나스에 관한 내용은 글에 선택지의 내용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헷갈렸을 것이다. 세부 정보를 이해하는 선택지에는 항상 글에 제시된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가 글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 ⓑ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②가 적절하게 쓰인 예이다.

오답 해설 ① '뒤를 따랐다'의 '따르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 '그를 따를'의 '따르다':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 ③ '개발에 따른'의 '따르다':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 / '아버지를 따른다'의 '따르다':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좇다. ④ '솜씨를 따를'의 '따르다':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 / '유행을 따라서'의 '따르다':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 ⑤ '목적에 따라서'의 '따르다':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 / '강을 따라'의 '따르다': 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아 움직이다.

6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2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선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삼겹살이 먹고 싶어졌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과식을 피하기 위해 삼겹살을 먹지 않기로 한 갑의 결정은, 지성에 의해 삼겹살을 먹는 것을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갑이 삼겹살 냄새를 맡고 삼겹살이 먹고 싶어진 것은 삼겹살 냄새라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③ 칸트에 따르면, 도덕법칙은 이성이 인간에게 의무로 부여한 것으로,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중동적으로 서점에 들어간 갑의 행동을 도덕법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④ 남성인 갑이 여성인 을로 인해 마음이 설렌 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 해당한다. 칸트에 따르면 남녀 간의 사랑은 감성적 차원의 사랑이다. ⑤ 갑이 이성인 을에게 마음이 설레어 말을 건 것은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려 행동한 것이므로, 의무로서의 사랑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세부 정보 이해

인간을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로 본 것은 아퀴나스이고, 도덕법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본 것은 칸트이다.

오답 해설 ① 1의 '(아퀴나스는)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 말한다.'와 6의 '칸트의 관점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기 때문에,'에서 알 수 있다. ③ 2의 '감각적 욕구는 감각적 인식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된 것을 추구하는 반면,'과 6의 '칸트의 관점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기 때문에,'에서 알 수 있다. ④ 3의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와 4의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보다는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더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⑤ 1의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 말한다.', 2의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와 4의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다르다고 설명한다.'에서 알 수 있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③은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라는 뜻의 '틀리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틀리다'가 아니라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다르다'를 써야 한다.

11 ② 계몽의 변증법 / 표현주의

• 본문 193~197쪽

1 ③ 2 ② 3 ② 4 ③ 5 ④ 6 ②
7 ① 8 ③

독해 PoinT 1 비판적 2 ① 자연에 대한 지배 ② 인간에 대한 지배 ③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3 도구적 4 ○ 5 계몽 6 표현주의 7 × 8 ○ 9 추상

지문 한눈에 보기

(가) 1: 계몽주의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적 입장	계몽주의: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하여 합리적 (①)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 – 아도르노: 계몽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임.
2: 계몽의 단계 ① –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하는 것 – 근대 (②) 혁명을 바탕으로 자연을 지배함.
3: 계몽의 단계 ② – 인간에 대한 지배	이성이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됨. – 개인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함. → 사회는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③)적 경향을 띠게 됨.
4: 계몽의 단계 ③ –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내적 자연: 감정이나 욕망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 – (④)이며,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로 여겨짐. →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로 귀결됨.
5: 근대 문명의 파국의 원인을 계몽에서 찾은 아도르노	근대 문명 파국의 원인: 계몽의 전개 과정 – 인간의 자기 (⑤)에서 시작되어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
(나) 6: 근대 이성을 비판하며 등장한 표현주의	표현주의의 등장 배경: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를 경험함. → 표현주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이 사회·정치적 긴장 상태에 항거하며,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⑥)를 통해 분출함.
7: 표현주의의 개념	표현주의: '(⑦)을 표현한다.' –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닌,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 등을 표현하려 함. →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함.
8: 표현주의의 특징	•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둠. →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남. •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을 포착함. → 과장되고 거친 붓놀림이 나타남. ⇒ 전쟁 이후 사회의 (⑧)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화폭에 담아냄.
9: 표현주의의 의의	도외시되어 온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 함. –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⑨)까지 확장시킴. → 선이나 형, 색 등의 조형 요소를 통해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 추상 미술 등장의 기반이 됨.

정답 ① 이성 ② 과학 ③ 전체주의 ④ 비합리적 ⑤ 보존 ⑥ 회화 ⑦ 감정 ⑧ 불안감 ⑨ 내면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가)는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근대 사회의 폭력성과 비합리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아도르노의 주장을, (나)는 근대 이성에 대한 맹신을 비판하며 등장한 표현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게 된 계몽주의의 문제점을, (나)는 근대 이성의 맹신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있을 뿐,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상반된 관점의 두 이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에 대한 내용은 (가)에만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어 가기 위한 노력은 (가)와 (나)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인용된 말의 의도 이해

㉠에서 '야만의 싹'은, 이성이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됨에 따라 인간이 인간을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따라서 ㉠은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 것은 아니며, 이 과정에서 이성의 힘이 약화된 것도 아니다. ④ 인간이 인간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집단적 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자료에의 적용

〈보기〉의 '세이렌의 일화'에서, 인간을 유혹해서 제물로 삼는 세이렌은 인간을 위협하는 거대한 자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세이렌의 제물이 되지 않고 무사히 섬을 지난 것은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섬을 무사히 지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감각을 상실시키고 오로지 노를 젓게 만든 결과, 부하들이 자율성과 비판적 능력을 상실한 채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는 인간에 대한 지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은 것은 노랫소리에 이끌리는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스스로 억압한 것이므로, Ⓑ는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 세부 정보 이해

7에서 마티스는,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그가 주장한 표현의 의미가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6의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를 경험한 유럽인들은,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6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사회·정치적 긴장 상태에 항거하며,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예술 운동을 표현주의라고 부른다.'에서 알 수 있다. ④ 9의 '(표현주의는)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에서 알 수 있다. ⑤ 7의 '이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5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7과 8에 따르면, 표현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는 사실주의 회화의 전통을 거부하고, 대상의 색이나 형태를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작가의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작품이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의 전통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감상자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작품에서 나타내려고 한 감정은 작가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이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이는 근대 이성에 의해 억압되어 온 인간의 감정, 즉 내적 자연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아도르노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계몽이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면서, 인간은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 소외로 인한 불안과 절망을 감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기〉의 작품에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했던 불안과 고통은 이성이 팽배했던 근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③ 표현주의는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상의 형태를 왜곡하여 나타낸다. 〈보기〉의 작품에서 남자의 얼굴이 해골의 형상을 한 것이나 강물이 꿈틀거리는 모습은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된 채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작품에서 강물의 검은색은 실제 색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느끼는 고통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는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칭'을 뜻한다.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의 의미를 지닌 것은 '규명'이다.

7 내용 전개 방식 이해

9의 '표현주의는 도외시되어 온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를 통해 표현주의의 의의를 알 수 있지만, (가)에서는 아도르노의 입장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는 계몽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아도르노의 생각을 중심으로, (나)는 표현주의의 등장 배경, 표현주의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③ (가)는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을 통해 계몽주의의 폐해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나)는 근대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가 나타났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는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징후만이 빛나고 있다.",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라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나)는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라는 마티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⑤ (가)는 계몽주의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적 입장을, (나)는 근대 이성에 대한 표현주의의 비판적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생각이나 감정 따위를 마음속에 가지게 하다.'의 뜻으로, ③의 '안기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두 팔로 감싸게 하거나 그렇게 하여 품 안에 있게 하다. ② 두 팔을 벌린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지거나 그렇게 되어 품 안에 있게 되다. ④ 손해나 빚 또는 책임을 맡게 하다. ⑤ 당하게 하거나 들씌우다.

11 ③ 지역난방 기초공학 및 에너지기술 실무교육

• 본문 198~201쪽

1 ⑤ 2 ⑤ 3 ③ 4 ① 5 ① 6 ③ 7 ⑤

독해 PoinT 1 상변화 2 × 3 녹는점 4 ① 이동한 물의 현열 ② 상변화 물질의 현열 ③ 상변화 물질의 잠열 5 ○

지문 한눈에 보기

1: 지역난방의 개념과 열 수송 방식

개념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된 열을 회수하여 인근 지역의 난방에 활용하는 것
열 수송 방식	회수된 열로 데워진 물을, (①)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공급함으로써 열을 수송함. → 근래에는 열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변화 물질 활용 방식을 개발함.

2: 상변화의 개념과 잠열의 특징

- 상변화: 주변의 온도나 압력 변화에 의해 어떤 물질이 이전과 다른 상태(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것
  → 상변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온도의 변화가 없음.
- 잠열

개념	• 상변화에 사용된 열 • 물질의 온도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숨어 있는 열
특징	• 물질마다 그 크기가 다름. • 고체 → 액체 / 액체 → 기체 / 고체 → 기체: 잠열 흡수 ⇒ 반대의 경우에는 잠열 (②)

- 현열: 온도 변화로 나타나는 열

3: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과정과 원리 ①

열병합 발전소의 열교환기	발전에 사용되고 회수된 수증기가 열 수송에 사용되는 물에 열을 전달하여 물을 데움. – 캡슐에 들어 있는 고체였던 상변화 물질이 (③)로 상변화하면서 열을 흡수함.
↓	
온수 공급관	액체가 된 상변화 물질이 섞인 물이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교환기로 이동함. → 이동하는 물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함.

4: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과정과 원리 ②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교환기	• 이동한 물의 현열+상변화 물질의 현열: 열을 방출하며 온도가 내려감. → 찬물을 데움. • 상변화 물질의 잠열: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하면서 잠열을 방출함. → 찬물을 데움.
↓	
각 세대의 난방기	데워진 물이 공급되어 세대 난방에 사용됨.
↓	
온수 회수관	상변화 물질 캡슐이 든 물이 다시 (④)로 회수되어 재사용됨.

5: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방식의 장점과 한계

장점	현열과 잠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온수 공급관을 통해 보내는 물의 온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어 열 수송의 (⑤)이 개선됨.
한계	캡슐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캡슐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정답 ① 배관 ② 방출 ③ 액체 ④ 발전소 ⑤ 효율성

1 세부 정보 이해

5에서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방식을 사용하면 현열만 사용하던 기존의 열 수송 방식과 달리 현열과 잠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온수 공급관을 통해 보내는 물의 온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어 열 수송의 효율성이 개선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온수 공급관으로 보내는 물의 온도를 기존 방식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2에서, 상변화란 '주변의 온도나 압력 변화에 의해 어떤 물질이 이전과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② 1에서,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된 열을 회수하여 인근 지역의 난방에 활용'한다고 하였다. ③ 5에서, '캡슐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캡슐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였다. ④ 1의 '열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의 '열 수송의 효율성이 개선된다.'에서 알 수 있다.

2 핵심 개념의 특성 이해

2의 '비커 속 얼음이 모두 물로 변할 때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0℃를 유지하는데, 이는 비커에 가해진 열이 물질의 온도 변화가 아닌 상변화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로 보아, 상변화가 일어나는(잠열이 사용되는) 동안에는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변화하고 있는 물질의 현열은 변화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2에서 '잠열은 물질마다 그 크기가 다르'다고 하였다. ②, ③ 2에서 잠열은 '물질의 온도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숨어 있는 열'이라고 하였다. ④ 2에서 '일반적으로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또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될 때에는 잠열을 흡수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잠열을 방출한다.'라고 하였다. 즉,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날 때 잠열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것이다.

3 도식을 통한 세부 정보 이해

3을 보면,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이동하는 물에 있는 상변화 물질은 데워진 물의 온도로 인해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한 상태이므로 액체이다. 또한 4를 보면, 온수 회수관(Ⓔ)을 통해 이동하는 물에 있는 상변화 물질은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교환기에서 찬물에 열을 전달하고 온도가 내려가서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한 상태이므로 고체이다.

오답 해설 ① 3을 보면, 열병합 발전소의 열교환기(Ⓐ)에서 '물이 데워져 물의 온도가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상이 되면 상변화 물질은 액체로 상변화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② 3을 보면, '액체가 된 상변화 물질이 섞인 물은 열교환기에서 나와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변화 물질이 고체로 상변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④ 4를 보면,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이동해 온 물의 현열과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현열, 그리고 상변화 물질의 잠열이 공동주택의 찬물을 데우는 데 모두 사용'되어 각 세대의 난방기(Ⓓ)로 공급된다고 하였다. ⑤ 4를 보면 '상변화 물질 캡슐이 든 물은 온수 회수관(Ⓔ)을 통해 다시 발전소(Ⓐ)로 회수되어 재사용된다.'라고 하였다.

4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 3에서, 상변화 물질이 든 '물이 데워져 물의 온도가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상이 되면 상변화 물질은 액체로 상변화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 2〉에서 상변화 물질이 든 벽의 온도가 녹는점인 15℃보다 높아지면 상변화 물질은 액체

로 상변화할 것이다. ㉣: 2에서,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또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될 때에는 잠열을 흡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한 〈보기 2〉의 상변화 물질은 잠열을 흡수할 것이다. ㉤: 2에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중에는 상변화 물질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 2〉에서 일어나는 상변화 중에도 상변화 물질의 온도는 유지될 것이다.

5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다.'의 뜻으로, ①의 '보내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시간이나 세월을 지나가게 하다. ③ 결혼을 시키다. ④ 상대편에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느끼어 알도록 표현하다. ⑤ 놓아주어 떠나게 하다.

6 도식을 통한 세부 정보 이해

3에 따르면, 온수 공급관(ㄴ)을 통해 열교환기로 이동하는 물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3에 따르면, 열병합 발전소의 열교환기(ㄱ)에서 상변화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한다. 또한 4에 따르면,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교환기(ㄷ)에서 상변화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한다. 즉, 상변화 물질에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은 ㄱ과 ㄷ이다. ② 3에서 액체가 된 상변화 물질이 섞인 물이 열교환기에서 나와 온수 공급관(ㄴ)을 통해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교환기로 이동한다고 했으므로, ㄴ에서 상변화 물질의 상태는 액체이다. 그리고 4에서 상변화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하면서 잠열을 방출하는데, 상변화 물질 캡슐이 든 물은 온수 회수관(ㅁ)을 통해 다시 발전소로 회수된다고 했으므로, ㅁ에서 상변화 물질의 상태는 고체이다. ④ 4에 따르면,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교환기(ㄷ)에서 찬물을 데우는 데에는 상변화 물질의 현열과 잠열뿐 아니라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이동해 온 물의 현열도 사용된다. ⑤ 4에 따르면, 각 세대의 난방기(ㄹ)에서 사용된 물은 온수 회수관(ㅁ)을 통해 다시 발전소로 회수되어 재사용된다.

7 어휘의 사전적·문맥적 의미 이해

⑤에는 '늘리다'가 아닌, '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다.'라는 뜻의 '늘이다'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④ 「6」 시간이나 기간을 길게 하다. ② 「1」 물체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커지게 하다. ③ 「3」 힘이나 기운, 세력 따위를 이전보다 큰 상태로 만들다.

11강 어휘 테스트

• 본문 202~203쪽

01 ①	02 ①	03 ①
04 일어나	05 끼어들	06 일컬었다
07 줄	08 보호	09 튼튼히
10 억눌러야만	11 폐단	12 맞섰다
13 제공	14 반응하는	15 수송한다
16 이동한	17 추구한다는	18 근거한
19 지향하는	20 전락했다	21 비극
22 재현하는	23 자의적	24 가열하면
25 ㉢	26 ㉡	27 ㉠
28 ②	29 ①	30 ③

04 '촉발되다'는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나다.'의 뜻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다.'를 의미하는 '일어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폭발하다: 속에 쌓여 있던 감정 따위가 일시에 세찬 기세로 나오다.

05 '개입하다'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다.'의 뜻으로, '자기 순서나 자리가 아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다.'를 의미하는 '끼어들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들어가다: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가다.

06 '칭하다'는 '무엇이라고 일컫다.'의 뜻으로, '이름 지어 부르다.'를 의미하는 '일컫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선언하다: 널리 펴서 말하다.

07 '선사하다'는 '존경, 친근, 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남에게 선물을 주다.'의 뜻으로,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를 의미하는 '주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나누다: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 따위를 함께하다.

08 '보존'은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의 뜻으로,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되게 함.'을 의미하는 '보호'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보증: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09 '공고히'는 '단단하고 튼튼하게'의 뜻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상태로'를 의미하는 '튼튼히'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뚜렷이: 엉클어지거나 흐리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10 '억압하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르다.'의 뜻으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다.'를 의미하는 '억누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무시하다: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하다.

11 '병폐'는 '병통과 폐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의 뜻으로,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의미하는 '폐단'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오판: 잘못 보거나 잘못 판단함. 또는 잘못된 판단

12 '항거하다'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반항하다.'의 뜻으로, '서로 굽히지 아니하고 마주 겨루어 버티다.'를 의미하는 '맞서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빠지다: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

13 '공급'은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함.'의 뜻이므로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을 의미하는 '제공'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제조: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을 만듦.

14 반응하다: 자극에 대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다.

15 수송하다: 기차나 자동차, 배, 항공기 따위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옮기다.

16 이동하다: 움직여 옮기다. 또는 움직여 자리를 바꾸다.

17 추구하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다.

오답 해설 추적하다: 사물의 자취를 더듬어 가다.

18 근거하다: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에 그 근본이 되다.

오답 해설 근접하다: 가까이 접근하다.

19 지향하다: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하다.

오답 해설 지양하다: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다.

20 전락하다: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지다.

오답 해설 폭락하다: 물건의 값이나 주가 따위가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다.

21 비극: 인생의 슬프고 애달픈 일을 당하여 불행한 경우를 이르는 말

오답 해설 비약: 논리나 사고방식 따위가 그 차례나 단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뛰어넘음.

22 재현하다: 다시 나타나다. 또는 다시 나타내다.

오답 해설 재연하다: 한 번 하였던 행위나 일을 다시 되풀이하다.

23 자의적: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

오답 해설 도의적: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가 있는 것

24 가열하다: 어떤 물질에 열을 가하다.

오답 해설 냉각하다: 식혀서 차게 하다.

28 〈보기〉의 '진보'는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의 뜻이다. 반면, ②의 '진보'는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9 〈보기〉의 '변질되다'는 '성질이 다른 어떠한 것으로 변하게 되다.'의 뜻이다. 반면, ①의 '변질되다'는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하게 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0 〈보기〉의 '원활하다'는 '거침이 없이 잘 나가는 상태에 있다.'의 뜻으로, ③의 '원활하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모난 데가 없고 원만하다.

12 ①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 심리학 / 분석심리학 이야기

• 본문 204~208쪽

1 ② 2 ⑤ 3 ④ 4 ⑤ 5 ② 6 ②
7 ⑤ 8 ④

독해 PoinT 1 ○ 2 ① 원초아 ② 자아 ③ 초자아 3 방어기제
4 부모 5 × 6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7 개별화

지문 한눈에 보기

(가) 1: 정신분석이론을 주장한 프로이트

분트의 실험심리학: 인간의 정신세계는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 실험을 통해 인간의 정신 현상과 행동을 설명하려 함.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인간을 (①)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로 간주함.

2: 프로이트의 이론 ① (정신세계의 구성 요소)

원초아	•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 •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②) 정신 요소
자아	•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 존재 • 외적 상황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아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 요소
초자아	•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 존재 • 도덕률에 따라 원초아의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정신 요소 – 후천적으로 발달함.

3: 프로이트의 이론 ②(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 ①)

• 원조아, 자아, 조자아가 역동적으로 (③)하며 개인의 성격을 형성함.
– 자아: 원조아와 조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함.
⇒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정신 요소의 균형이 깨져 불안감이 생김. →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아는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억압, 승화 등)를 사용함.
•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느냐가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침.

4: 프로이트의 이론 ②(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 ②)와 프로이트의 이론의 의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줌.
→ 성인의 정신 질환 –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의 재현
∴ 정신 질환의 치유를 위해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④)의 세계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함.
⇒ 의의: 기존의 이론에서 간과한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 이해에 대한 지평을 넓힘.

(나) 5: 분석심리학을 주장한 융

융의 분석심리학: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반기를 듦.
→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⑤)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인 에너지의 샘으로 봄.

6: 융의 이론 ① (정신세계의 구성 요소)

정신세계의 가장 바깥쪽: 의식 → 그 안쪽: 개인 무의식 → 맨 안쪽: 집단 무의식

의식	자아(의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무의식과 교류하며 이를 조정함.)가 존재함.
개인 무의식	• 의식에 의해 배제된 생각이나 감정, 기억 등이 존재함. • (⑥)–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
집단 무의식	•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보편적인 무의식 •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의 경험이 원형의 형태로 존재함.

7: 융의 이론 ②(개별화)

개념	자아가 성찰을 통해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함. →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됨.
과정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임. – 자아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와 대면함. –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원형들을 발견함.

→ 자아가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⑦)를 찾아가는 과정 – 자아와 그림자, 여러 원형들이 대립에서 벗어나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면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
⇒ 개인은 내면의 성숙을 이루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됨.

정답 ① 무의식 ② 선천적 ③ 상호작용 ④ 의식 ⑤ 가능성
⑥ 그림자 ⑦ 자기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가)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 분트의 실험심리학과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무의식을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트와 달리,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인 에너지의 샘으로 해석한 융의 분석심리학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가)와 (나) 모두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과 융의 분석심리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거나 각각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인간의 정신 질환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과 (나)의 융의 분석심리학 모두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각각의 이론이 다른 학문 영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2 세부 정보 이해

3에 따르면, 자아는 정신 요소의 균형이 깨져 발생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와 구분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의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에서 알 수 있다. ② 1의 '그(프로이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로 간주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의 '원초아가 강할 때는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중동적인 성격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의 '원초아,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에서 알 수 있다.

3 구체적 자료에의 적용

4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성인의 정신 질환을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헤세의 우울증을 유년기에 느낀 불안감의 재현이라고 볼 것이다. 한편 7에 따르면, 융은 자아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그림자, 그리고 여러 원형들이 대립에서 벗어나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어 정신적 균형을 이루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헤세의 우울증은 정신적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2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초자아가 어린 시절 부모의 종교나 가치관 등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헤세의 엄격한 집안 분위기가 헤세의 초자아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것이다. ② 3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자아가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불안감이 생긴다고 보았다. 따라서 헤세의 불안감을, 타고난 자유분방한 기질에서 비롯한 원초아의 요구와 엄한 아버지의 교육으로 내재화된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자아가 이를 조정하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볼 것이다. ③ 3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예술과 같이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화라고 했으므로, 헤세의 창작 활동을 어린 시절 생겨난 불안감을 무의식적으로 해소하려는 승화에 해당하는 방어기제로 볼 것이다. 또한 5에 따르면, 융은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인 에너지의 샘으로 보았으므로, 헤세의 창작 활동을 무의식의 창조적 에너지가 발현되어 헤세의 잠재된 문학적 재능이 실현된 것으로 볼 것이다. ⑤ 7에 따르면,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보고 이를 개별화라 불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정신적 균형과 내면의 성숙을 이루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헤세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 것은, 성찰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4 관점의 공통점 이해

3에 따르면,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자아가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7에 따르면, 분석심리학에서는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통합되어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끊임없이 무의식과 상호작용하며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신분석이론과 분석심리학 모두 정신세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자아의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2에 따르면,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자아가 의식과 무의식에 걸쳐서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6에 따르면,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아가 의식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② 2에 따르면, 정신분석이론에서는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원초아가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다고 보았지만, 5에 따르면, 분석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 창조적인 에너지의 샘이라고 보았을 뿐 성적 에너지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③ 6에 따르면, 분석심리학에서는 집단 무의식에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의 경험이 원형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정신분석이론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6에 따르면, 분석심리학에서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그림자를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보았지만, 이를 열등한 자아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신분석이론에서 자아에 의해 억압된 열등한 자아가 무의식에 존재한다고 본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5 구절의 의미 이해

㉠의 바로 앞에서 ㉠은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자아가 성찰을 통해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인간이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되는 개별화가 ㉠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즉, ㉠은 자신의 근원적인 모습을 찾아 나가는 개별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의식의 확장을 통해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되어 가는 과정이므로, 타인과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은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면서, 즉 정신세계를 이루는 정신 요소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므로, 의식에 의해 발견된 무의식의 욕구가 억눌리는 과정으로 볼 수 없다. ④ 정체성의 실현은 무의식이 의식에서 분화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⑤ 과거의 경험들을 반복하는 것은 ㉠과 관련이 없다.

6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의 뜻이다.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돎.'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순환'이다.

7 세부 정보 이해

6에 따르면, 융은 자아는 의식(ㄱ)에 존재하며 그 안쪽으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ㄴ)이 순서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① 1에 따르면,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며, 프로이트가 인간에게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ㄴ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② 2와 3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ㄴ의 심연에 존재하는 원초아와, ㄴ에서 ㄱ에 걸쳐 존재하는 자아와 초자아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③ 4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성인의 정신 질환을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ㄴ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ㄱ의 세계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6과 7에 따르면, 융은 ㄱ에 존재하는 자아의 성찰을 통해 ㄴ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개별화라고 불렀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힘이나 기운이 솟아나게 하는 원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뜻인 반면, ④의 '샘'은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곳. 또는 그 물'의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 피해를 입은 은적 ② ㉯: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표시 ⑤ ㉱: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12 ② 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 본문 209~213쪽

1 ④ 2 ⑤ 3 ⑤ 4 ③ 5 ⑤ 6 ①
7 ④ 8 ⑤

독해 PoinT 1 창작성 2 × 3 2차적, 독립 4 ① 저작인격권 ② 저작재산권 5 2차적저작물 6 ○ 7 원저작자 8 ×

지문 한눈에 보기

(가) 1: 저작물의 개념과 요건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창작성(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①) 을 담아야 함.)이 있어야 함.
2: 2차적저작물의 개념과 요건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함. – 원저작물과 실질적 (②)을 유지해야 함. – 원저작물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함.
3: 2차적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	(③) 저작물: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음. (④) 저작물: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음.
(나) 4: 저작권의 종류와 특징	저작자 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 – 저작자만 가질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⑤)함.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 양도가 가능함.
5: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갖는 원저작자	원저작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짐. → 누군가 원저작자의 (⑥) 없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됨.
6: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⑦)로서 보호를 받음.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
7: 2차적저작물 작성 시 유의 사항	•원저작자에게 (⑧)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함.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양도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함.
8: 원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 기반의 또 다른 2차적저작물 제작 시 유의 사항	원저작자와 원저작물의 (⑨)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함.

정답 ① 개성 ② 유사성 ③ 2차적 ④ 독립 ⑤ 소멸 ⑥ 허락 ⑦ 저작물 ⑧ 원저작물 ⑨ 2차적저작물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6의 두 번째 문장('그런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후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3에서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2차적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을 구분하고 있다. ② 2에서는 소설과 영화의 예시를 활용하여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근대 소설, 소설과 영화의 예시를 활용하여 2차적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③ 4에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개념과 특징을 중심으로 둘의 차이점을 밝히며 구별하고 있다. ⑤ 1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근거하여 저작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5는 저작권법 제22조에 근거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세부 정보 이해

4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그리고 5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이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4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② 〈최다 선택 오답〉 4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또한 6에 따르면, 일단 2차적저작물이 만들어지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로 볼 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없는 사람이 2차적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적저작물의 창작자가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③ 2에 따르면, 근대 소설을 현대 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으로 2차적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④ 1에 따르면, 우연히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②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②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인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저작물의 저작권 전체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6에 따르면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외에도 저작인격권이 있다.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일 뿐이고, 2차적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만이 가지는 권리이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원저작자가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②는 헷갈리는 내용으로 교묘히 답인 척하는 오답이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하는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자.

3 세부 정보 이해

7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때에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즉 원작자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8에 따르면, ㉢(또 다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때에도 ㉠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오답 해설 ① 4에 따르면, 원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5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이다. 이로 볼 때 ㉠의 저작자와 ㉡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서로 다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② 2에 따르면, ㉡이 되려면 ㉠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 3

에 따르면, ㉡은 ㉠과 일반적으로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은 ㉢의 원저작물이며 ㉢은 ㉡의 2차적저작물이므로, ㉡과 ㉢ 역시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2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다. 8에 따르면, ㉢은 ㉡을, ㉡은 ㉠을 기반으로 창작되었으며, ㉢을 제작할 때는 ㉠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 ㉡의, ㉡은 ㉠의 2차적저작물이므로, ㉢은 ㉠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4 세부 정보 추론

㉮를 통해 저작권법에 의해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음을 알 수 있다. 1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2에서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2차적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이유는, 원저작물에 없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며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저작자에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있지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재산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창작한 것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관련이 없다. ④ 2차적저작물의 예술성이 원저작물보다 높다고 볼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이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지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5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5에 따르면, 누군가 원저작자 허락 없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보기〉에서 A는 기존 가요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B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 가요를 편곡하였으므로, B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그런데 C는 D가 작성한 한글 자막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맞지만, 이 한글 자막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B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았으나, D는 침해받은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4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인데, 6에 따르면,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기〉에서 A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은 2차적저작물로, 원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저작권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저작권은 B가 아닌 A가 가지고 있다. ② 7에 따르면, 원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기〉에서 D는 영어 자막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영어 자막을 번역하여 한글 자막을 작성하였으므로, 영어 자막의 저작자는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2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 〈보기〉에서 A는 기존 가요를 편곡하였고 D는 영어 자막을 번역하여 한글 자막을 작성하였으므로, 기존 가요와 영어 자막은 원저작물로 볼 수 있다. ④ **〈최다 선택 오답〉** 5에 따르면, 누군가 원저작자 허락 없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보기〉에서 C는 D가 작성한 한글 자막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맞지만, 이 한글 자막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A는 기존 가요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B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 가요를 편곡하였으므로, B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 ④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④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A뿐 아니라 C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기〉의 두 번째 사례에서 D가 영어 자막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한글 자막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사람은 C가 아니라 D이다. C는 2차적저작물인 D의

6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의 뜻으로, '분류(分類)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변별(辨別)하다: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리다. ③ 배분(配分)하다: 몫몫이 별러 나누다. ④ 판별(判別)하다: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구별하다. ⑤ 해석(解釋)하다: 문장이나 사물 따위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다.

7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B(만화)는 A(소설)를 기반으로 한 2차적저작물이고, C(만화 영화)는 B를 기반으로 한 2차적저작물이다. 3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B와 C 모두 A와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6~8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때 원저작자뿐만 아니라 원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 작성권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B를 만들 때는 A의, C를 만들 때는 A와 B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일 B와 C가 A의 저작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졌다면 A의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A의 저작자는 B와 C를 만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2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한다. 〈보기〉에서 A, B, C의 스토리는 유사하나 외면적 형식이 다르다고 했으므로, B는 A에 대한 C는 B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⑤ B에 새로 부가된 창작성은 그림이고, C에 새로 부가된 창작성은 영상화이다. 따라서 B와 C에 부가된 창작성의 유형은 서로 다르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는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의 뜻으로, ⑤의 '기반'도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는 '서로 비슷함.'의 뜻인 반면, ①의 '유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가 시작됨.'의 의미이다. ② Ⓑ는 '서류, 원고 따위를 만듦.'의 뜻인 반면, ②의 '작성'은 '운동 경기 따위에서, 기록에 남길 만한 일을 이루어 냄.'의 의미이다. ③ Ⓒ는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의 뜻인 반면, ③의 '여부'는 '틀리거나 의심할 여지'의 의미이다. ④ Ⓓ는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함.'의 뜻인 반면, ④의 '훼손'은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듦.'의 의미이다.

12 ③ 진화론도 진화한다 / 이타적 인간의 출현 • 본문 214~218쪽

1 ⑤ 2 ② 3 ② 4 ④ 5 ① 6 ②
7 ⑤ 8 ④

독해 PoinT 1 이기적, 이타적 2 × 3 ○ 4 ① 반복-상호성 가설 ② 집단 선택 가설 5 TFT 6 ×

지문 한눈에 보기

(가) 1: 자주 관찰되는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따르면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의 (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 → 자연계에서는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이 자주 관찰됨.
2: 해밀턴의 혈연 선택 가설	개체들의 이타적 행동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②)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임. **해밀턴의 법칙**: 'r×b−c>0'일 때 개체의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함. − r: 유전적 근연도. 이타적 행위자와 이의 수혜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 − b: 이타적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득 − c: 이타적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실
3: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론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③)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임.
(나) 4: 진화적 게임 이론	'반복-상호성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을 통해 사람들이 (④) 행동을 하는 이유 및 (⑤)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를 설명함.
5: 반복-상호성 가설	**TFT 전략**: 상대방이 협조할지 배신할지 모르고 선택이 매 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협조하고 그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사용한 방법을 모방하는 전략 →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이타적 행동을 함.
6: 집단 선택 가설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생존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타적 인간이 진화함. → (⑦)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⑧)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하지만, 실상은 집단 선택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림.

정답 ① 생존 경쟁 ② 친족 ③ 복제본 ④ 이타적 ⑤ 이타적 ⑥ 보복 ⑦ 집단 ⑧ 개인

1 내용 전개 방식 이해

(가)에서는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인 해밀턴의 혈연 선택 가설과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혈연 선택 가설에 대해서는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엮힌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된다 하고 있으며,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론에 대해서는 개체를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을 돕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진화적 게임 이론인 반복-상호성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을 통해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 및 이타적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복-상호성 가설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반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집단 선택 가설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해밀턴의 혈연 선택 가설과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론, (나)의 반복-상호성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을 대립된 이론이라 볼 수 없으며, (가), (나)에서 각각의 이론을 절충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② 동물과 인간이 이타적 행동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관련 이론을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타적 행동의 구체적 유형이 무엇인지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타적 행동과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러한 이론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서는 집단 선택 가설과 관련하여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한 이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 해밀턴의 혈연 선택 가설이나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은 찾아볼 수 없다.

2 세부 정보 이해

해밀턴은, 개체들의 이타적인 행동이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혈연 선택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은 이러한 혈연 선택 가설을 설명하기 위한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밀턴의 혈연 선택 가설의 내용을 볼 때, ㉠은 개체의 이기적 행동 뒤에 숨은 이타적 동기에 대해 설명한 것이 아닌, 개체의 이타적 행동 뒤에 숨은 이기적 동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해밀턴의 법칙은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법칙이고, 'r×b−c>0'에서 'r'은 유전적 근연도이다. 따라서 ㉠은 유전적 근연도인 r을 중심으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r은 2촌인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촌씩 늘어날 때마다 반씩 준다고 하였으므로,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삼촌 관계일 때 r은 0.5×0.5인 0.25가 된다. ④ 부모가 자식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50%이고, 형제자매 간에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도 50%라 하였으므로, 이타적 행위자와 수혜자가 부모 자식이거나 형제자매 관계일 때 r은 모두 0.5임을 알 수 있다. **⑤ 〈최다 선택 오답〉** r은 유전적 근연도로, 형제자매 간에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50%, 2촌인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촌이 늘어날 때마다 반씩 줄게 되므로, r은 0≤r≤1가 되어 b=c일 경우 해밀턴의 법칙인 'r×b−c>0'을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혈연관계일 때 b와 c가 같으면, 이타적 유전자는 진화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⑤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⑤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조건에 맞게 ㉠을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③에 의하면 이타적 행위자와 수혜자가 삼촌 관계일 때 r=0.25이고, ④에 의하면 이타적 행위자와 수혜자가 부모 자식이나 형제자매 관계일 때 r은 0.5이다. 즉, 이타적 행위자와 수혜자가 혈연관계이면 r은 0≤r≤1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b는 수혜자가 얻는 이득, c는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실이므로, 'r=0.5, b=3, c=3'이라고 가정하면, '0.5×3−3=1.5−3=−1.5<0'이므로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간단하더라도 계산 문제가 나오면 실제 숫자를 대입하여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임의의 숫자를 내기 어려우면, 글이나 다른 선택지에 제시된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도록 한다.

3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5에 따르면, TFT 전략은 상대방이 협조할지 배신할지 모르고 선택이 매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협조하고 그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사용한 방법을 모방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보기〉에서 A는 TFT 전략을

사용하므로, 첫 회에는 협조 전략을, 두 번째 회부터는 B가 이전 회에 사용한 전략을 따라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B는 첫 회에만 비협조 전략을 사용한다 하였으므로, 두 번째 회부터는 모두 협조 전략을 사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첫 회에서 A는 협조, B는 비협조 전략을, 두 번째 회에서 A는 비협조, B는 협조 전략을 사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표를 보면, A와 B의 보수는 첫 회에서는 (−1, 2), 두 번째 회에서는 (2, −1)이 되므로, 두 번째 회까지 얻게 되는 B의 보수의 합은 1(2−1=1)이 된다.

4 세부 정보 추론

6에 따르면,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살아남는 데 유리하고, 집단 간의 생존 경쟁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 자연히 이를 구성하는 이타적 인간도 진화하게 된다. 그런데 집단 선택의 속도보다 개인 선택의 속도가 빠르게 되면, 집단 선택에 의해 이타적 구성원의 진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집단 내의 이타적 구성원은 이기적 구성원과의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라지게 되며, 집단에는 이기적인 구성원들만 남게 된다. 따라서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 선택으로 이타적 구성원이 먼저 소멸하게 되어 이타적 구성원이 진화하게 되는 집단 선택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집단 선택의 속도가 개인 선택의 속도보다 느릴 경우, 개인 선택에서 이기적 인간이 살아남는 데 유리하게 되므로 이타적 구성원의 수가 천천히라도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개인 선택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집단 선택에 의해 이기적 구성원이 소멸된다고도 볼 수 없다. ③ 집단 선택의 속도가 느리더라도 집단 간의 생존 경쟁이 발생하여 집단 선택 역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⑤ 개인 선택은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 해당하므로,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개인 선택에 불리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5 자료 이해

2에 따르면, 해밀턴은 개체들의 이타적인 행동이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혈연 선택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기〉의 ㄱ을 통해 암컷 중 여왕개미가 되지 못한 일개미와 부와의 유전적 근연도는 1, 모와의 유전적 근연도는 0.5이고, 자매들 간의 유전적 근연도는 0.75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개미가 직접 번식을 하지 않고 자매들을 돌보는 이유에 대해 해밀턴은 유전적 근연도가 높은 자매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3에 따르면, 도킨스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행동이 겉보기에만 그럴 뿐, 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라 여긴다. ③ 5에 따르면, 반복-상호성 가설에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④ **〈최다 선택 오답〉** 6에 따르면,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서, 법과 관습과 같은 집단 선택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식량 공유 관습에 따라 이기적 구성원도 자신의 식량을 타인에게 공유해야 하므로, 이기적 구성원이 이타적 구성원으로 변모하게 되어 이타적 구성원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⑤ 2에 따르면, 혈연 선택 가설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 간의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므로, 이는 친족이 아닌 부족원 간의 식량 공유 관습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6에 따르면,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 관습에 주목하므로, 식량 공유 관습과 같은 협업을 통해 집단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 ④가 〈최다 선택 오답〉에 오른 이유

많은 학생들이 ④를 답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기적인 구성원에게 식량을 공유하면 이기적인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고 이타적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어 이타적 구성원이 사회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량을 공유하는 관습에 따라 이기적인 인간도 자신의 식량을 남에게 공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기적 인간도 이타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식량 공유 관습을 통해 이타적 구성원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할 때는 직관적으로 이론의 내용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차분히 글과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헷갈리는 선택지는 여러 번 읽으면서 의미를 확실히 파악하도록 한다.

6 어휘의 의미 관계 이해

ⓑ는 '책망이나 괴로움 따위를 달갑게 받아들임.'의 뜻이고, ②의 '감수'는 '책의 저술이나 편찬 따위를 지도하고 감독함.'의 의미이다. 따라서 ⓑ와 ②의 '감수'는 음은 같지만 뜻은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오답 해설 ① ⓐ와 ①의 '관찰' 모두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봄.'의 뜻이다. ③ ⓒ와 ③의 '도태' 모두 '여럿 중에서 불편하거나 무능한 것을 줄여 없앰.'의 뜻이다. ④ ⓓ와 ④의 '유용' 모두 '쓸모가 있음.'의 뜻이다. ⑤ ⓔ와 ⑤의 '대응' 모두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의 뜻이다.

7 핵심 정보 이해

6에 따르면,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개인이 생존하는 것이 개인 선택이므로, 환경에 적응하는 적자 생존의 법칙을 ㉱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는 동물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이론이므로 이 역시 적자 생존 법칙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1을 통해 ㉮와 ㉰가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임을, 4를 통해 ㉯와 ㉱가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와 이타적인간이 진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임을 알 수 있다. ② 2의 '개체들의 이타적 행동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혈연 선택 가설을 제시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3의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행동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 셈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2를 통해 ㉮가 유전자의 개념으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한 이론임을, 5를 통해 ㉯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혈연관계가 아닌 할머니를 돕는 행위의 이유에 대해 ㉯는 설명할 수 있지만, ㉮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8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

〈보기〉의 ㉡은 Ⓐ와 같은 의미로, '수나 분량이 본디보다 적어지거나 무게가 덜 나가게 되다.'의 뜻이다.

12강 어휘 테스트

• 본문 220~221쪽

01 ②	02 ②	03 ②
04 주장했다	05 늦추어지거나	06 치료하기
07 합치는	08 구분한다	09 넘겨줄
10 내세울	11 두둔하는	12 이익
13 심한	14 요소	15 통념
16 형질	17 내재하는	18 성숙
19 정의하고	20 각색한	21 별개
22 공유하는	23 반향	24 유리하기
25 ㉢	26 ㉠	27 ㉡
28 ⑤	29 ⑤	30 ②

04 '주창하다'는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하다.'의 뜻으로,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우다.'를 의미하는 '주장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선포하다: 세상에 널리 알리다.

05 '지연되다'는 '무슨 일이 더디게 끌어져 시간이 늦추어지다.'의 뜻으로, '늦춘 상태가 되다.'를 의미하는 '늦추어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느슨하다: 마음이 풀어져 긴장됨이 없다.

06 '치유하다'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다.'의 뜻으로,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하다.'를 의미하는 '치료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제거하다: 없애 버리다.

07 '통합하다'는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치다.'의 뜻으로, '합하다(여럿이 한데 모이다. 또는 여럿을 한데 모으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인 '합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옮기다: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하다.

08 '구별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다.'의 뜻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를 의미하는 '구분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반분하다: 절반으로 나누다.

09 '양도하다'는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다.'의 뜻으로, '물건, 권리, 책임, 일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기다.'를 의미하는 '넘겨주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넘겨받다: 물건, 권리, 책임, 일 따위를 남으로부터 받아 맡다.

10 '주장하다'는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우다.'의 뜻으로, '주장이나 의견 따위를 내놓고 주장하거나 지지하다.'를 의미하는 '내세우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재촉하다: 어떤 일을 빨리하도록 조르다.

11 '옹호하다'는 '두둔하고 편들어 지키다.'의 뜻으로, '편들어 감싸 주거나 역성을 들어 주다.'를 의미하는 '두둔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비하하다: 자기 자신을 낮추다.

12 '이득'은 '이익을 얻음. 또는 그 이익'의 뜻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익'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손익: 손해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

13 '혹독하다'는 '몹시 심하다.'의 뜻으로, '정도가 지나치다.'를 의미하는 '심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은하다: 보통보다 더 자주 있거나 일어나서 쉽게 접할 수 있다.

14 요소: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

15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16 형질: 동식물의 모양, 크기, 성질 따위의 고유한 특징

17 내재하다: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다.

오답 해설 건재하다: 힘이나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

18 성숙: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오답 해설 성공: 목적하는 바를 이룸.

19 정의하다: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다.

오답 해설 정리하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하다.

20 각색하다: 서사시나 소설 따위의 문학 작품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고쳐 쓰다.

오답 해설 검색하다: 책이나 컴퓨터에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내다.

21 별개: 관련성이 없이 서로 다름.

오답 해설 별것: 여러 가지 것

22 공유하다: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오답 해설 향유하다: 누리어 가지다.

23 반향: 어떤 사건이나 발표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어 일어나는 반응

오답 해설 반영: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이 나타남. 또는 어떤 현상을 나타냄.

24 유리하다: 이익이 있다.

오답 해설 불리하다: 이롭지 아니하다.

28 〈보기〉의 '억제하다'는 '감정이나 욕망, 충동적 행동 따위를 내리눌러서 그치게 하다.'의 뜻으로, ⑤의 '억제하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④ 정도나 한도를 넘어서 나아가려는 것을 억눌러 그치게 하다.

29 〈보기〉의 '발달하다'는 '신체, 정서, 지능 따위가 성장하거나 성숙하다.'의 뜻으로, ⑤의 '발달하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④ 지리상의 어떤 지역이나 대상이 제법 크게 형성되다. 또는 기압, 태풍 따위의 규모가 점차 커지다. ②, ③ 학문, 기술, 문명, 사회 따위의 현상이 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다.

30 〈보기〉의 '불과하다'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의 뜻이다. 반면, ②의 '불과하다'는 '그 수량에 지나지 아니한 상태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MEMO

MEMO

MEMO

MEMO